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Tel. 064)726-5623 Fax. 064)900-1840

www.jst.re.kr

2025 제4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광복 80주년 기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4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교재

교육 기간

2025. 3. 20. ~ 5. 1.

(총 8회, 매주 목요일 19:00 ~ 22:00, 현장 1회)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4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광복 80주년 기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4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교재

 교육 기간

2025. 3. 20. ~ 5. 1.

(총 8회, 매주 목요일 19:00 ~ 22:00, 현장 1회)

01	3. 20.목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02	3. 27.목	제주 역사와 삶에 대한 기록의 수집, 번역과 활용 방안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03	4. 3.목	해양 제주의 특성과 섬 문화 기록화 방안	김나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04	4. 10.목	제주의 자연과 목축문화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05	4. 17.목	지역문화 관점에서 영상 기록과 활용	박정근 사진작가
06	4. 24.목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김보향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07	4. 26.토 오전 9시	현장 답사(제주시 원도심)	현장 강의 및 답사 (김원순·문동철)
08	5. 1.목	시민 아키비스트 주제 발표 및 토론 / 수료식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현혜림 센터 전문연구원

• 수료증 발급: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배부
• 제주도민대학 강좌 100학점 이상 이수시 명예학사 수여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09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 역사와 삶에 대한 기록의 수집, 번역과 활용 방안 29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해양 제주의 특성과 섬 문화 기록화 방안 49

김나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제주의 자연과 목축문화 91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지역문화 관점에서 영상 기록과 활용 125

박정근 사진작가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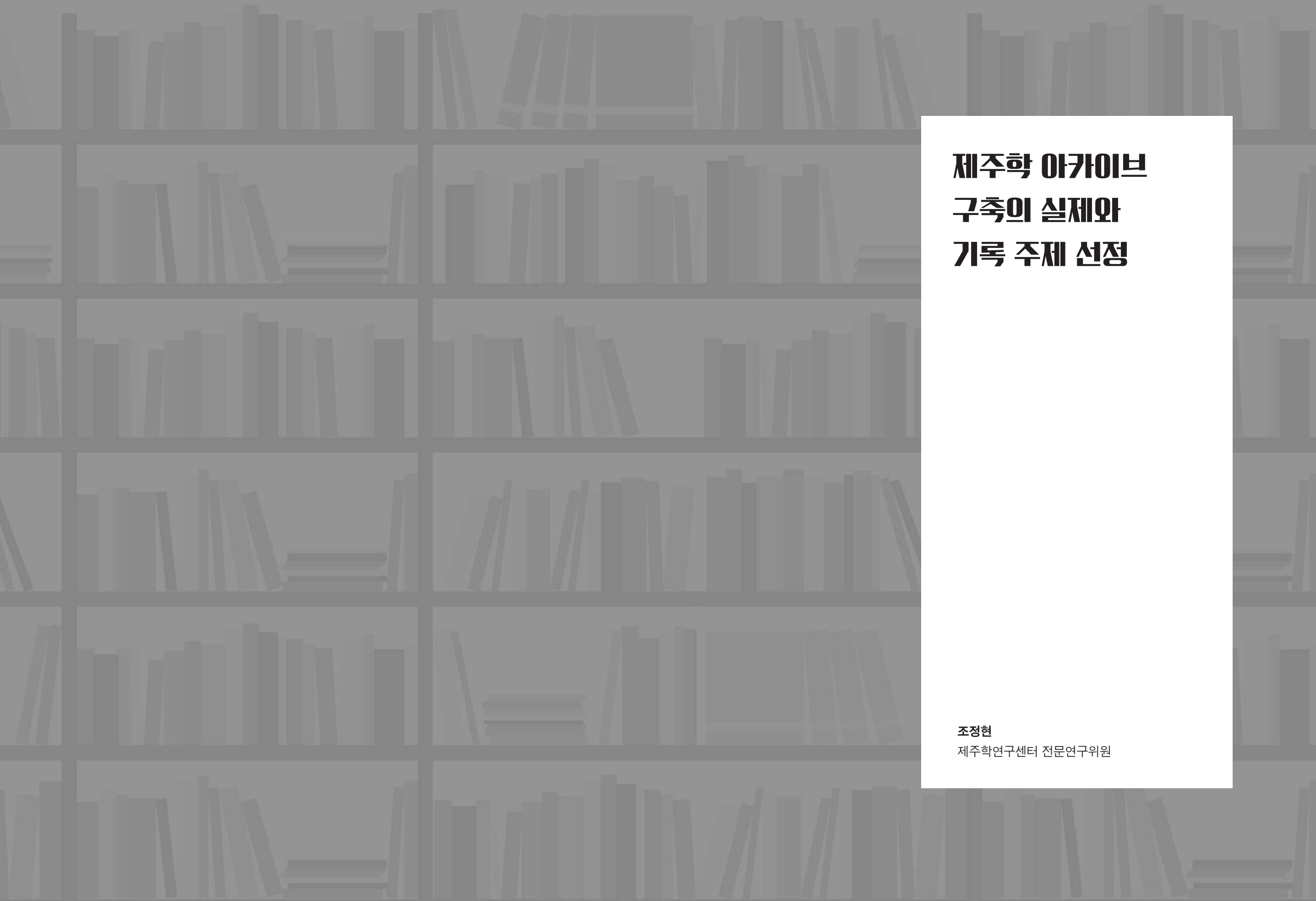
김보향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1 175

김원순 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2 189

문동철 제주향토역사 연구위원, 시민아키비스트 2기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원형이 사라지면,
'내가 구축한'
기록이 원본이 된다!

조 정 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25. 3. 20.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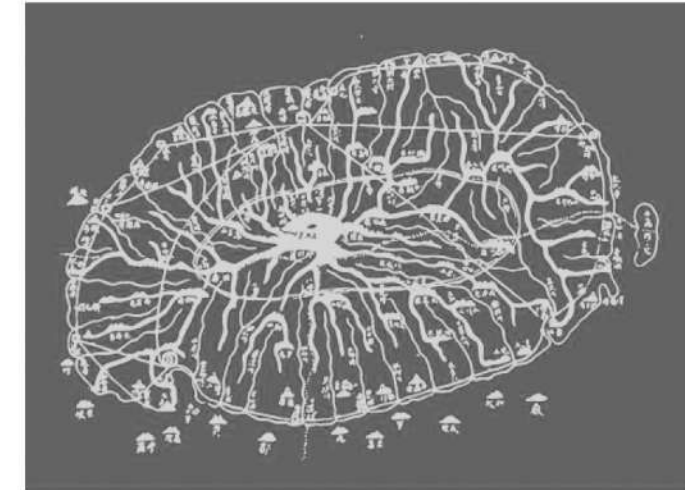
1.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2.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3. 나에게 맞는 기록 주제 선정 및 구축 방법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1.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 사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
- 종이(지류), 사진, 전자파일 등 망라
- Records: 현용 기록물(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보관, 이용하는 기록)
- Archives: 보존 기록, 비현용 기록물(현재는 활용되지 않으나 영구 보관, 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아카이브의 정치

“아카이브는 권력이 시작되는 곳이다. 기억의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카이브의 통제 없이 정치권력은 없다... 효과적인 민주화는 아카이브의 구성, 아카이브에 대한 해석에의 참여와 접근에 의해 측정된다.”

- 자크 데리다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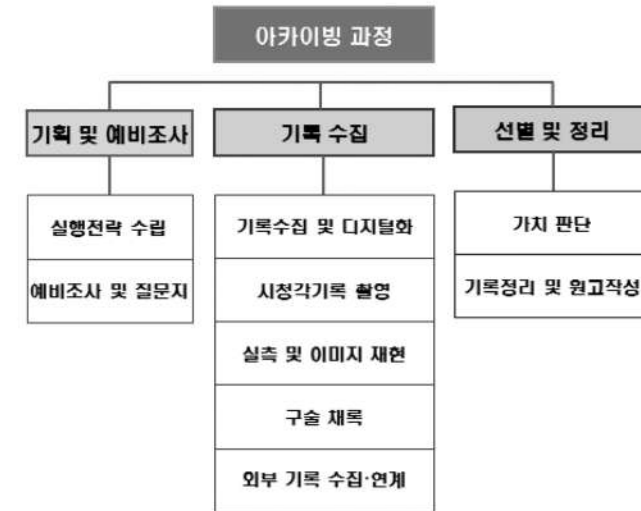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무결성: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물리적·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비전

-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현지적 시점에서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생활형 아카이브
- 일방적 업로드가 아닌 쌍방향 의견 제시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
-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문화유산 아카이브
-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향토’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지역(마을)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매체와 디지털 환경,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 전설, 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 제주 신화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골과 도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기록이 축적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의미화’가 강화되고 마침내 지역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JRI 제주학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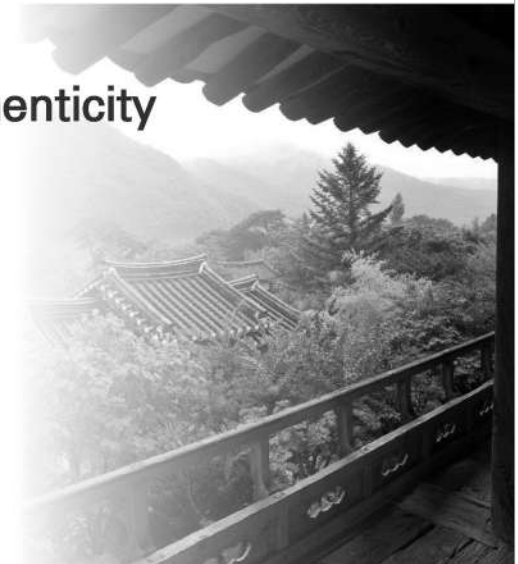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진정성(고유성)” Authenticity
구심적 전승

VS

“무대화된 고유성”
Staged Authenticity
원심적 전승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2.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1) 기억

기억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다.

기억은 원래 증인의 감각경험으로서 원초적인 형태로 증인의 감각 기관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 작용을 거쳐 뇌에 저장된다.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이 단계에서의 '기억'은 증인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는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 망각되거나 혹은 증인의 다른 개념 장치에 의해서 변질된다.

이 같은 원초적인 기억이 역사적인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2) 기억과 구술에서 기록으로!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 특히 제주에는 구술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의 기록화는 주체에 따라서 바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술과 타인의 기록으로 생산된다.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 아카이브

신화의 섬, 살아있는 역사문화박물관



조사연구, 제주정체성발굴, 기록, 확산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 제주학연구센터 오픈 아카이브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누구나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표시 분명히!)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 지역(마을)과 일반에게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주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지역(마을) 박물관(전시관) 유물자료로 활용
→ 다양한 작품과 축제, 관광 등을 위한 창작소재로 활용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3. 나에게 맞는 기록 주제 선정 및 구축 방법



JRI 제주학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지역학 아카이브 시민 기록자의 기록대상 선정 기준

- 고유성: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대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
- 전파론: 본래의 원형 전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이 남게 되는 문화현상
→ 대표적인 사례: 제죽말, 포제 등
- 독립발생설: 지역의 토착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지역 고유의 개성적 역사와 문화

JRI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문전제



문전제 유래

- 제주 무속의 문전본풀이
- 제주 가정신앙의 한 형태가 확장된 것
- 제사에 따라온 잡귀잡신을 위한 것
- 제사에 찾아온 옷대 조상신들을 위한 것
- 기타

JRI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본향당이란 제주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네들 영혼의 동사무소, 요즘 말로 하자면 주민센터예요. 제주 여인네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본향당에 와서 신고한답니다.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고가 났다, 돈을 벌었다, 농사를 망쳤다, 육지에 갔다 왔다, 자동차를 샀다, 우리 애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다,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하고 고해바칩니다. 제주 신의 중요한 특징은 신과 독대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신을 할망(할머니)이라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자애로움이 있잖아요. 여성은 소문 내지 않고 자기 얘기와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답을 몰라서 아니죠. 그런 하소연을 함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겁니다. 심신의 카운슬링 상대로 할망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이 시인의 대담)

JRI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한림읍 한수리 해신당(강만보, 1986, 제주학 아카이브)

JRI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조천읍 와흘리 분향당굿(강만보, 1992, 제주학 아카이브)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민속문화-토속적 제의문화



동회천 마을 오석불제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에서 당굿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유교식 포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러 행정기관의 지원과 남성 중심의 마을 운영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성 중심으로 거행되는 포제이지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다함께 준비하는 마을공동체 제의이기에 사실상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결속과 후속세대의 양성 등 긍정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어 그 전승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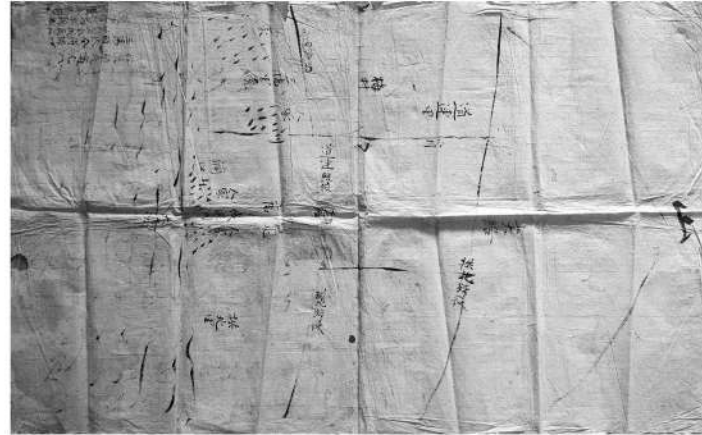
성산읍 신양리 해녀의 물질(물질문화 및 생활사적 접근 필요)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마을에 보존(지동계)되고 있는 다양한 옛 문헌들

- 호적중초(호구기록), 마을공유자원, 마을제(포제, 당제), 동안 및 동접례, 목축계 등
- 성담, 마을 재건, 수도, 전기 등 도입 관련 문서, 새마을운동 문서, 마을지 기초자료 등

JRI 제주학연구소/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갯일(양태장)



JRI 제주학연구소/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아카이브- <https://jst.re.kr/iha/main.do>

JRI 제주학연구소/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미륵불(서자복)



JRI 제주학연구소/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각종 공덕비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제주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주목할 필요 있음

의식주 문화

- 제주 갈옷, 정동벌립, 가죽옷, 나막신, 장옷 등 의생활의 특성
- 빙떡과 상웨떡, 지름떡(별떡), 돌레떡, 고소리술 등 일상 음식과 의례 음식
- 제주 돌집과 거주관행의 특성(안거리 밧거리)

생업과 경제생활

- 찾아보기 쉽지 않은 논농사와 밭농사 중심의 농업
- 제주도형 어업의 특성(자리돔, 멜후리기, 테우문화 등)과 해양문화
- 중산간 지역의 반농반축(半農半畜), 해안 지역의 반농반어(半農半漁)
- 제주도 민속오일장과 읍면 오일장

공동체적 생활 방식과 세시

- '마을회'의 발달과 제주형 자치관행(향장 전통), '훈장문화'와 교육열
- 당굿과 포제, 경로잔치(도일주 여행), 체육대회, 추석노래자랑 등의 지역공동체 세시
- 마을과 읍면동을 넘나드는 갑장계 모임, 연합청년회 등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제주 마을공동체의 역사는 현재진행형!!!

- 대표적인 사례로 '남성마을'을 들 수 있음.
- 1990년대까지 화장터로 불려온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마을 이름을 얻기 위한 노력 경주
- 뜻 있는 주민들의 헌신으로 '마을회'를 구성하고 남성마을이란 이름을 지음.
- 남성마을이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택시비를 주고 어디 나갔다 올 때는 반드시 택시를 타고 '남성마을로 가자'고 하여 마을 이름 홍보!
- 현재는 남성마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기존 화장터 마을이었던 흔적을 많이 지워내고 새로운 도심 속 마을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시민 아키비스트의 기록 대상 선정 키워드

키워드 1

과거

현재

키워드2

장소

사람(들)

사건

생활문화

사물

환경

키워드3

사라진

변화하는

일상의

우리만 아는

소외된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4

기억

사료

- 배은희 선생님의 2023년 기초과정 강의 자료 참조

JRI 제주학 아카이브

원형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시민 아키비스트 등 기록자가 아카이빙 시 고려할 사항

1. 내가 해당 대상을 왜 기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2. 이 기록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려
3.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기록에 임할 것인지 고민
4. 내가 기록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
5. 내가 기록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주관적 선별이나 배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
6. 통상적 조사 및 연구 윤리, 저작권 등 마을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7. 지역학 아카이브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공적 기록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Center for the study of Jeju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와 기록 주제 선정
- 원형이 사라지면, '내가 구축한' 기록이 원본이 된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감사합니다!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Center for the study of Jeju

제주 역사와 삶에 대한 기록의 수집, 번역과 활용 방안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 역사와 삶에 대한 기록의 수집, 번역과 활용방안

-시민 기록자 심화과정-

2025년 3월 27일, 목. 19-22시.
제주학연구센터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imsaemio@hanmail.net>

김새미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졸업
- 태동고전연구소 수료 / 한국고전번역원 수료 / 국사편찬위원회 초서과정수료
- 현)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조선시대 유학의 확장-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번역. 심재집, 남한박물, 대포리고문서 등
- 마을 조사. 수산리, 애월리, 신엄리, 난산리.
- 녹취조사. 소암 현중화 선생에 대해

목차

- 나와 내 주변 사항에 대한 고민
- 문헌자료와 구비자료
- 제주관련 문헌과 번역자료, 활용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주제, 생각)

-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인다.
- 이질성이 느껴지는가?
-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주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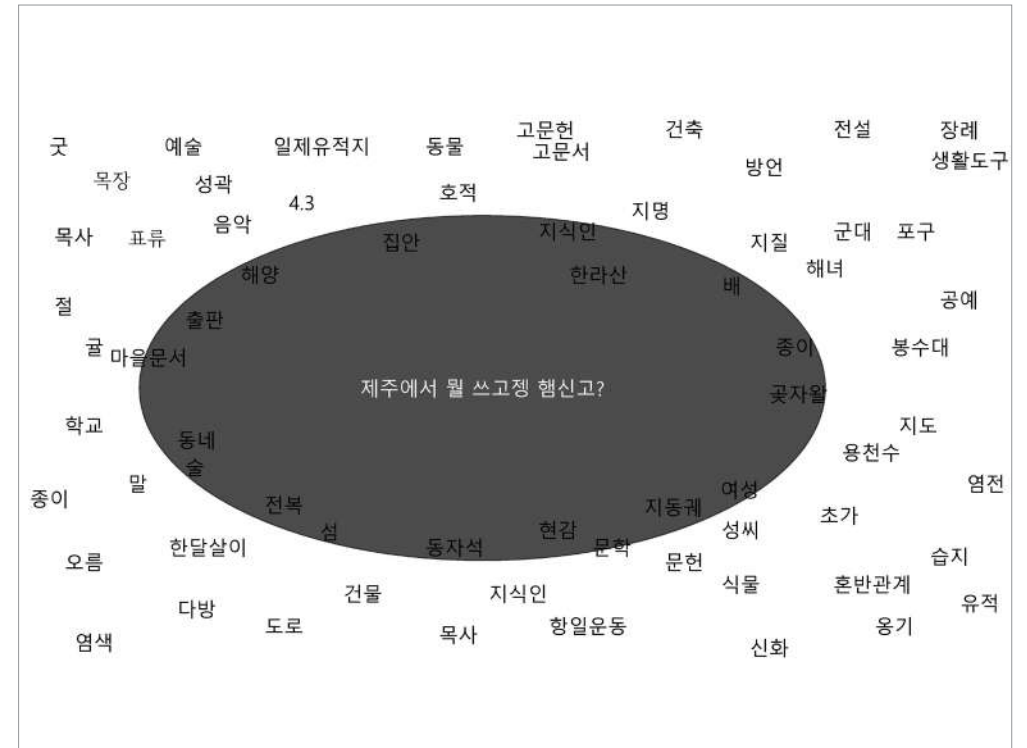
나를 점검해 보시길...

-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 주제에 맞는 약간의 좋은 병 (습관)이 있는가?
- 내 능력에 맞는 주제일까?
-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까?



외부 환경 점검

- 나랑 같이할 동지(동료, 길벗, 전우...)는 누구인가?
- 지금은 쳐다보지 않아도 나중에 관심받을 주제는?
- 이 방면의 고수는 누구인가?



주유소습격사건 중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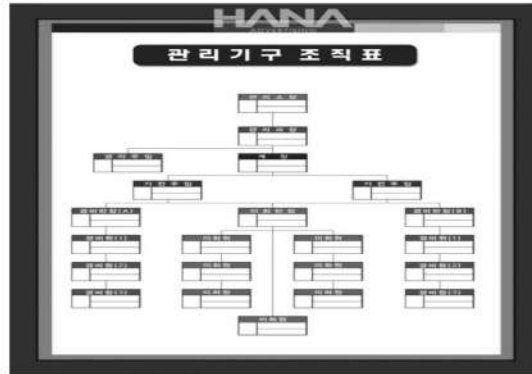
주제

A1

A-1

A-1-1

A-1-1-1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모든 것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면, 이어지는 주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 5개 정도의 연결된 주제가 있
으면, 책 1권이 만들어 진다.
- 자신의 비밀은 있어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누가 읽을 것인가?

누가 볼 것인가?

적절한 사진, 영상의 이용
출처 등은 잘 적었나?

비교대상을 고민하라.



제주 기억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청. 정판교

衙齋臥聽蕭蕭竹 : 관아에 누워 댓잎 소리를 듣노라니
疑是民間疾苦聲 : 백성들의 신음 소리인가?
些少吾曹州具吏 : 나 같은 말단 지방관에게는
一枝一葉從關情 : 가지 하나 잎 하나가 백성들의 하소연일세

이회영_ 난앞으로 칼을 얻다.

목란은 나라 잃은 선비(정사초)의 기상을 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난 앞에 칼이 없으면, 난이 아니요,
난 앞에 난만 있어도 난이 아니다.

제주 고전 문헌 자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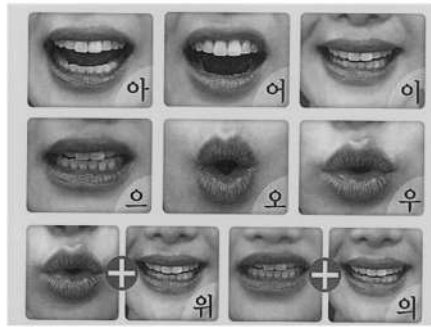
稀_ 많지 않다.

草_ 필사본이 많다.

野_문장이 깔끔치 않다.

證_교차 검증이 어렵다.

문헌과 구술



내가 꼭 번역을 해야 하나?

내가 꼭 이 구술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유배인



충암 김정 _ 충암집
 동계 정온 _동계집
 간옹 이익 _간옹유고
 우암 송시열_우암집
 김진귀_ 만구와유고(미번역) - 김춘택_북헌집 - 서하 임징하
 권진응_산수현유고(미번역)
 조정철_영해처감록
 추사 김정희_완당전집
 김윤식_운양집
 면암 최익현_면암선생문집 등등

백호 임제 _ 남명소승
 청음 김상헌_ 남사록
 이증 _ 남사일록
 이경억 송별시첩
 이원호 탐라일기

도래인



제주문인



매계 이한우 유허비

순조 계미년(1823)에 제주 신촌리 집에서 태어났다. 매우 똑똑하고 뛰어나서 열세 살에 경서와 역사에 통했다. 일찍이 시강하는 모습을 관아에서 보고 듣는 이들이 크게 놀랐다. 당시 목사인 이공(李公)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 자라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찾아가 배우니, 시와 글로 마침내 대가가 되었다. 서울에 과거 보러 갔을 때 승지(承旨) 목인배(睦仁培)를 만났는데,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모(李某)는 호남 선비 중 으뜸이다.”하고는 그의 아들에게 따라서 어울리게 하였다. 또 우리 고장의 석학인 소백(小栢) 안달삼(安達三), 이락(二樂) 이계징(李啓徵),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 석호(石湖) 고영흔(高永昕) 등 여러 어진 선비가 다 그의 제자들이다.

변경봉
매계 이한우
소백 안달삼 해은 김희정 석호 고영흔
한봉 장성규
심재 김석익
백수여음 김경중
혁암 김형식 송산 김명식.....

매계 이한우_매계선생문집
부해 안병택_부해선생문집
해은 김희정_해은선생문집
심재 김석익_심재집
김대흥_영헌선생문집
혁암 김형식_혁암산고
등등...

목민관



이익태



지영록



병와 이형상 남한박물관





이원진 탐라지
 윤시동 증보탐라지
 이원조 탐라지초본
 김두봉 탐라지
 담수계 증보탐라지
 등등..

역사물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등등

고문서 류



해은 김희정 닻
 애월 인동장씨 닻
 각 마을의 서동궐 자료들
 등등...
 호적 자료

▶ 제주문화원
 이원호, 역주 탐라일기, 윤찬호, 이새롬, 2022.
 김인택, 대정현아중일기, 백규상, 2021.
 역주 제주읍지(역주본), 백규상, 2020.
 이원조, 역주 탐영관보록(역주본), 백규상, 2019.
 이익태, 역주 지영록, 김익수, 2019.
 이원조, 역주 탐라록 하(역주본), 백규상, 2018.
 제주도 명승, 오문복(편역), 2017.
 이원조, 역주 탐라록 중(영인본), 백규상, 2017.
 이원조, 역주 탐라록 상(역주본), 백규상, 2016.
 윤시동, 국역 증보탐라지(영인본), 김영길, 2016.
 안병택, 부해문집 IV, 오문복, 2015.
 김희정, 해은문집, 백규상, 2014.
 안병택, 부해문집 III, 오문복, 2013.
 김윤식, 속음형사, 김익수, 2010.
 이건, 규창집, 김익수, 2010.
 안병택, 부해문집 II, 오문복, 2009.
 김상헌, 역주 남사록 하, 홍기표, 2009.

안병택, 부해문집 I, 오문복, 2008.
 김상헌, 역주 남사록 상, 홍기표, 2008.
 하가리소장고문서(영인본), 2007.
 신희리지, 김정탁 외, 2007.
 김정 / 임제 / 이건 / 신광수, 역주 제주고기문집, 김일우 외, 2007.
 김경중, 백수여음, 백규상 역, 2006.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 김익수, 2006.
 담수계(편저), 역주 증보탐라지, 김순이 외, 2005.
 김균배, 근재북학일기, 오문복 역, 2005. 복제주문화원.
 김문주, 농은문집(영인본), 2004. 복제주문화원.
 김형식, 혁암산고, 오문복, 2004. 복제주문화원.
 담수계(편저), 증보탐라지(영인본), 2004. 복제주문화원.
 김정, 노봉문집 권2, 3, 4, 김익수 역, 2003.
 이병연 외, 조선환여승람 제주도편(영인본), 2002.
 이증, 남사일록, 김익수, 2001.
 김정, 노봉문집 권1, 시집, 김익수역, 2001.
 임제 외,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 김봉옥 편역, 2000.
 김협 / 신희석, 노굴시집·화암시집, 김익수, 2000.
 박지원 / 이정무 / 정언유 / 양현수,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김익수 역, 1999.

▶ 민속자연사 박물관

『고문서에 담긴 조선후기 제주인의 삶 -제주 대포리 고부이씨 집안 소장 고문서』 김새미오, 문창선, 이진영 역, 역사자료총서 7집, 2023.
 <남환박물>, 김새미오, 이진영 역. 박물관 역사자료총서 6집 2022.
 <탐라장계초>, 김익수 역, 박물관 역사자료총서, 5집 2021.
 <탐라록>, 박물관 역사자료총서 4집, 김익수 역, 2020.
 <빼어난 절역에서의 유람은 평생에 제일이더라>, 역사자료총서 3집, 김익수 역, 2019.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 <목도에서 경쇠 치던 벗에게 보낸 편지-유배지에서 영양공에게>, 김익수 역, 2018.
 역사자료총서 제1집(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 김익수 역, 2017.

▶ 제주우당도서관

심재집 1, 김새미오 역, 2019.
 심재집 2, 김새미오 역, 2020.
 심재집 3, 김새미오 역, 202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속의 탐라, 오문복, 김새미오 외, 2011.
 변경봉 문집, 김새미오, 2020.

▶ 국립제주박물관

『지영록』 - 고전총서 1...2021
 『표해일기』 - 고전총서 2...2022
 『관풍안』 - 고전총서 3...2023

▶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효열록 이야기, 고창석, 2023.
 영현유고, 김영길, 2022.
 고문헌으로 보는 조선후기 제주인의 삶, 문창선.이진영.오창림, 2020.
 남천록, 김영길, 2018.
 양우상화두문집, 오문복, 2017.
 국역탐라계록 제주목관찰, 2017.
 매계선생문집, 김영길, 2016.
 한재북학일기, 백규상, 2016.
 난곡선생문집, 이진영, 2016.
 규암선생문집, 백규상, 2014.
 탐라빈흥록, 고창석, 2013.
 우암선생문집, 김영길, 2010.
 탐라지초본(하), 2008.
 탐라지초본(상), 2007.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 원주변씨 변경봉 후손가 고문서, 제주학연구센터, 2024-12-2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VI) 영조대(1760~1776)(상, 중, 하), 2023.
제주 애월읍 수산리 밀양박씨 고문서, 제주학연구센터, 2023-12-2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IV) 경종·영조대(1724~1734) 제주학연구센터 2020-12-20
제주 상창리 梁氏家 고문서, 김영길, 고광민, 2018-12-30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번역집, 제주학연구센터, 2019-12-31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Ⅲ -숙종대- 상, 중, 하, 제주학연구센터, 2019-12-01,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II -현종대-, 제주학연구센터, 2018-08-06.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I -효종대-, 제주학연구센터, 2017-06-30.

▶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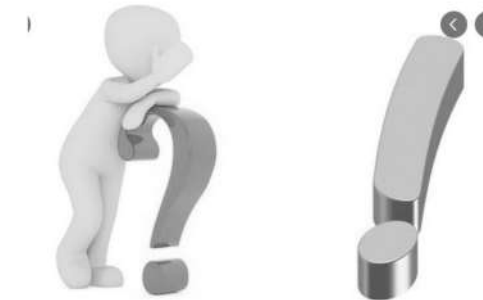
고문서집성
고문서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애환
제주 옛문서의 빛장을 열다

제주관련 문헌 해석 현황

- 지속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함.
- 주요문헌은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됨.
- 제주문인의 자료조사가 필요함.
- 고문서 류는 거의 번역이 안 된 상태.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기관에서의 자료조사가 있었음.
 - 종합적인 자료정리는 요원한 상태.

번역자료의 활용

- 주제별로 통시적으로 엮어 변화사항을 읽어낼 필요가 있음.
- 번역과 기록물 교차점검이 요구됨.
- 번역자료+구술자료=신자료>의 구조...
예) <문헌자료+전설>의 교차검증
- * 번역도 중요,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중요.
[사진, 핵심단어...]





해양 제주의 특성과 섬 문화 기록화 방안

김나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해양 제주의 특성과 섬 문화 기록화 방안

1. 머리말

역사의 흐름 속에 고대·중세라 일컫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능동적인 해양사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였다. 이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해양 관련 신화와 전설 및 미약하게나마 잔존하는 사료의 기록, 그리고 바다 곳곳에 산재되어 발굴·인양되어지고 있는 해저 출토유물을 통해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근세라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서양은 바다에 대한 사뭇 다른 인식과 행보를 보이게 된다. 즉, 대항해시대라는 팻말을 내걸고 바다에 무장해제를 선포한 서구세계와 달리 중국의 명·청조를 주축으로 재편된 동아시아 세계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이란 해양 정책하의 국제질서 속에서 바다를 통한 교류를 폐쇄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의 바다가 아닌 육지로의 질서설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바다에 의존해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주변 해역에서는 바다를 통한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근대 이후 탈냉전과 탈식민화라는 물결 속에 그동안 세계 속에 군림하였던 서구문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이제까지 세계 변방으로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동아시아에 대한 시공간적 인식의 재조정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주는 지리적 관점에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를 고대·중세·근세·근현대라는 시간적 범주 내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냄으로써 온전한 하나의 동아시아 역사, 즉 동아시아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을 중심축으로 한 대륙이라는 한정된 공간적 틀 안에서 편향된 관점으로 이해되어졌으며, 대륙을 감싸 안은 해양은 그저 대륙의 연장선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다. 표면화된 역사적 담론을 들여다보면, 서구 세계는 고대부터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태동시킨 원동력으로 바다를 마주 대하였고, 그 바다의 주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복을 반복하는 등 열린 세계로의 모습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동아시아 세계는 그 중심을 대지에 한정지음으로써 폐쇄성을 띤 닫힌 세계로 인식되었다. 이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 『역사철학강의』에서 제기한 “서방문명이 남색의 해양문명이라고 한다면, 동방문명은 황색의 대륙문화라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단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 인식의 성찰은 21세기 해양의 세기(Ocean Century)¹⁾를 맞이하여 해양을 교두보로 한 대륙 너머 각 국가와의 해양교류사에 대한 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고, 과거 대륙이라는 역사적 서술의 틀에 해양이라는 문화접촉 코드가 더해지면서 보다 더 입체적인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개념이 구축되었다.

1) 해양의 세기는 1994년 UN에서 <UN해양법>을 발효함으로써 발동이 걸렸고, 그 후 1998년 ‘세계 해양의 해’가 선포되면서 본격적인 명제가 되었다(곡금량 著, 김태안·안승웅·최낙민 譯,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20쪽).

이와 더불어 탈근대담론에 의한 역사적 재고찰은 중앙과 중심이 아닌, 지방과 주변이라는 공간의 사고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동아시아²⁾라는 지경학적·지경학적(地政學的·地經學的) 큰 틀에서의 국가라는 공간보다 그 국가 내에 존속한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다양성과 특수성의 대안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라는 권력구조 속에 편입된 지배층 중심의 역사 관념에서 벗어나 외연적으로 표상화(表象化)되지 못했던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적 해석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는 점(點)적인 공간에서 발생되어진 ‘표류·표도’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면(面)의 역사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장소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인해 파생되어지는 인간의 삶과 활동 모습의 한 단면 가운데 ‘표류·표도인’의 존재양태를 통해 인문·지리·사회학적 측면에서 제반 원인을 면밀히 고찰함은 물론, 더 나아가 대외사적 교류라는 점차 확장된 영역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표류에 대한 지역사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움직임은 일본의 각 지방에서 선행적·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그 지역의 역사성 가치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근세시기 일본인을 포함한 이국인의 표류·표착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일본 규슈지방(九州地方)의 長崎県, 鹿兒島県, 佐賀県, 福岡県, 沖繩縣, 對馬島을 비롯, 주고쿠지방(中国地方)의 山口県, 島根県, 鳥取県の 지방대학 및 지방문서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표류 관련 사료발굴과 연구 실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역사 자체가 지방 분권적인 봉건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표류 연구 성과와 대조해 보았을 때, 그동안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표류 연구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2) 동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부라는 의미로,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남중국해를 포함하고, 서쪽은 아무르 강 남안의 대싱안링(大興安)에서 중국 본토의 서경을 통과하여 베트남 국경 근처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2. 제주 해역의 자연지리적 특성

1) 사해고도(四海孤島) · 화산도(火山島), 제주도

해당 지역을 둘러싼 제반의 자연지리적 구성요소인 지형·기후·풍토 등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더 나아가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의 동인(動因)과 그 기본요소를 구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와 격절·고립된 도서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인들에게 있어 바다는 자연적으로 곧 삶의 일부이자, 삶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의 결과 생성된 火山島로서 토양 대부분이 척박한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는 거의 가 현무암 및 조면암질 용암들로 드넓게 분포하여 심경(深耕)과 김매기가 매우 열악하였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자연지리적 환경이 빚어낸 사면대해풍재(四面大海風災)와 산고심곡수재(山高深谷水災) 및 석다박토한재(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삼재(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때문에 제주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잡이 및 미역채취를 하거나, 특산물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쌀·배·소금 등과 交易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정부에서 요구하는 약재, 감귤, 말, 해산물 등의 각종 진상품을 호송해야 하는 등 자의적·타의적으로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처럼 사해고도(四海孤島)이자 화산도(火山島)라는 제주도가 처한 독특한 지리적 입지조건에 기인하여 제주인들은 취약한 토지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해상교역과 유통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제주인들은 표류라는 일종의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서 대부분은 현무암이 노출된 암석 해안(총 길이 229.7km로, 제주도 전체 해안의 75% 차지)이지만, 장소에 따라 그 형태와 성질을 달리하는 각종 해안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단조로운 해안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각 해안마다 독특한 지형이 발달함을 엿볼 수 있다.³⁾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 제주도의 바다에 대해 ‘산은 험하고 바다는 모질다(山險海惡)’라고 표현하였듯이,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뿔어져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속 低質은 해안선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돌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일명 ‘걸바당’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제주도 걸바당은 바다를 오가는데 크나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바다에 나가거나 또는 귀항하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제주도의 해안선 및 바다 밑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초되거나 난파되는 등 죽음과 표류의 위험요소로부터 항상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도 바다 환경의 위험은 제주를 오가는 조선 내 왕래선(往來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안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제주도를 지나는 이국선(異國船)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주도 바다 곳곳에 숨겨진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부지불식간 일어나게 되는 해난사고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제주도의 암석해안은 파도의 세기 또한 강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1770년 유구로 표류해 갔던 장한철이 쓴 『표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

부산 동래로부터 일본까지의 거리와 전남 해남으로부터 탐라까지의 거리는 그 사이가 비록 수천 리의 큰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바다 바닥에 천만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절로 조선의 뾰뾰한 산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 위의 풍파가 아주 위험한 것은 그 물 흐름이 해저의 산과 골짜기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중략)… 바람이 자고 물결이 조용한 때라도 바다 형세는 필시 넘실거리며 휘돌아 급히 흘러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해저에 있는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파도를 격렬하게 만드는 증거입니다.⁴⁾

이처럼 제주도의 火山島라는 지형적 특성은 걸바당을 조성하였고, 바다 속 곳곳에 숨어 있는 礫[암초]들로 인해 해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부차적으로 제주해역 주변의 물살 및 파도 세기마저 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표류·표도의 주원인이 되었다.

2) 제주도를 둘러싼 바람과 태풍

표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로써 바람과 태풍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풍세(風勢)가 큰 강풍다풍(强風多風)의 섬으로서, 제주도에서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생활 영위와 생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섬인 관계로 주변 해안의 파랑(波浪) 또한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해안에 펼쳐져 있는 암초나 사초 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김상헌의 『남사록』과 이건의 『제주풍토기』,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출항시 필요한 風向 및 해당 바람에 의거한 육지의 표착지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어느 곳으로 표류할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예측·감지하고 있었음을 아래의 A-1~4)을 통해 알 수 있다.

A-1) 본도는 바로 남해 가운데 있어서 왕래하는 배가 북풍을 만나면 들어오고, 동풍을 만나면 나간다.⁵⁾

3)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381쪽.

4)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조.

5) 김상헌, 『남사록』 권2, 10월 12일 병진조.

A-2) 이 섬(제주도)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서북풍이 필요하고, 나오는데는 반드시 동남풍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순풍을 얻을 수 있다면 一片孤帆이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달할 수 있으나, 순풍이 아니면 아무리 빠르고 역센 매나 송골매의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그리고 파도는 동남풍에는 낮고, 서북풍에는 매우 높아진다.⁶⁾

A-3) 대개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은 정남풍을 만나면 조천관 혹은 화북포에서 나서서 화탈(도)와 사서(도) 사이를 지나 보길(도)의 고래머리를 거쳐 넓거요섬 앞길을 지나고 칠포리와 어란에 닿으면 영암이다. 또 이진과 가리포에 닿으면 강진이다. 또한 관머릿도와 완도를 지나면 해남이다. 혹 바람에 비껴 떠내려가기도 한다. …(중략)… 불행하게 그 동쪽 혹은 그 남쪽을 지나면 屋久島와 一(壹)岐島이니, 그곳에 표도하게 되는 것이다.⁷⁾

A-4) 所安島 …(중략)… 제주로 들어가는 자는 해남, 강진, 영암에서 출발하면 모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대양을 건넌다. 이 섬에서 제주로 향하는데, 동서북풍을 만나면 좋고, 동풍을 만나도 가능하다. 만약 정남·정서풍을 만나면 배를 띄울 수 없다. 제주에서 이 섬으로 향하는데, 동남풍이면 기뻐하고, 동풍이 조금 불고 서풍이 불면 더욱 기쁘다. 만일 정남풍이면 파도가 심하여 배 띄우기를 꺼려하며, (정)서풍이면 배를 띄울 수 없다.⁸⁾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 한반도로 출항할 때는 동풍과 동남풍을 이용했고, 한반도에서 제주도로 출항할 때는 북풍과 서북풍을 이용하였으며, 순풍을 만나면 제주도-남

6) 이진, 『제주풍토기』.
7) 이형상, 『남환박물』 지노정조.
8) 김정호, 『대동지지』, 제주해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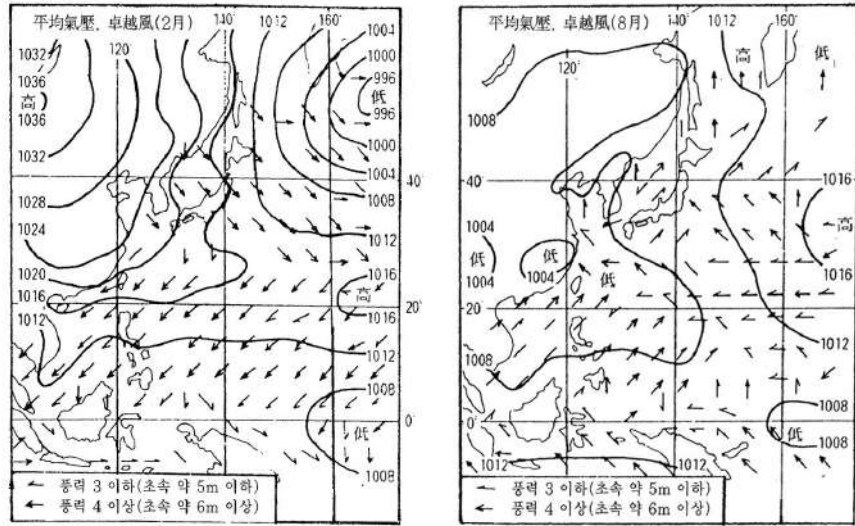
해안 간은 하루면 도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와 외국 선박의 표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계록』 내 98건의 제주인 표류사건 가운데 표환인(漂還人)들을 대상으로 한 문정기(問情記)를 살펴보면, 50건에 이르는 사례에서 그들이 표류 당시 맞닥뜨렸던 바람유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⁹⁾ 표류 요인은 대부분 항해 중 갑작스런 대풍(大風)과 표풍(颱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동풍·동남풍·동북풍·서북풍일 때는 중국으로, 서남풍·서북풍일 때는 일본으로 닿았고, 서북풍·동북풍일 때는 유구로 표류해 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3)의 『남환박물』 내용을 보면, 육지로 향하기 위해 제주도를 출항한 배가 만약 바람에 비껴 동쪽 혹은 남쪽으로 향해 치우칠 경우 일본 야쿠시마[屋久島：九州 鹿兒島縣 남부에 위치] 및 이키시마[壹岐島：九州 長崎縣에 속해 있는 섬]에 표류해 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대륙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양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시베리아기단에 의해 차갑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여름에는 북태평양기단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남동계절풍이 불어온다. 특히 여름에 비해 겨울이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12월과 2월 사이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분다. 위와 같이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 방향과 풍속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계절풍은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일본·유구인들의 생활 및 선박 항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9)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표류시 바람유형

국가 \ 바람유형	동남풍	동북풍	동풍	서북풍	서남풍	미기재	합계(건)
일본	0	0	0	12	8	6	26
유구	0	2	0	1	0	2	5
중국	5	5	1	5	0	3	19
합계(건)	5	7	1	18	8	11	50



〈그림 1〉 2월과 8월의 계절풍 도표

(자료: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119쪽 인용)

이러한 바람의 풍향과 풍속은 시시각각 변화무쌍했으며, 여름철에는 예기치 않게 태풍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위도로 이동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제주도 연근해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변화하여 해상활동 및 선박의 이동에 극심한 피해를 야기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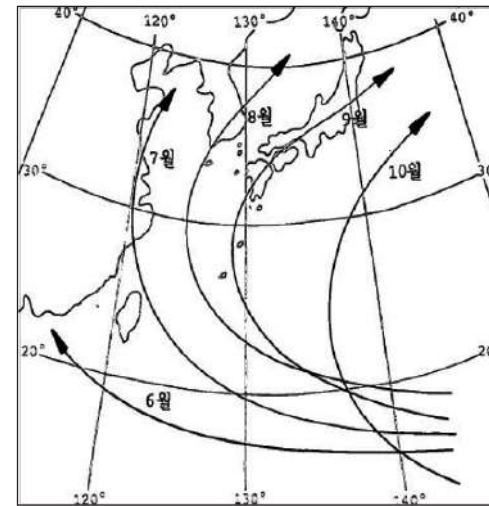
또한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표류인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계록』에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달은 8월로써, 총 98건의 표류사건 중 16건(16.3%)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

10)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96~97쪽

월 14건(14.3%), 1월 10건(10.2%)의 표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¹¹⁾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8월에 제주도를 통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음¹²⁾과 동시에 연중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제주도는 특히, 12월~2월 사이의 겨울철에 한파를 동반한 북서계절풍의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2〉 태풍의 월별 진로

자료: 국가태풍센터 사이트 참고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해지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영등바람’이라 일컬어지는 돌풍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고, 변덕스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다.¹³⁾

이러한 천후(天候)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한 제주인들은 이 시기 배를 띄우지 않았으나, 혹 진상 등의 공무로 불가피하게 배를 출항시켰을 경우 파선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제주도를 경유하던 이국선(異國船)들이 제주도 인근에서 해난사고를 맞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1)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기재
표류건수 (98건)	10건	7건	12건	5건	1건	2건	5건	16건	11건	6건	6건	14건	3건

12) [표] 월별 태풍 발생현황(1904~2017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태풍건수 (350건)	0건	0건	0건	0건	2건	23건	107건	125건	83건	10건	0건	0건

(자료: 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TYPHOON/statistics/statistics_02_1.jsp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

13) 송성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261쪽.

3)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와 조류

그 밖에 해난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지리적 주요 요인으로 제주도 주변 해역에 복잡하게 흐르는 ‘해류’와 ‘조류’를 들 수 있다. 해류란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유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며, 조류란 조석과 수반되어 일어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흐름을 일컫는다. 이러한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 및 조류의 특성에 대해 『남사록』과 『남환박물』에는 B-1~2)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또한 B-3) 『해외문견록』 속 유구로 표류하였다 생환된 김여휘의 표류담에는 표류 도중 맞닥뜨린 ‘흑해(黑海)’ 이른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B-1) 표류기에 의하면 “지나다닌 창파가 비록 한 바다 같지마는 수성(水性) 수색(水色)이 곳을 따라 다름이 있다. 제주의 바다는 빛이 매우 푸르고 성질은 폭급(暴急)하여 비록 바람이 적어도 물결 위에 물결이 넘쳐흘러 서로 부딪치고 빙빙 돌며 번득거리고 출렁댐이 이보다 더함이 없다. 다른 바다는 풍력이 비록 세더라도 물결은 매우 높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⁴⁾

B-2) 바다의 형세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아서 들기가 순하고 나기가 어렵다. …(중략)… 동해는 비록 조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곳[제주도]은 날마다 대략 두 번을 들고 나고 한다. 다만 신속함은 서해에 미치지 못하고, 물이 불기가 수장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건대 모든 물이 돌아나가는 처지가 동남쪽이 부족한 까닭에, 승강(昇降)하는 압력이 육지와 달라서 출입하는데 사납지 않은가 한다. 조수가 마도(馬島) 위와 아래로부터 나와 청산도와 추자도 앞뒤를 경유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경으로 들어간다. 화탈섬과

안과 밖을 경유하여 들어가는 것은 산동성의 청주(靑州)와 제주(濟州) 지경으로 흘러간다. 이곳은 대개 양쪽 조수가 서로 마주치는 곳이므로, 물결이 매우 거칠고 높은 물결이 일어 보통과 다르다. 이국선(異國船)이 표도하면 모두 엎어져 침몰한다. 만약 충분히 순풍을 여러 날 얻지 못하면 이 바다를 떠날 수 없어서 왔다갔다 소용돌이 사이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 예전에 왜선이 중국으로 향할 때 바람을 잃거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는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혹 바람을 따라 도래하였다면 번번이 모두 기울어져 패하게 되니 이를 北海의 바닷길이라 한다.¹⁵⁾

B-3) 강희 2년 癸卯年(1663년) 해남현 선비 김여휘(金麗輝) 등 28인이 유구에 표류하였다가 일본을 통해 돌아왔다. …(중략)… 임인년(1662년) 9월, 상인 이가질금(李加叱金)의 배를 얻어 제주인 남린(南麟) 등 모두 32명이 함께 타고 24일 아침에 별도포를 출발했다. 그러나 중간에 서북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표류하여 떠다니다 옛새가 지나 흑해(黑海)에 이르렀다. 물의 색깔이 묵(墨)과 같아 손으로 떠보니 보통 물과 다를 것이 없었다. 시험 삼아 흰 물건을 적셔보았지만 색이 물들지는 않았다. 또 나흘쯤 지나자 바다의 빛깔이 백색으로 돌아왔다.¹⁶⁾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의 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타의 바다보다도 험악한 조수의 움직임이 나타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해양환경 및 항해조건에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맺는 해류로, 흑조(黑潮)라 불리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태평양 서부 필리핀 북부에서 시작하는 이 해류는 북동진(北東進)하면서 제주도 동남쪽 외해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쓰시

14) 김상헌, 『남사록』 권4, 정월 28일 신유조.

15) 이형상, 『남환박물』, 지해정조.

16) 송정규, 『해외문견록』 중 「기유구표환인어」.

마 쪽으로 가는 대마난류와 황해로 들어가는 황해난류로 나뉘지게 된다.

이렇듯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 지점에 위치함과 동시에 쓰시마 해협에서 서쪽으로 꺾이어 역전된 순환해류가 황해로 흐르므로 제주인들이 탄 배가 북풍을 만났을 경우 이 회류(回流)를 타고 중국 쪽으로 흘러가거나,¹⁷⁾ 중국으로 항해하던 일본선박은 제주에 표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단 남방으로 흘러들어간 해류가 다시 북상함에 따라 일본 등지에도 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류는 표류 상황을 직접 야기하는 경우는 적지만, 표류가 발생한 후에는 오히려 자동동력을 상실한 선박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¹⁸⁾ 후술하겠지만, 몇몇의 표류인들이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든지, “광풍을 만나 키[舵]를 잃고 돛대[또는 치목(鷗木)]가 부러져 성난 파도가 험한 물결이 몰아친 바가 되어 떠내려가 문득 하나의 섬에 이르렀다” 등의 생환 후 문정과 정에서 들려준 표류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류의 역할을 인지해 볼 수 있겠다.

제주도와 육지와의 출입항 및 그 해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육지를 왕래할 때 주로 화북포(별도포)와 조천포를 이용하였고, 육지는 남해안의 영암 이진포(梨津浦), 강진 남당포(南塘浦), 해남의 관두포(館頭浦)가 주요 출입항으로 이용되었다.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할 때에는 그 사이에 위치한 추자도가 중계 지점으로서 순풍을 기다리는 일시적 기항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고지도 및 문헌에는 후풍도(候風島)라 표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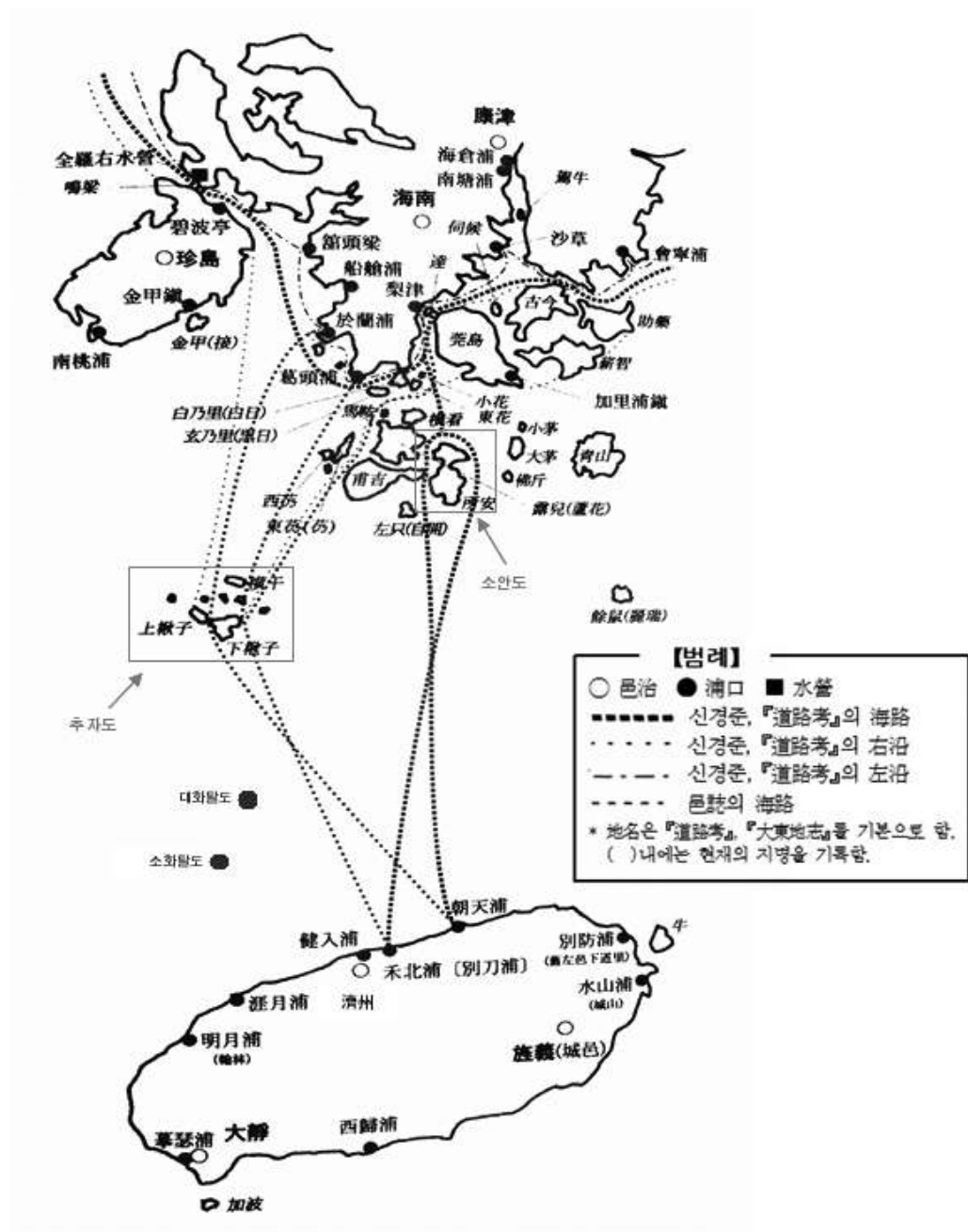
한편 18세기 후반이 되면 육지와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소안도를 경유한 해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안도(所安島)는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해남·강진·영암에서 배를 띄워 모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리다 큰 바다를 건넌다.] …(중략)… 또 180리쯤 가서 사서도(斜鼠島)의 서쪽을 경유하면 서쪽으로 추자도가 아주 멀리 보인다.[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동풍이 불순하면 이 섬에서 배를 대고 머문다. 김청음(김상헌)의 『해사록(海槎錄)』에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에 가는 배들이 더욱 곤란할 것이다. 표몰하는 근심을 면하는 것은 이 섬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지지』를 살펴보면, …(중략)… 예전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배가 출발하는 곳이 비록 달라도 모두 추자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려 큰 바다를 건넌다. 지금은 모두 소안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름길이고 또 추자도에서 다시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안도에서 제주로 향하는 해로는 아주 멀기 때문에 중간에 바람을 놓쳐버리면 쉽게 전복된다. 추자도는 제주와 불과 300여 리이므로 당연히 추자도가 정로(定路)이다. 그래서 『고려사』 지지에는 제주로 가는 해로에서 모두 추자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옛 사람의 대처보다 못한 부분이다.¹⁹⁾

17) 고창석, 「제4장 대외교류와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 5-제주해역, 해양수산부, 2002, 135쪽.

18) 윤명철, 「漂流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탐구」, 『東아시아古代學』 제18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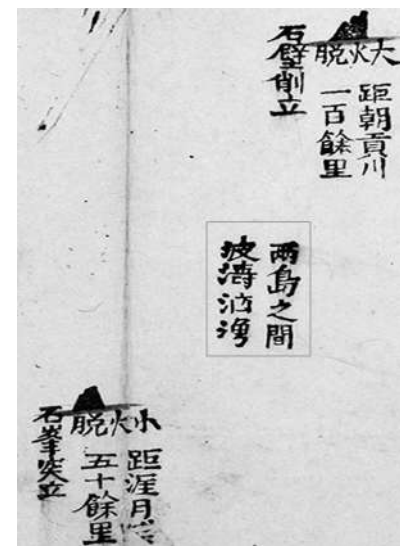
19) 신경준, 『도로고』 권4, 「해로」 중 제주해로.



〈그림 3〉 제주도↔육지본토와의 해로

자료: 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學報』第199・200輯, 朝鮮學會, 2006, 176쪽

위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제주도와 육지를 왕래할 때에는 추자도에서 후풍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보다 소안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안도와 제주도 사이는 거리가 멀어 바람에 의해 조난되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이렇듯 이후 소안도는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要所였지만, 추자도를 경유한 선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①소안도 경유의 해로, ②추자도 경유의 해로, ③순풍시 어디에도 기항하지 않고 육지-제주도를 왕래하는 해로가 병존해 가게 되었다.²⁰⁾



〈그림 4〉『대동여지도』속 대·소화탈도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는 대화탈도(大化奪島 혹은 大火脫島)와 소화탈도(小化奪島 혹은 小火脫島)가 자리하고 있다. 이때 『고려사』²¹⁾ 뿐만 아니라, 이원진의 『탐라지』 산천조(山川條) 및 『남환박물』 지도조(誌島條), 『탐라지초본』 도서조(島嶼條) 등에는 “이 두 섬 사이에는 (두 해류가 교류하여)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서 배들이 많이 표류하고 침몰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 받는다.”라고 쓰여 있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²²⁾에도 “양도지간 파도홍용(兩島之間 波濤汹涌)”이라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체류기간: 1679년 12월 7일~1680년 4월 4일)를 다녀간 이중의 『남사일록』 및 허목의 『미수기언』,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대·소화탈도의 물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해 놓고 있다.

20)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學報』第199・200輯, 朝鮮學會, 2006, 177~178쪽.

21) 『고려사』권57, 志 卷第十一, 地理 二,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22) 김정호, 『대동여지도』(규장각 소장 奎10333-v.1-22, 奎12380-v.1-22)

C-1) (1679년) 12월 초7일 무진. …(중략)… 낮에 사서도를 지났는데, 여기가 바로 제주의 큰 바다이다. 여기서부터 바다는 더욱 넓고 물결도 더욱 높아 솟았다 가라앉았다 하는 풍파 속에 기둥의 새끼줄을 잡은 사람들이 모두 율타리를 두드려 짐승을 모는 듯한 외치는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이곳이 소위 수종(水宗)일 듯 했다. …(중략)… 동쪽에는 동여서도가 있고, 서쪽에는 대소화탈도가 있다. 검은 구름이 서쪽바다에 일어나더니 눈을 날리는 바람이 어지러워지자 배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멀미를 하여 정신없이 쓰러졌다.

(1680년) 4월 초4일 계해. …(중략)… 낮 12시에 대소화탈을 지나는데 물결이 높아지고 배가 흔들렸다.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멀미를 앓아 정신없이 쓰러지는데 …(중략)… 뱃사람들은 합창하고 열을 지어 “관세음보살” 소리를 입에서 그치지 않아 그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저물어 갈 때 추자도를 지났다. 두 섬 사이의 수세(水勢)가 자못 급했다. 뱃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이 화탈(火脫)을 지나면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C-2) 탁라·화탈·여서(毛羅·火脫·餘鼠) 사이에는 바다가 깊고 검푸르며 매서운 바람과 높은 파도가 많다. 매양 봄과 여름에 남쪽 수종(水宗) 밖을 바라보면 높은 돛을 단 큰 선박들이 무수히 지나간다. 여기는 흑치(黑齒)의 오랑캐들이 중국과 통상하는 길목이며, 또한 해외 여러 만이(蠻夷)들의 물화가 유통되는 곳이다. 서남쪽으로는 백해(白海)와 마주하고 있는데 최부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동풍을 타고 7일 만에 백해에 도착하였다고 한다.²³⁾

C-3) 사공(李昌成)이 말하기를, “어릴 때 배를 타서 탐라의 바다를 지난 적이 많았습니다. 탐라로부터 배를 출발시켜 북쪽 육지를 향하게 되는데, 배가 바다 반쯤 오면 서쪽으로 대 화탈도와 소화탈도를 가리키게 되고, 동쪽으로 여서도와 청산도를 볼 수 있는데, 바람이 자고 물결이 조용한 때라도 바다 형세는 필시 넘실거리며 휘돌아 급히 흘러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게 여기었습니다. …(후략)…”²⁴⁾

이렇듯 관찬사료 및 제주도 관련 읍지를 비롯한 제주도를 다녀간 관리의 경험담, 표류 제주인의 표해록 등을 보면, 대화탈도~소화탈도 사이와 대·소화탈도~여서도에 이르는 일대는 서로 다른 두 해류가 교류함에 따라 海況이 일정치 않고 수세(水勢)가 매우 험하여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을 오가는 이국인(異國人)들이 표몰(漂沒)하는 재난을 면하기 힘든, 위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화산회토로 된 산고원야(山高原野)의 풍다도(風多島)인 제주도를 에워싼 자연지리적 환경 요소들은 제주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곧, 제주인들이 농토를 일구는 정주적(定住的) 삶을 살기보단 바다를 주요 생계영역으로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결국 우발적이고 예측불허의 해난사고에 노출되기 쉬웠다.

요컨대 전근대 시기 제주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제국(諸國)들의 해상교류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해양환경을 이용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일정한 항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바다 주변의 독특한 해저지형·바람[계절풍]·해류·조류 등은 이러한 해양활동의 고정적 틀을 변화시키는 변수(變數)로 작동하여 표류·표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23) 허목, 『미수기언』 記言 第48卷 續集, 「四方」 2, 耽羅誌. * 이와 비슷한 내용이 김상헌, 『남사록』 권 1, 9월 22일 병진조에도 기재되어 있다.

24)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조.

3. 조선시대 제주도를 둘러싼 표류·표도 발생 양상

1) 제주도 표류·표도 발생 분석 사료

동아시아의 바다 즉, 해양이라는 공간적 범주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던 이국(異國)으로의 ‘표류(漂流)’ 혹은 ‘표도(漂到)’라는 일련의 해난사고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 문화접촉 및 소통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주변적 공간 가운데에서도 해상교류의 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제주도’라는 지역을 중심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그 특정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이국에 표류해 간 제주인’ 및 ‘제주도로 표도(漂到)해 온 이국인’이 겪었던 낯선 이문화 체험과 교류실태를 고찰해 나감으로써 이들의 시선을 통한 시기별 동아시아 대외교류사를 되짚어 나가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세계 속 가운데 ‘제주도’라는 점(點)적인 변두리 지역으로부터 암암리에 해당 영역 밖으로 이탈한 ‘표류 제주인’과 이와 반대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던 ‘표도 이국인’을 통해 타 국가의 또 다른 점적인 주변지역과 어떠한 방식으로 선(線)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추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들어 낸 선의 상호교류는 ‘표류·표도인의 송환’이라는 국가단위의 면(面)과 면의 외교관계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렇듯 제주도 표류·표도인을 둘러싼 점·선·면의 연결과정 및 그 속에서 빚어지는 동아시아 세계 속 접촉양상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바다에 대해 양면적인 모습을 전개해 나가는 조선시대를 시간적 범주로 삼았다. 즉, 이 당시 바다는 조선왕조의 폐쇄적인 해양 정책으로 말미암아 닫힌 세계로 간주되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체제적 통제장치와 상충되게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 표류·표도’를 주요 키워드로 상정, 국내외에 산재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의 ‘표류(표도) 및

송환경과’에 대해 기록한 조선시대 관·사찬 사료 및 각종 표해록(漂海錄) 등의 상호 비교를 통해 기록상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문헌분석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지방의 관찬사료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또 편년사료와 등록류(謄錄類) 및 외교자료집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편년사료로서는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이 있으며, 등록류²⁵⁾로는 『표인영래등록』 및 『제주계록』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교자료집으로써 『통문관지』, 『동문회고』, 『사대고례』, 『변례집요』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제주도 관계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류를 들 수 있는데, 정의현감 김성구의 『남천록』,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 제주목사 송정규의 『해외견문록』, 제주목사 정필녕의 자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제주목사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제주 석학 김석익의 『탐라기년』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그 외 개인 문집류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표류 제주인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이국 체험을 기록한 『표해록』²⁶⁾을 비롯, 조선시대 학자들의 개인 저술서로 『패관잡기』, 『연려실기술』, 『여와집』, 『연암집』, 『석재고』, 『주영편』, 『심전고』, 『연원직지』, 『연경재전집』,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제주인들의 이국접촉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외 일본측의 『통항일람』 및 유구측 『역대보안』, 중국측 『명·청실록』, 『당안』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대기(年代記)로서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을 비롯, 『표인영래등록』 및 『제주

25) 조선시대 관아에서는 그 집무사항의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謄寫 수록한 책자를 작성하여 그 건의 ‘謄錄’이라고 칭했다(손승철·김강일, 「朝鮮時代 韓日關係史料解題」,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319쪽).

26) 제주(출항포함) 표류인 자신이 직접 쓴 표해록에는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이방익의 『표해록(가)』, 최두찬의 『승사록』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개인(제3자) 문집류에 표류 제주인·제주 표도 이국인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계록』 등의 사료는 조선시대 제주도 표류·표도인의 실태를 검출하는데 유용함은 물론, 그 속에 담긴 문정(問情)기록은 이들이 출항에서 송환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목사 등 제주도 관계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들은 상기의 관찬사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또 다른 표류·표도 사건 및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규명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해록을 비롯한 개인 문집 등에 기록된 표류·표도인들의 정보는 표류-송환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표 1〉 시기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실태 분석에 활용한 사료목록

순번	사료명	사 료 내 용	비고
1	『조선왕조실록』	1392년(태조)~1863년(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포함시킴.	
2	『비변사등록』	조선중기 이래 국가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매일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써, 현재 1617년(광해군 9)~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 기록이 남아있음.	표류·표도인 問情記 수록
3	『승정원일기』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로, 현재 1623년(인조 1)~1910년(융희 4)까지 기록이 남아있음.	
4	『일성록』	1760년(영조 36)~1910년까지 151년간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임.	
5	『표인영래등록』	1641년(인조 19)~1751년(영조 27)까지 동래부, 부산진, 경상좌수영(또는 경상감영)이 보고한 것을 전객사에서 편성한 것임.	조선 표류인의 송환내용과 외교의례 수록
6	『동문관지』	사역원 역관 김지남(1654~1718)과 김경문 부자가 편찬한 對淸 및 對日 외교 통상관계를 수록한 외교 규례집으로, 이후 증보되어 1636년(인조 14)~1888(고종 25)의 내용이 수록됨.	제9~12권의 「紀年」 「기년속편」
7	『동문휘고』	조선후기의 對淸 및 對日 관계의 교섭 문서를 집대성한 책으로, 1636(인조 14)~1881(고종 18)의 내용이 수록됨.	「漂民」條

순번	사료명	사 료 내 용	비고
8	『변례집요』	1598년(선조 31)~1841년(헌종 7) 조선과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기록한 예조 典客司에서 엮은 책임.	권3의 漂差·附漂民·順付·刷還 내용 수록
9	『연려실기술』	조선후기 실학자 이금익(1736~1806)이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내용을 찬술한 야사총서임.	제17권 「邊圉典故」 荒唐船
10	『지영록』	이익태가 제주목사(1694.7월~1696.9월)를 제수 받고 부임하기까지의 과정,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까지의 행적, 그리고 재임 기간 중의 업무와 제주 관련 역사를 일기체로 기록한 문집임.	14건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1	『해외문견록』	송정규가 제주목사(1704.10월~1706.9월) 재임시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표류·표도 사건을 정리한 책임.	16건 중 10건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2	『탐라문견록』	173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녕을 따라 제주도로 건너온 정운경이 이국으로 표류되었다 생환되어 온 제주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술한 책임.	14건 중 이국표류(13건) 국내표류(1건)
13	『증보탐라지』	윤시동이 제주목사(1765.8월~1766.6월) 재임시절 이원진 목사가 1653년 편찬한 『탐라지』를 토대로 제주의 역사·지리·풍속 등을 종합한 읍지임. 권7과 권9에 제주도에 표도해 온 이국인에 관한 문정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제7권 「古今事蹟」 제9권 「漂船接送 異國問情」
14	『제주계록』	1846년(헌종 12)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제주목에서 중앙조정으로 보고했던 계문으로, 제주지역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관한 보고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표류·표도 사항 수록
15	『탐라기년』	제주 석학인 심재 김석익이 1918년에 편찬한 제주통사로, 고려 태조 21년(936)~1906년(광무 10)까지를 4권으로 나눠 편년체로 수록하고, 그 이전은 外書로 기록함.	

2) 조선시대 제주인의 이국 표류 실태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표류 발생 365건 가운데 이국으로 표류해 간 287건의 사례를 표착 국가별로 살펴봄은 물론, 각각의 이국으로 표류할 당시 당면하였던 상황들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조선시대 제주인의 이국 표류 실태

구분 \ 표착국가	일본	유구	중국	대만	안남	조선/기타	합계
표류 발생건수	207건 (56.7%)	19건 (5.2%)	53건 (14.5%)	6건 (1.6%)	2건 (0.6%)	78건 (21.4%)	365건 (100%)
표류 발생규모	①2,658명	240명	754명	93명	24명	658명	4,427명
	②207명	45명	48명	2명	3명	455명	760명
	③11건	0건	5건	0건	1건	24건	41건
주요 표착지	五島>對馬>肥前>薩摩	大島>久米島, 德之島, 虎山島, 久米島 등	浙江>福建·江蘇>廣東·遼寧>山東	彰化縣·澎湖島·外島	會安府	가파도, 모슬포, 우도, 하도리, 조천포 앞바다 + 강진, 나주, 영암	-
표류 발생월	11·12월>2월>9월	9·12월>1·2·11월	8월>2·9월>1월	1·8월>2·9월	9월	8월>3월>1·2·10월	-
표류시 바람	서북풍>서남풍	동북풍>서북풍	동남풍·동북풍·서북풍>동풍	동북풍	-	-	-
출신지 휘칭	126건 (60.9%)	11건 (57.9%)	23건 (43.4%)	4건 (66.7%)	1건 (50%)	-	165건 (45.2%)

주1) ①은 표류인수, ②는 사망자수, ③은 미기재 건수임.

주2) 가운데 점(·)은 그 숫자가 동일한 것임.

365건의 표류 가운데 그 인수(人數)가 미기재 된 41건의 표류 사건을 제외한 표류 제주인 수를 산출한 결과, 총 4,427명의 제주 사람들이 해난사고와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60명은 표류 도중 불의의 사고[익사·병사·실종·사망] 등으로 죽음을 면치 못해 생환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제주바다에서 해상활동을 전개한 제주인 4,427명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3,667명은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표류, 그곳 주민들로부터 구조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287건의 이국으로 표류 간 사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표류해 간 경우가 207건(7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53건(18.5%), 유구 19건(6.6%), 대만 6건(2.1%), 안남 2건(0.7%) 순으로 확인된다. 해당 수치로만 보면, 조선시대 제주 표류인은 일본으로 많이 표류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해당 시기 제주 표류인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양이 타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 많이 잔존해 있음과 동시에 필자의 언어적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²⁷⁾가 있겠다.

단편적으로 잔존해 있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의거한 통계이지만, 80%를 웃도는 높은 생존율을 본다면 전근대 시기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호의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의 ‘표류’라는 사건은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하지만, 287건 가운데 8월~9월 사이에 56건(19.5%)을 비롯, 11월과 2월을 전후한 시기에 128건(44.6%)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표류 제주인의 발생 배경 가운데 자연지리적 배경으로 바람과 해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 바와 같다. 즉, 제주도는 9월~11월이 되면서 겨울철 북서의 영향을 받아 북풍 계열의 바람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12월에서 2월에 이르면 강력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되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의 연안류가 강하게 변해 확장 범위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적 섭리와 제주인의 표류 발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3) 조선시대 이국인의 제주 표도 실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서남단의 남해와 동중국해 상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27) 제주 표류인 발생건수는 한국을 비롯한 표착지역(국가)에서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발굴해 낼 수 있는가와 이를 해석(분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통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규슈지방,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 유구제도(琉球諸島)를 비롯한 대만과 필리핀 제도, 북쪽으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중간적 위치에 입지해 있음에 따라 해상 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변지역과 인접 국가를 잇는 해양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렇듯 제주도가 황해와 남해,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접점으로써 남중국·한반도·일본열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중핵에 위치하여, 오랜 옛날부터 각 해역세계를 이어주는 경유지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15~19세기 제주도의 지리적 공간 너머로 동아시아 제국(諸國)들은 중국 중심의 책봉과 조공 혹은 교린이라는 외연적 틀 속에서 공적 항로를 통한 대외교섭을 실시한 반면, 그 이면으로는 중국·일본·유구를 비롯 동남아시아 각국 해양집단을 주도로 이루어진 사적 항로에 의한 대외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15~17세기 아시아 무대로 눈을 돌려 중계무역을 통해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한 서양세력들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이 시기에 있어 동아시아 해역에 횡행했던 왜구창궐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일반 백성들의 자의적 해외도항을 엄금하고, 해외로부터의 내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해금 및 공도정책의 실시로 해상을 통한 활동 및 교류가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기 이와 같은 동아시아 해역의 제약적 여건 속에서도 각국 간의 해상무역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항해도중 불의의 해난사고와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 네트워크의 중간적 지점에 자리하였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의 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타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국인들이 표류해 오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에 제주도로 표도해 온 각 국가별 이국인들의 표도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 조선시대 이국인의 제주 표도 실태

구분 \ 표도국가	일본	유구	중국	서양	呂宋[필리핀]	합계
표류 발생건수	43건	19건	68건	19건	1건	150건
	(28.7%)	(12.7%)	(45.3%)	(12.7%)	(0.6%)	(100%)
표류 발생규모	①1,065명	293명	2,592명	-	5명	3,955명
	② 137명	139명	329명	-	2명	607명
	③ 6건	1건	5건	-	-	12건
주요 출신지(국)	薩摩>對馬>平戶島	那霸>大島	江蘇>福建>山東>浙江>廣東>遼寧	네덜란드·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	-
주요 표착지	정의현>대정현>제주목	대정현>제주목>정의현	대정현>정의현>제주목	대정현>정의현·제주목	대정현	-
표도 발생월	7월>8월>6월	7·8월>5·6월	1·10월>2월>11월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남	8월	-
출항목적	상매>공물운송>출어·운송>해적행위	상매>공물운송>운송	상매>통상>운송>출어	19건 중 미상 3건외 순수漂船 8건, 의도적 접근 8건	통상	-

주1) ①은 표류인수, ②는 사망자수, ③은 미기재 건수임.

주2) 가운데 점(·)은 그 숫자가 동일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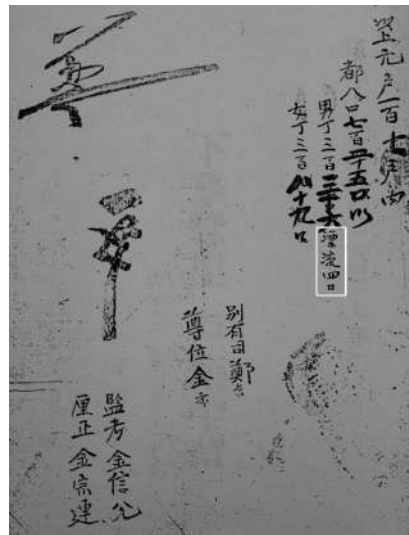
한편 17세기인 1627(8)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일행에 이은 1653년 하멜 일행²⁸⁾

28) 『효종실록』 효종 4년(1653) 8월 6일 기사에서 제주목사 이원진의 馳啓하기를, 하멜일행의 표선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다(敗於州南 關於海岸)’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후 이익태의 『지영록』 중 「西洋國漂人記」에는 하멜 일행의 표착지가 ‘대정현 지방 차귀진 관할의 대야수 연변(大靜縣地方 遮歸鎮下 大也水沿邊)’이라 기재해 놓고 있음에 따라 기존 ‘대정현 바닷가’라고만 비정해 왔던 설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大也水沿邊’의 명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산리 한장동과 신도2리 사이에 해변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신도 해안을 중심으로 좌우연안까지 폭넓게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밑 해안가로 보는 입장, 영락리 바닷가이거나 영락리와 무릉1리 경계 일대의 바닷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등이 있다. 또한, 하멜일행의 표착지가 ‘제주도’가 아닌 ‘진도’로 기록된 사료들도 보인다(『通文館志』 권9, 顯宗大王七年 丙午條;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24, 「兵志備倭論」에는 진도에 정박 후 다시 제주에 정박하였다고 기재됨; 윤행임, 『碩齋稿』 권9, 「海東外史」 정동유, 『晝永編』)

이 예기치 않은 제주도로의 표도는 기존에 동아시아의 중화질서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있어 서양문물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동시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하멜이 작성한 『하멜표류기』(1668년)를 매개로 조선과 제주도는 더 이상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섬이 아님을 서양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8세기 후반부터 제주도로 출몰해 온 홍모국(紅毛國)[阿蘭陀國, 네덜란드]을 비롯한, 영吉利국(英吉利國)[영국] 및 대법란서국(大法蘭西國)[프랑스], 아라사국(俄羅沙國)[러시아]의 선박들을 보면 뜻하지 않은 해난사고로 불시착된 표도 선박뿐만 아니라, 해안측량 및 정탐, 통상 등 계획적이며, 의도성을 지닌 선박들도 혼재되어 등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당초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난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표착하게 된 해양 난민(難民)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이라는 본격적인 서세동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4) 『제주 호적중초』에 나타난 제주인의 표류 기록



〈그림 5〉
1834년 『하모슬리 호적중초』 속
‘漂流四口’ 기재의 예

‘호적중초’에는 호주(戶主)의 직역, 성명, 나이, 생년, 본관,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을 비롯, 그의 처(妻)의 성씨, 나이, 생년, 본관, 사조의 직역과 성명을 밝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손주는 물론 화첩(花妾), 친척(親戚), 노비(奴婢), 고공(雇工), 차입자(借入者)의 인적사항 및 장애인인 경우 이들이 지녔던 病名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출생, 사망 등과 함께 차입(借入)·이거(移居)[移住]·(출륙·표류)도망·표류 등 마을의 인구변화에 대한 사항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5〉는 도광 14년(1834) 『하모슬리 호적중초』 말미에 기재된 사항이다. 여기에는 마을 元

戶[107戶], 人口[725口]와 남녀인구의 통계(男丁 336口, 女丁 389口, 漂流 4口)를 비롯, 호적작성에 참여한 리정(厘正)과 감고(監考), 준위(尊位)와 별유사(別有司)의 성명·서명과 함께 대정현감의 확인 수결(手決)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정(男丁)의 인구수를 파악한 말미에 기재된 ‘표류4구(漂流四口)’란 부분이다. 이는 해당 식년에 표류한 남정의 숫자는 4명이라는 뜻으로, 남녀인구의 총합은 표류인 4명을 제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듯 제주도의 호적중초 내에는 표류인 발생 상황 또한 면밀히 기재해 놓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4. 제주 해양 문화유산 기록화 방안

1) 섬 문화유산 조사 필요성 및 기관 현황

섬은 사망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로,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바다와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섬은 각 지역마다 고유하고도 독특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반면 육지에 비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외부와의 접근성이 자유롭지 못하다. 즉 섬의 문화는 폐쇄성과 독자성이 드러나며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자체의 순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에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00여 개의 섬이 있고, 유인도는 470여 개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15,000여개), 필리핀(7,100여개), 일본(6,800여개)에 이어 세계에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섬이 지닌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그저 접근하지 쉽지 않은 곳, 불편한 곳, 문화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만 취급해 왔다. 즉, 섬의 귀중한 자원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외와 천대, 무관심과 방치의 대상이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공도정책, 해금정책 등 바다를 멀리했던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섬은 고대부터 한중일 선박이 왕래하던 주요 뱃길로서, 물

류이동의 중심지이자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²⁹⁾

한편 현재의 섬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와 해저터널 등의 기반시설과 해양교통의 발달로 육지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지만, 섬이 지닌 정체성·특수성이 점차 위협·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섬 주민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는 섬의 무인화와 전통문화유산의 훼손·멸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 해수면 상승, 어족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현 도서관문화연구원)에 의해 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바다의 날 제정, 2006년 바다헌장 제정 등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2000년대 들어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강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해양종합박물관이 <표 4>와 같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해양 주제 국립 전시시설은 동·서·남해안 및 수도권 등 각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기능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처와는 달리 바다라는 공간을 업무영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박물관과 과학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현 국립해양유산연구소)³⁰⁾, 국립민속박물관³¹⁾, 국립해양박물관³²⁾ 등 국립기관을 주축으로 섬 지역의 해양문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9) 김애경, 「섬 문화유산 현지조사의 가치와 활용」, 『해양문화재』 제16호, 2022.

30)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물연구과 신설과 함께 2007년부터 본격적인 섬 문화유산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1~2개의 섬을 선정, 고고·역사·민속·생업·생애·민가·선박 등 분야별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1)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어촌민속조사를 통해 제주도, 연평도, 가덕도 등 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32)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조사와 남해안 어업기술문화 조사 과정에서 섬을 다루고 있다.

<표 4> 해양을 주제로 한 국립 전시·연구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개관일	소재지	주제
1	연구 시설	도서관문화연구원	목포대	1983.3.	전남 목포시	도서·해양문화 연구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가유산청	2009.	전남 목포시	해양유산 조사 및 연구
3		한국섬진흥원	행안부 출연연구기관	2021.9.	전남 목포시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
1	전시 시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국가유산청	1994.12.	전남 목포시	출수유물을 통한 해양교류
2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³³⁾	2012.7.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사, 문화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2015.4.	충남 서천군	해양생태계 및 생물
4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국가유산청	2019.11.	충남 태안군	서해안 출수 유물과 해양교류
5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2020.7.	경북 울진군	해양 관련 과학지식
6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2024.12.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교류사 및 문화, 항만사
7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2025 (예정)	전남 여수시	해양 기상 관련
8		미래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2025 (예정)	충북 청주시	아쿠아리움, 미래해양문화

33)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세계 10대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의 해양문화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연구, 전시를 통해 해양미래 비전 제시
- 해양문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의식 제고 및 해양문화진흥 확산 도모

이렇게 건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 뒤, 해양수산부는 이들 기관을 활용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19일 시행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념적으로 사용되던 해양문화를 규정하고, 해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정의하여 해양문화를 육성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섬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방법

(1) 섬 문화유산 조사 현황

섬 문화유산 조사는 섬 해양문화의 원형을 찾고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자들이 해양역사, 해양문화사, 해양민속, 고고역사, 생애사, 전통선박, 전통민가 등 분야별로 심도 있게 조사한 종합학술조사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993~2002년까지 낙월도, 가거도, 제주도, 강화도, 관매도, 추자도, 태도, 울릉도 지역에서 실시된 ‘전통선박과 어로민속조사’, ‘항·포구조사’가 출발점이 되었다.

다년간의 섬 조사 결과를 통해 작은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섬문화유산조사의 본격적인 조사는 2007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조사이후부터이며, 2015년(전남 신안군 재원도)부터는 역사적 고증과 활용을 위한 다각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때부터 고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주요 기착지나 거점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실�크로드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섬 조사는 공도화되어가는 작은 섬에 대한 해양유산의 기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2007~2018년 섬 조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섬의 무인화·고령화와 연륙·연교도·해저터널 설치에 따른 섬의 정체성·고유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우선 육지와 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워 고유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무인도가 될 우려가 있는 리 단위 작은 섬을 대상으로 고고·역사·민속·지명·환경·고건축·고선박 등 분야별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섬 주민들이 전하는 구술과 전통놀이 등 민속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섬에서 행해지는 생업활동을 통해 섬 사람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기록할 수 있었다.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생업활동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어로 행태, 어로 활동과 관행 등의 조사는 섬의 원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2018년 이후 섬 조사는 역사 문헌, 즉 서공의 『고려도경』을 기반으로 해당 문헌에

기록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해상활동의 주요 거점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양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섬에는 관방유적, 조운유적, 국제교류 관련 유적 등 다양한 해양유적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이유로 상호간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교류와 분쟁을 반복하였다. 이에 바다에 둘러싸인 한반도 서쪽과 남쪽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었다. 섬유산조사에서 관방유적(수군진, 봉수, 산성)과 조운시설은 주요 조사 대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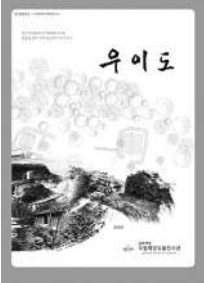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한 섬 조사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섬 조사 현황

연도	조사명	조사지역	비고
1993	제주 떼배 1차 조사	제주도	전통선박조사
	전라남북도 일대 해안지역조사	군산, 부안, 영광, 함평	항·포구조사
	전남 남해안지역 조사	전남 완도·강진·장흥·보성·여천·여수	항·포구조사
1995	영광군 낙월면 명당구리배 조사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전통선박조사
1996~97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배) 조사	신안 흑산면 가거도	전통선박조사
1996	제주 떼배 2차 조사	제주도	전통선박조사
1998	강화군 선박 및 어로도구조사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경남 통영 선박 및 어로도구 조사	경남 통영시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1999	강원도 정동진 토막배 조사	강원 정동진	전통선박조사
	전남 영산강지역 포구/나루터 조사	전남 영산강	포구·나루터 조사
2000	전남 진도군 관매도 해양문화조사	관매도	전통선박과 어로도구조사
2001	제주 추자도 해양문화조사	추자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해양문화조사	태도	
2002	경북 울릉도 전통문화조사	울릉도	

연도	조사명	조사지역	비고
2007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만재도	섬 종합학술조사 ³⁴⁾
2008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우이도	
2009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안마도	
2010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안좌면 사치도	수치도·사치도	
2011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	옥도	
2012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병풍도	
2013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여서도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대도·두미도	상·하노대도, 두미도	
2014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다물도	
2015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재원도	
2016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박지도	반월도·박지도	
2017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	
2018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도	고이도	
2019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	위도	
20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원산도	
2021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덕적도·소야도·문갑도	
20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거문도	
2023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매도	

34) ① 사회·지리적 배경(사회·자연환경, 지형경관과 자연생태·식생 등)
 ② 고고·역사 유적과 기록(입도조, 뱃길의 변천)
 ③ 생업 활동(어업·농업 등)과 생애사
 ④ 전통 생활문화와 신앙(세시풍속, 출산의례, 가신 신앙, 제례, 혼례, 분가, 상속, 지명, 전설, 민요, 신앙, 당제(무속))
 ⑤ 기술문화(선박, 전통민가)

			
▲ 2009	▲ 2016	▲ 2017	▲ 2018
			
▲ 2011	▲ 2014	▲ 2016	▲ 2017
			
▲ 2018	▲ 2022	▲ 2020	▲ 2024

(2) 섬 문화유산 조사 방법³⁵⁾

섬에는 각각의 섬별 특색있는 곡학적 자료, 유·무형의 민속자료, 전통 건조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섬 조사에는 섬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

35)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이트 참고(https://www.seamuse.go.kr/research/island_research)

이때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 ‘물 때’이다. 섬 사람들의 생업활동은 물때에 따라 이뤄지며, 조사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섬문화유산 조사는 섬주민과 조사자의 라포(Rapport)³⁶⁾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섬 문화유산 조사방법 시스템의 절차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섬 문화유산 조사 방법

한 개의 섬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2차년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1차년도에는 현지조사, 자문회의, 전문가 세미나, 주민설명회, 현지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2차년도에는 조사내용을 보고서와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현지조사에 들어가기 전 문헌조사와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단은 내외부에서 전공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기간 동안 위촉한다. 또한 현지조사 전 조사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존 조사·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방향을 설계한다. 이후 조사지역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기관 업무협약을

36) 프랑스 어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연결고리나 교감을 뜻한다. 즉,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형성을 말한다.

체결하며, 섬 주민 중 일부를 현지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앞서 섬 주민과 조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³⁷⁾를 개최한다. 현지조사는 현지 생업의 패턴이나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영상에 담기 위해 계절 또는 물때에 맞추어 조사기간을 4회 정도 나누어 진행한다. 현지 세미나³⁸⁾ 개최를 통해 섬 주민과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함께 공유한다.

한 해의 현지조사와 제반 사업이 마무리되면 익년에 조사 원고를 조사자에게 의뢰하고, 집필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 발간과 함께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현지에서 영상 상영회³⁹⁾ 등을 개최하여 활용한다. 혹은 전시(사진전 등)를 통해 섬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섬 문화유산을 홍보한다.



<그림 7> 섬 문화유산 조사 후 활용사례(사진전 및 영상 상영회)

37) 주민설명회는 조사지역 주민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전달하고 이해도를 증진시켜 조사자와 제보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과정이다.
38) 해양문화유산 현지 세미나는 섬 지역민과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여 현지인의 해양역사 이해를 돕고, 현지 주민이 조사 내용을 검증하여 조사의 완성도를 높인다.
39) 조사 지역의 자연·인문·사회적 환경 등이 담긴 영상 다큐멘터리는 조사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공개하여 섬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의 독자성을 홍보하고 해양문화유산 영상기록 자료로 보존하고 활용한다.

〈표 5〉 제주도 해양 문화유산 목록

구분	유산 설명
관방유적	▶ 제주는 왜구 침입이 잦았던 섬이자, 동북아 해상의 길목에 자리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주 해안 거점에는 환해장성을 비롯한 진성, 봉수, 연대 등을 설치해 해안방어 체계를 공고히했다. ▶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고려 군사들이 남하하는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불과 2~3개월 후 삼별초 군사들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여몽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별초군이 1273년(원종 14)에 패전한 후, 1854년(철종 5)까지 환해장성은 계속 수리, 증축되었다. ▶ ‘9진(鎭)’은 제주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화북진·조천진·별방진·수산진·서귀진·모슬진·차귀진·명월진·애월진을 말한다. 본래 진은 변방의 방어를 위하여 북쪽 변방과 남부 해안지대에 구축한 군사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특히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주로 남부 해안지대에 많이 설치하였다. 진은 방호소라고도 불린다. ▶ 제주도의 ‘봉수’는 주로 먼 지역의 적선을 관망하기 위해 오름 정상에 설치한 것이며, ‘연대’는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을 저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해안에 주로 설치되었다. 봉수와 연대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연락을 취했다.
불턱	▶ ‘불턱’은 해녀의 전용 노천탈의장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잠수사회에서 ‘불턱’은 노천탈의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크게 나누어, 자연적인 공간으로서의 탈의장 역할과 단순노동이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잠수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학교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몸소 익히고 도덕성을 기르며 법의식을 함양하여 집단의 불문율을 준수하는 삶의 수련장 역할까지 겸한다. 이에 해녀의 대표적 상징인 ‘불턱’은 잠수사회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마을마다 여러 개의 불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온수 시설을 갖춘 잠수탈의장이 생겨서 현재 35개소의 불턱이 존재하고 있다.
소금밭	▶ ‘소금밭’은 제주도 해안의 암반이나 모래밭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던 장소로, 염전에 해당된다. 암석염전은 ‘소금빌레’라고도 하였는데, 빌레는 너럭바위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강우일이 많아 소금 생산이 불리한 지역이다. 예로부터 소금이 몹시 귀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말·말총·굴·해산물 등을 육지부의 소금과 교환하여 사용했다. ▶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제주에서는 여러 소금밭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소금 생산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으로 모래를 이용하거나 암반을 이용하여 제염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소금 생산보다 노역이 많이 들어갔다. 모래 소금밭과 함께 평평한 바닥돌인 빌레에서 소금을 얻었던 ‘소금빌레’의 존재는 실로 제주적이라고 할 만하다. 1950년대 서남해에서 천일염이 싼값으로 수입되면서 제주에서 소금밭은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개발에 묻혀버린 경우도 있고, 모래소금밭인 경우는 없어지거나 쓰임이 바뀌어버리기도 하였다. ▶ 제주지역에 비교적 ‘소금밭’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총 11개소가 확인된다.
원담	▶ ‘원담’이란 제주도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灣)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담을 쌓아 둘러막아 놓고 밀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자연히 그 안에 갇히므로 쉽게 잡을 수 있게 장치해둔 곳으로 ‘원’ 또는 ‘개’라고 한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조천, 구좌, 성산 일대에서는 ‘개’라고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원’이라 한다. 개라는 말은 해안가에서 살짝 만을 이루는 곳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 개에 고기를 잡을 요량으로 둘러 쌓은 담을 ‘갯담(원담)’이라 한다. 원은 돌담의 뜻을 갖는 ‘원(垣)’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조사 일정

- ① 문헌조사
- ② 사전조사
 - 진도군청, 조도면사무소, 진도문화원 방문하여 기초자료 수집,
 - 관매도 현황과 제보자 파악을 위해 현지 주민(이장 등) 면담
- ③ 자문회의
 - 체계적인 조사와 관매도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진도군과 업무 협약 체결
 - 진도군과 조도면사무소를 방문, 사업내용을 알리고 진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
 - 관매도 조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④ 주민설명회 및 현지조사 세미나 개최
 - 관매도 주민 대상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 ▶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공유, 현지조사 주민참여 홍보
 - 「관매도 사람들의 해양 역사와 문화」 주제로 현지조사 세미나 개최
 - ▶ 관매도 역사문화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 ▶ 관매도 조사내용 검증,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술자료 확보

3) 제주도 해양 문화유산 현황

제주의 지리적 혹은 자연적 환경을 구분하고,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변방으로서 핍박 받으며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의 공간이었고, 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방의 시기 1천 년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신문화를 구축했다.

‘수눌음 정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 ‘조냥정신’으로 상징되는 절약정신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탐라국이 소멸된 이후 중앙집권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라는 양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섬인 제주도의 경우 산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의 이중적인 생계 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도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혈연적 유대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집결되었으며, 공동체성을 띤 문화유산들이 현재까지도 지속 보전되고 있다.

구분	유산 설명
원담	▶ 제주의 원담은 마을 공동 소유인 동시에 공동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졌다. 뿔(뿔치)이 들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나와 잡았고,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일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파도에 허물어진 원담을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나면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듯 원담은 마을 공동의 소유로서 제주지역 해안마을의 어로 기술·민속, 그리고 경제사를 가늠케 하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어촌생업 문화유산이자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투영하는 문화적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구	▶ 포구는 ‘개’·‘개맛’·‘개창’·‘성창’·‘돈지’라 일컬어지는 바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이며, 주로 해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화산도(火山島)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해변은 단조롭고 암초가 많아 배를 정박할 만한 포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주도의 포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는 비교적 굴곡이 발달한 대륙도나 산호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용천수	▶ 제주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내륙지방과 달리 지표수 이용이 어려워,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용천수는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어 흐르다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물로 샘물, 세미 또는 산물로 불리기도 한다. ▶ 제주 물 이용에 있어 물에 대한 공간·칸의 구분은 오늘날의 자원공유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물통을 4개의 칸으로 구분하여 물이 솟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물은 식수로, 다음은 먹거리와 관계되는 송키 등을 씻는 칸으로 세 번째 칸은 깨끗한 빨래와 더러운 빨래를 구분하여 빨래를 할 수 있는 칸으로 다음은 목욕을 할 수 있는 물로, 그리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용하였다. ▶ 물 이용에 대한 규칙과 규율이 만들어지고, 물통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에서 공동 정비와 관리를 통해 물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도대불	▶ ‘도대불’은 현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 제주 어촌마을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했던 민간등대로, 등명대라고도 불렸다. ▶ 제주 현무암을 응용해 각 지역마다 원뿔형, 연대(煙臺)형, 마름모형의 독특한 형태로 축조되는 등 제주 근현대 어업문화 및 해양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서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높다. ▶ 현재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곳은 북촌리, 고산리, 김녕리, 영일동, 대포동, 보목동 도대불 6개소로 파악된다.
해신당	▶ ‘해신당’이란 어부와 해녀들이 다니는 당이다. 바다의 신, 용왕신, 선왕신, 개로육서또 등을 모시는 해신당은 해변형이다. 이 당의 당신들은 어부, 잠수들에게 개방적인 신이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천한 신으로 여긴다. ‘일만 잠수 일만 어부를 차지한 신’이기 때문에 어촌 마을 생업수호신이다. 다시 말해, 해신계 신당이라 하는 것은 현재 돈짓당, 개당, 해신당, 영등당 등이라 부른 당으로 어부, 어선, 어장, 해녀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당들이다. 돈지란 물가의 언덕 즉 둔치이고, 개란 포(浦)의 뜻이니 돈짓당, 개당이란 곧 해변당, 포당(浦堂)이란 뜻이 된다. 해신당은 주로 용왕과 선왕 두 신이 좌정해 있다. ▶ 제주도의 해신신앙은 해마다 영등 2월에 찾아오는 영등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영등신맞이와 연초 영등달이 아닌 달에 잠녀들이 바다밭에 씨를 들이는 잠수굿과 같은 곳이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진다. 이렇듯 해신당은 해녀들을 포함한 어민들이 험난한 삶을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이곳에는 온갖 어민들이 애환과 삶이 깃든 생업공간인 동시에 쉼터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구분	유산 설명
해신사	▶ ‘해신사’는 조선 순조 20년(1820), 당시 제주목사로 있던 한상목이 화북포 앞바다를 오고가는 배들의 안전을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기원하기 위해 지은 제당이다. ▶ 매년 음력 정월 5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주민들이 모여 ‘해신제’를 지내는데, 무속신인 용왕에게 유교식 마을 제사를 지내고는 개인적으로 비념을 한 후 지드림을 한다. 지드림이란 백지에 음식을 써서 바다에 던지는 행위로, 용왕과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위하는 것이다. ▶ 조선 후기인 1820년(순조 20) 당시 제주목사로 있던 한상목이 세웠으며, 1841년 (헌종 7년) 방어사였던 이원조가 건물을 보수하고, 그 뒤 1849년(헌종 15) 장인식이 돌에 ‘해신지위’라는 글자를 새겨 보존하도록 하였다. 바다의 신인 용왕, 즉 해신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지어진 제당이었으나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해신당이 아닌 해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 해신제는 1820년경부터 ‘해신지위’를 모셔 놓고 해상의 안전과 수복 안녕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지내 왔으나, 1989년부터 축문을 마을의 안녕과 수복을 비는 내용으로 바꾸어 화북동 유일의 마을제로 지내고 있다.
제주도 산하 유인도	▶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에 속하는 섬으로서 동경 126°14′, 북위 33°24′에 위치하며, 면적은 0.5㎢, 해안선길이는 3.15km이다. 죽도라고도 한다. 하추자도에서 남쪽으로 19.3km에 있으며,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져 있다. 고려시대인 1002년(목종 5) 6월 제주 해역 한가운데에서 산이 솟아 나왔는데, 산꼭대기에서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닛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 물이 엉키어 기와가 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양봉에서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우도: 제주도 동쪽에 있는 남북 길이 3.53km, 동서 길이 2.5km인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화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섬이다. 일찍부터 소섬 또는 쉼섬으로 불리다가 한자로 우도(牛島)라 표기하였다. ▶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를 이루는 섬이다. 면적 0.3㎢, 인구 90명(2000)이다. 해안선 길이 4.2km, 최고점 39m이다. 한국 최남단의 섬으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km 해상에 있다. 원래는 가파리(加波里)에 속하였으나 1981년 4월 1일 마라리로 분리되었다. ▶ 가파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를 이루는 섬이다. 면적 0.9㎢, 인구 407명(2000)이다. 해안선 길이 4.2km, 최고점 20.5m이다.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5.5km 해상에 위치하며, 남쪽에 마라도가 있다. ▶ 차귀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 서쪽 2km 해상에 위치하며, 주변에 죽도·지실이섬·와도 등의 부속 섬이 있다. ▶ 추자도: 추자군도(楸子群島)는 제주시에서 가장 북서쪽에 위치한 군도이다. 1271년(고려 원종 13)까지 후풍도(候風島)라고 불렸으며, 그 후 전라남도 영암군에 속하면서 추자도로 개칭하고, 1910년 제주에 딸리게 되었다. 한반도 남서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상추자도·하추자도·횡간도(橫干島)·추포도(秋浦島) 등 4개의 유인도 및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 횡간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속하는 섬으로서 1851년 주민들이 입도한 것으로 전해지며 1970년대 이전까지는 멸치잡이가 성행하였다. ▶ 추포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에 속하는 섬으로서 추포도는 추자도의 4개 유인도 중에 제일 작은 섬이다.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에 속한다.



제주의 자연과 목축문화

강만익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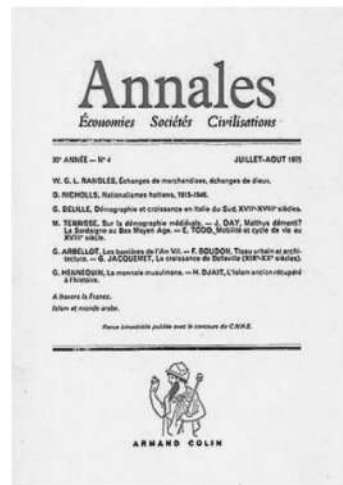
[제주학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강의자료] 제주의 자연과 목축문화

-프랑스 아날학파의 관점-

강만익(문학박사, 지리역사학)



일소장. 아날학파와 목축문화



- **아날 학 파 (Annales School):**
프랑스 역사가 루시앵 페브르, 마르크 블로크가 1929년에 창간한 [경제사회연보]에서 유래
- **독일 역사학자 랑케의 사실주의**
에 토대를 둔 근대 역사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랑케 시대에는 사료의 정확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문헌사학) 결국 역사학은 자료제공자가 되었고 역사학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비판

- 제1세대: 페브르, 블로크→ 사회경제, 집단, 구조, 비교사
- 제2세대: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자는 지속적인 '구조'의 힘(장기적: 환경), 사회경제적인 '주기순환'의 힘(중기적), 변덕스런 '사건'의 힘(단기적 사건사)을 모두 고려해 역사 서술: 전체사, 구조사, 사회학과 지리학과의 교류
- 제3세대: 조르주 뒤비, 자크 르 고프, 엠마뉘엘 르 루아 라뒤리 → 사회경제사에서 기초를 다진 뒤 인류학적 영토에서 새로운 역사 개척(역사인류학). 사회를 반영한 정신적 구조로서의 문화를 연구했고, 집단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음: 집단심성사(망탈리테) => 역사 세계: 인류학적 역사(물질생활 대상)와 심성사(정신생활)
- 제4세대: 로제 샤르티에→ '책 읽기'라는 새로운 역사 영역 개척→ 누가 책을 읽었고 책은 누구의 소유였을까에 주목, 신문화사(1970년대에 등장, 사회적 약자(아래로부터의 역사), 일반인들의 문화를 역사적으로 해석, 문학 및 철학과 교류) 개척



L. Febvre(1878-1956)



Marc Block(1886-1944)



F. Braudel(1902-1985)



G. Duby(1919-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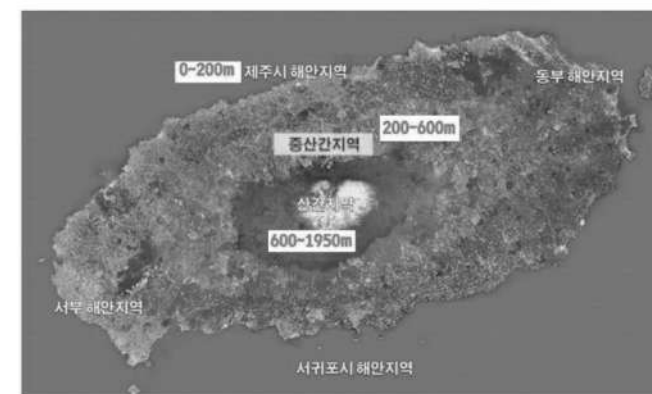
E. Ladorie(192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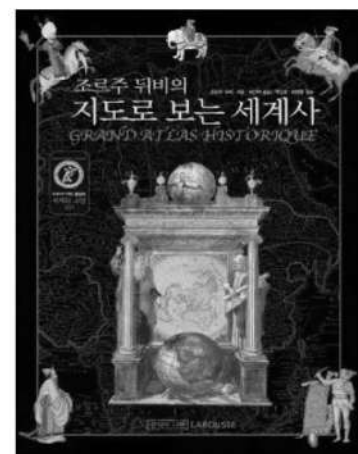
Roger Chartier(1945-)



이소장. 목축공간의 장기지속: 화산섬 제주의 자연환경



탐라는 “남중국, 한반도, 일본열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중핵으로 누구나 탐을 내던 황금알”(윤명철, 2006)



● 조르주 뒤비(1919~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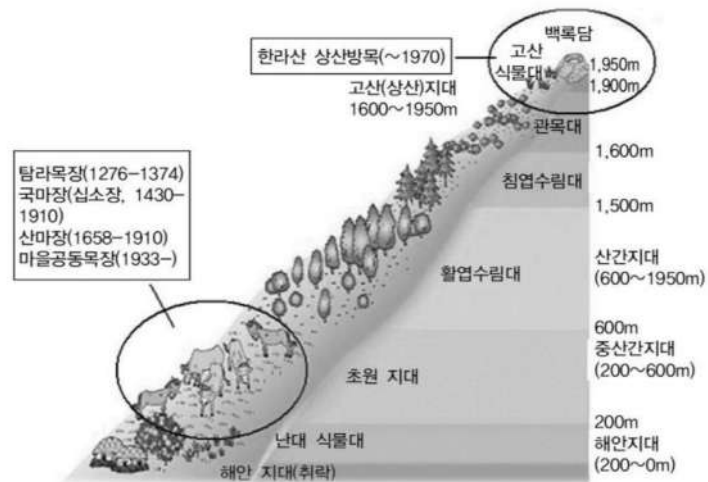
- 정치중심의 역사서술을 버리고 지도로 역사를 말하라.
- 역사는 땅 위에 기록된다. 과거 인간이 지나간 모든 흔적은 땅에 남았다.
- 지도는 역사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지도라는 커다란 역사부도는 완벽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매혹적이다.

- 목축은 한라산지(해발 200m 이상) 자연환경의 선물
- 중산간 지대는 오름·하천·꽃자왈·화산회토·용암대지 발달
- 늑대와 호랑이가 없고, 연평균기온 낮으며, 최다우지, 다설지에 해당
- 몽골에서 발생하는 조드(Dzud-심각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겨울 기상이변, 영하35도, 폭설)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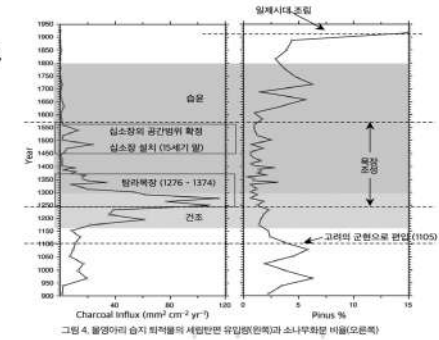
- 산북은 바람이 차고 모질어 초목들이 쉽게 말라 버리나, 산남은 겨울에도 눈과 서리가 내리지 않고,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아 먹을 거리가 풍부해 말들이 살찐다. ([성종실록] 성종24년(1493) 10월 4일: 臣嘗奉使濟州 觀山北風氣 寒勁草木易枯 山南冬無雪霜 木葉不彫 馬畜甚肥)
- 날씨는 따뜻하나 흐린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다. 봄과 여름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맑게 개인다. 초목과 곤충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이원진, [탐라지], 1653)

한라산 목축지와 식생분포



2차 초지대 형성과 목축지 확대

출처 : 박정재, 진종현,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대한지리학회, 2019, 제54권 제2호, 160.



● 세립탄입 유입량 분석

- ① AD 1150~1300년 유입량 증가: 농경과 목축 위해 불 놓기
- ② AD 1250년 이후 유입량 최대: 탐라목장 운영기(1276~1374), 건조환경에서 방해[放火]를 놓아 나무 제거해 목축지 조성
- ③ 1450년대 유입량 증가: 세금입금의 중산간 국마장 설치기



백록담(1947m)



사라오름(1324m)



물장오리(938m)



물영아리(508m)



물чат오름(718m)



금악(427m)

삼소장. 목축문화의 주인공

1. 제주인과 우마(牛馬)

- 이항복(1556~1618)-준마(駿馬)가 서울에서 새끼를 낳으면 외방(外方)에서 길러야 하고, 선비가 외방에서 자식을 낳으면 마땅히 서울에서 길러야 한다.
- 광지패총 출토 말뼈 분석 : 8 세기경 제주에는 체고 120cm 가량의 말과 체고 160cm 가량의 큰 말도 살았다. (제주대박물관, [제주광지패총 보고서], 1997)



가라(加羅, 검은말, Black)



청총(靑總, 검정과 흰색, Black-Gray)



적다(赤多, 붉은색, Chestnut)



유마(驪馬, 갈색, Bay)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이성계의 준마, 응상백



凝霜白
純白色 烏髯^자 烏眼^안
烏腎^신 烏蹄^제 產於濟州
回軍時御

응상백(서리가 내린 듯한 흰 말)
순백색이고, 갈기, 눈, 음경,
발굽이 검고, 제주에서 생산
되었고, 임금께서 회군(1388)
하실 때 타시었다.



한국전쟁 호국영웅마, 레클리스, 1959년 미해병대 하사
계급 수여식: 레클리스는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존 웨인 등과 함께 1997년 미국 라이프지(誌)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영웅에 선정된 제주산 암말



물 고래 돌리는 조랑말

한우와 흑우(검은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정착 농경문화에 중요한 한우

조선시대 국가제사 희생용으로 진상

소 이름: 금승(1, 金生), 다간(2), 사름(3), 나름(4), 다습(5), 여습(6).
말 이름: 하름(1), 이듬(2), 사름(3살), 나름(4살), 다습(5살), 여습(6살), 이름(7), 여듬(8), 아습(9), 열름(10)(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밧갈췌·번췌·멤췌·샷췌

- 밧갈췌: 자갈 많은 밭을 갈던 수소
- 번췌: 농번기에 당변을 정해 번갈아 가며 길러주던 소
- 멤췌: 다른 사람의 암소를 대신 길러 주고 낳은 송아지를 나누어 가지는 소(병작쇠)
- 샷췌: 해안마을에서 중산간 마을에 위탁해 길렀던 소(위탁방목)



2. 제주인은 테우리

- 테우리 : 몽골어(박원길), 제주어(김인호)
- 국마장을 운영하던 최하층-관노비·토착인·사사노
- 16세부터 60세까지 : 우마사육, 땀감 공급, 거주이전과 전직 불허, 동색마o, 위전(位田)x
- 중종실록(1521): 정의의 목자·어호(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집)로 배정된 공천·사천 가운데 도망하여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6소장 목자 高允文 : 순조14년(1814) 효자로 정려됨. 1850년 비를 세움.



1930년대 여성 테우리



[우도점마](1702.7.13.)에 나타난 테우리 근무 복장: 병거지 모자를 쓰고 말을 몰 때 쓰는 지팡이를 짚고 있다. 지팡이는 윤노리 나무로 만든다. 발과 발목, 무릎까지 덮는 것을 가죽발레(버선)이라고 한다(고부자, 2000).

쇠테우리 요 내 신세

쇠테우리 요 내 신세/ 동그령착 보리밥에
범섬 자리 하영도 먹었찌/ 쇠테우리 십년 세월
십년세월 물광 같곡/ 십년세월 바람이여
사름 부령인 늙은 밧갈쇠 되곡/요 내 신세
미싱거니
장겔 한번 가와시카/ 쇠테우리로 늙은 신세
허주마는 우리 인생/ 동그령착 보리밥에
범섬 자리 구만먹곡/ 돌랭이라도 하나사곡
애기업개 비바리 하나도랑/ 살아보게 잘
살아보게

출처: 김광협(1984),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 제주민요시집>, 태광문화사, 58쪽.

사소장. 목축문화의 정체성

1. 방목(放牧)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김광협 · 김민지 저

문화사

- 연중방목 : 사계절, 말 방목
- 계절방목 : 공동목장, 봄~가을철
- 이목 : 여름-고지대, 겨울-저지대
- 윤환방목 : 공동목장, 초생(草生) 상태에 따른 방목구역 순환
- 상산방목 : 한라산 백록담 부근

한라산 상산방목



- [속담] 모쉬랑 나건 상산에 보내곡, 사름을 나건 서월로 보내라



한라산 마지막 방목모습(신용만, 1988)

상산에 올린 쉼

한라산도 불구릉 호여 가곡
조팔디 조 코구리도 노리릉 호여 감찌
상산에 올린 쉼도 노려올 때가 되염구나
저놈의 쉼 노려오명 송애기랑 호나 낭 오지 못홀전정
놈의 집 조팻이나 판내우지 말아시민
여름 철 진독광 부구린 무사사 경 한디
진독도 털어지곡 부구리도 털어지곡
문짝 솔쳐아정 오커던 오라
놈의 집 조팻이나 콩밭디랑 얼러 땡기질 말라
호다호다 얼러땡기질 말아 도라(김광협, 1994)

2. 낙인(烙印)



- 낙인에 대한 최초 역사기록 : “烙印을 찍은 다음 거세하는 것을 하라하라”(태종 실록 1407) => 몽골의 목축문화
- 말들의 소유주와 관리목장을 구별
- 일정한 문자, 기호, 도형이 새겨진 쇠붙이를 불어 달구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찍는 표식-수놓음으로 실시
- 방법 : 우마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낙인을 대퇴부에 지진다.
- 개인별, 성씨별 또는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찍기도 했음.

3. 목축의례

테우리제[백중제]



- 마소의 번식을 기원하는 목축의례: 목축민 중심
- 백중날(음력 7월 15일) 새벽 또는 백중 전날 밤
-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준비
- 고사 장소 : 공동목장, 바령밭, 목장 내 오름 정상
- "천왕 테우리도 먹영갑써"
- "인왕 테우리도 먹영갑써"
- 방목하는 지점과 마을 공동목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를 지냄



송당리 테우리제 재현(2017.9.2. 아부오름)

마조제(馬祖祭)

- 마조제 치제기록 : 세종 1년(1419) 12월 3일, 현종 10년(1669) 2월 23일, 영조 8년(1732) 2월 20일, 정조 21년(1797) 7월 8일
- 살곶이 목장 내에 있었던 마조단(현, 한양대학교)에서 행해졌음(1908년 폐지)
- 한양: 사복시, 제주도: 제주목사가 주관 -> 관 중심
- 제사의 희생 : 돼지 한마리
마조단 터 : KAL 호텔 입구에 위치
마조단 설치 : 1852년



4. 밭 밟기(踏田)

제주목사 김정준(金廷雋) : 제주는 토질이 푸석푸석하여 곡식을 심을 때는 반드시 마소를 모아다가 땅을 밟아 땅이 굳어져야만 씨를 뿌린다. 이 때문에 관청소유의 우마들이 기진맥진 해진다. 공가에서 비록 금령이 있으나, 몰래 목자와 짜고서 말을 병들게 합니다.[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7월 27일 병술]

화산회토 : 바람 불면 흙과 함께 파종한 씨앗이 날려 농사를 망친다 -> 우마를 투입해 산디, 좁씨 파종한 밭에 밟아주기(진압농법)

말을 이용한 밭 밟기



5. 바랑[糞田]

- [탐라지](이원조) : 民家飼養牛馬 皆作屯放牧 以爲踏田 糞田之用也
- 바랑[령] : 소나 말의 똥이나 오줌 같은 분비물을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곳에 모아 받는 일
- 이형상, [남한박물](1704) : “마소들을 담을 쌓아 두른 곳에 가두어 밤낮으로 밭에 배설을 싸게 한다. 이를 팔양(八陽)이라 한다”. ● [속담] 바랑밭의 곡식 좋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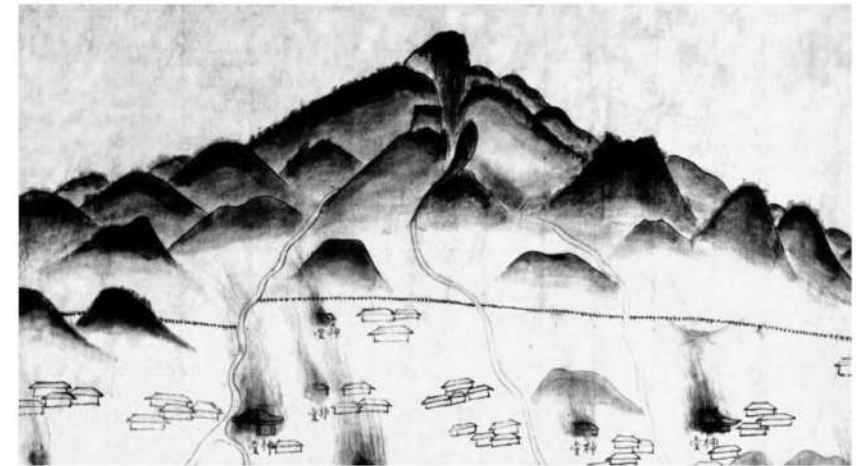


6. 방애(放火)

- 목야지(공동목장)에 공동으로 불을 놓아 잡초나 초지를 태우는 일, 화입(火入), 들불축제로 계승
- 목장 방화기록 : 渭原郡守柳世復, 亦以 牧場放火事...蓋世復點馬時, 見牧場多松樹, 妨於飼馬, 故狀請 放火([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 산소에 산담을 만드는 이유 : 마소 출입 방지, '방애'로 인한 분묘 훼손 방지
- 2월이나 3월 초순, 진드기 유충 제거, 잔초 제거
방법 : 마을 주민 전체 동원, 방화선 구축, 바람 없는 맑은 날 이용, 공동체적 행사, 불참시 벌금 납부
1965년부터 목장 화입금지(제주신문, 1965.5.15)

7. 잣담[성]: 국마장 경계돌담

- 하잣성: 우마가 농경지들로 들어가 입히는 피해 예방 => 1430년 중산간에 우마를 몰아 넣어 국마장 만들며 축조
- 상잣성: 말들이 한라산 밀림지대로 들어가 동사, 고실하는 문제 예방(1780)
[속담] 상잣디 논 모쉬도 한두번은 돌아본다
- 중잣성: 농목교체형(목축+농사), 윤회방목



탐라순력도(1703)[건포배은]에 나타난 잣성

탐라지도병서(1709)의 산장과 10소장



제주 최초 잣성 향토문화유산지정 수망리 산마장 잣성(2021.11.03.)



오소장. 목축공간에 등장한 사건 1. 쿠빌라이, 탐라목장 설치(1276)



쿠빌라이 칸(Khubilai khan,
1215-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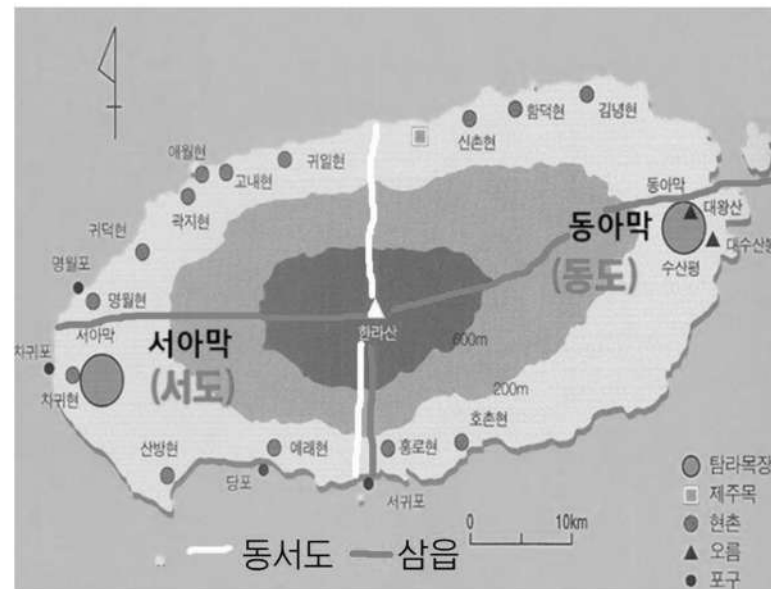
- 쿠빌라이 칸 : 일본과 남송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인 탐라에 관심
- 탐라에 대한 사전조사 진행
- 삼별초 진압(1273)-> 일본 정벌 위해 군대 주둔
- 탐라목장 설치(1276-1277) : 군마생산 => “말의 시대”

탐라목장 설치과정

- 탐라총관부 설치 및 다루가치 탐랄적(타라치) 파견
- 탐라목장 설치 : 충렬왕 2년(1276) 8월 -> 말 160필, 소, 양, 나귀, 낙타 등 5축과 목축전문가 카치(합적)
- 말 공급지 : 동몽골 다리강가 -> 원제국 세계 칸국기에 동(東) 원제국 다리강가 지역이 중심 목마장이었고, 탐라 섬은 그 한 분지였음(주채혁, 2007)
- 동·서 아막 설치(1277): 아이막 => 행정구역(道)
- 탐라에서 10여 년 간(1276~1287) 목마사업을 번성시켜 14 개 황실목장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킴 => 탐라목장은 고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대



몽골 다리강가 대초원: 알탕어워 산은 주민들이 신성시하며 숭배하는 산으로 여성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음(2006.7).



고려말 아막과 현촌(1300) 그리고 조선시대 삼읍체제

동아막 수산평 탐라목장



[동여비고](1600년대 후반)에 수산평,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수산 서남쪽), [동사강목]: 정의현청에서 동쪽으로 24리



서아막 차귀평 탐라목장: 칠전동에 몽골인 거주, 칠전동 앞 맨처남~허문발 일대([제주고산향토지], 2000)

탐라목장 운영: 원으로 말 반출

- 충렬왕 21년(1295) 3월 : 원나라에서 伯帖木兒를 보내어 탐라에서 말을 반출함.
- 충목왕 3년(1347) : 원나라 太僕寺에서 家奴帖木兒, 安伯顏花를 보내어 탐라의 말을 가져갔음.
- 원으로 말 반출 기록-100여년 동안 2회뿐
 - A) 원 조정에서 말들을 실제로 적게 반출(거리가 멀었고, 중국 대륙에도 말들이 많았다!!)
 - B) 반출기록을 적게 남겼을 가능성
 - C) 목장규모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탐라목장이 그 크기나 목초지의 성격에서 대량으로 말을 키우는 용도 보다는 일종의 말 교배 실험장 수준 (양혜숙, 박원길, 2019)



탐라목장 운영기 대원포구: 명월포, 당포(대평리), 서귀포

합적의 난(1374)과 최영

- 공민왕 21년(1372) 3월 명나라가 고려에 제주마 2,000필 요구
- 1372년 4월 : 몽골인 초고독불화, 석가을비 등 저항-> "원제의 명이 아니면 명에 보내는 마필 간택에 응할 수 없다."
- 1374년 명이 2,000필 요구-> 집단 저항(합적의 난, 갑인의 변) : 공민왕은 목호군 토벌 결정
- 최영을 도통사에 임명 -> 전함 314척, 군사 2만 5,605명
- 명월포, 새별오름, 어음비, 범섬에서 목호군 토벌(1374.8~9)



격전지, 효성오름



최후의 싸움터, 범섬

몽골인과 제주여인 혼인

高麗 烈女鄭氏之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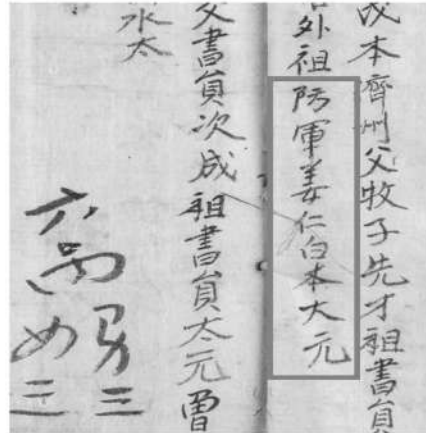
高麗 石谷里甫介之妻 哈赤之亂 其夫死鄭年少無子 有姿色 安撫使軍官 強欲娶之 鄭以死自誓 引刀欲自刎 竟不得娶至老不嫁事



- 1428년(세종10) 세워진 비석이 소멸된 후 제주목사 한응호(1834년 3월)가 다시 세운 비석
- 고려정씨 열비녀 : 향토유산 제29호 지정(2019)

제주에 정착한 몽골인들

- 몽골인 본관 표기: 大元
- [탐라지](1653): 15개
-大元系: 趙, 李, 石, 肖, 姜, 康, 鄭, 張, 宋, 周, 秦
-雲南系: 梁, 安, 姜, 對
- [제주읍지](1780): 2개
大元 佐氏, 雲南 元氏



호적중초(1813)의 대원 강씨

2. 세종, 한라산 국마장 설치(1430)

고득중, 국마장 설치건의



고득중(1388-1452): 1414년 알성문과, 1427년 문과중시에 급제, 1438년에 관악사로 명나라, 1439년에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인물, 1443년에 한성부판윤 역임

- 兵曹啓: “上護軍 高得宗 等上言, 請於 漢拏山邊四面 約四息之地, 築牧場, 不分公私馬, 入放場內, 居民六十餘戶, 悉移於場外之地, 從願折給”(세종실록, 권 45, 11년(1429) 8월 26일)
- 改築 濟州漢拏山牧場, 周圍一百六十五里, 移民戶三百四十四(세종실록 47권, 12년[1430] 2월 9일)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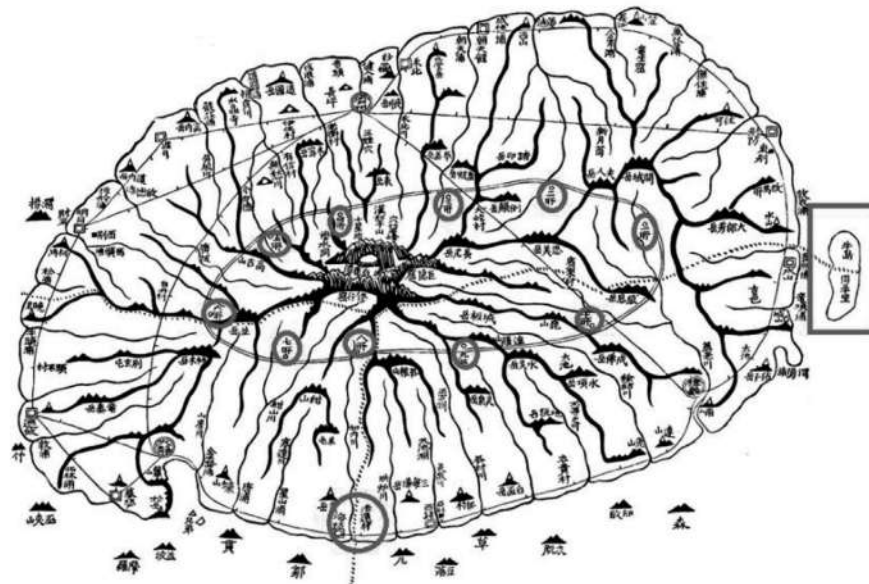
- 자목장 1개: 암말 100필과 숫말 15필로 구성, 7명(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 관리(자목장= 둔장, 둔마장)
- [남환박물](1704): 3읍 63둔-제주목 34자, 정의현 14자, 대정현 5자 등 63둔 목장. 마적(1702): 말 7,699 필(산둔마 2,375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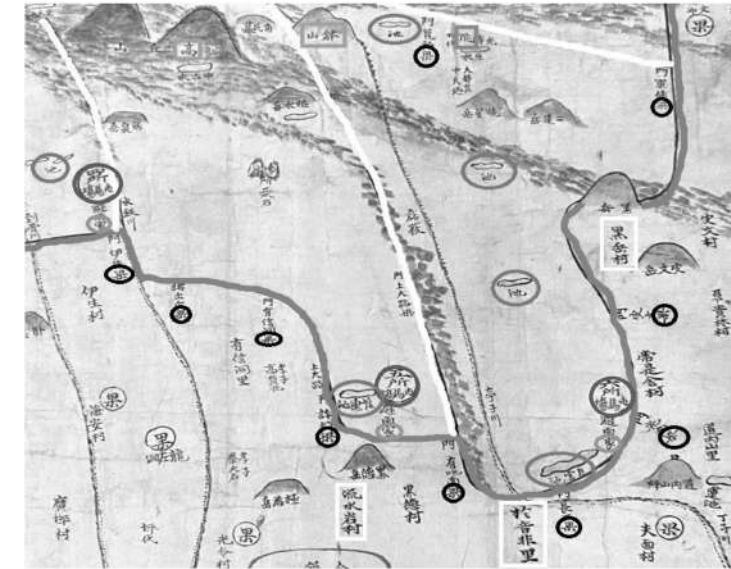
이형상 목장정비 정책: 황자목장(2소장과 별목장 사이의 公屯에 위치, 체오름~둔지봉) 신설, 어승마생산지, 종마로 달마(=호마) 방목, 잣담설치[계미설축 癸未設築](1703)[탐라장계초]

송정규, 십소장(1704)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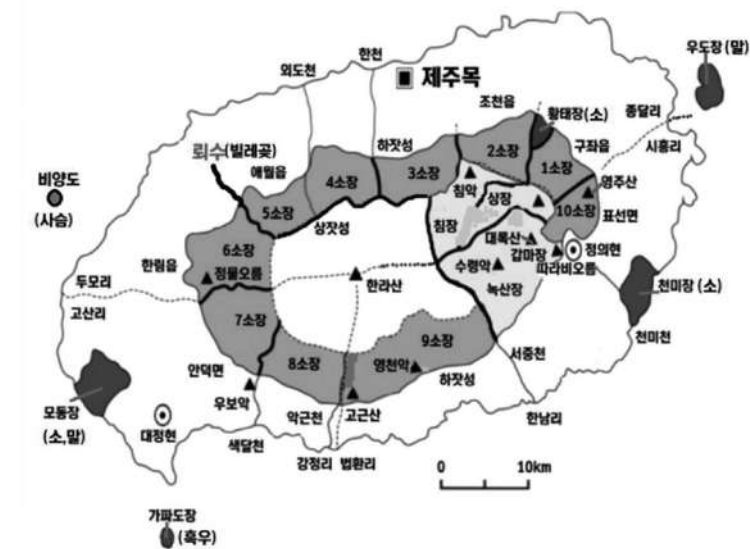
- 소장(所場): 대목장, 책임자는 마감, “濟州國屯
十所場”(송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5월 4일)
- 송정규 목사(1704-1706): 규모가 작은 목장은
큰 목장으로 통합해 10개 소장으로 재정비
- 이원조, [탐라지초본](1841): 肅廟甲申(1704)
牧使 宋廷奎 啓聞 築場舍劣取優合小爲大定爲 十所



대동여지도(1861)의 십소장 배치상태



제주삼읍도총지도(1750년대)의 국마장 목축경관



조선후기 국마장과 산마장 그리고 우목장 분포

3. 김만일, 헌마로 국난극복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 1550-1632)

- 정의현 의귀리 출신, 경주김씨
- 헌마배경 : 비싼 제주마를 빼돌려 부를 축적하려는 목사와 현감, 또는 군관들의 횡포 존재
- 헌마내역 : 제주인(1594)+ 수천필(1612)+500필(1620)+4필(1622)+500필(1627)+240필(1628)= 1244+@
- 관직내역 : 1594년(선조 27년) 종2품 동지중추부사, 1620년(광해군 12:500필) 정2품 오위도총부 도[부]총관(71세), 1628년(인조 6년:240필) 종1품 승정대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립



김만일 영정(2014)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개관(2021.08)

[비변사등록](정조5년[1781] 7월10일): 獻馬人, [정의음고지](1899): 獻馬功臣, [승정원일기](1872): 獻馬功臣(제2778책, 고종9년(1872) 7월1일(계미): 濟州 監牧官 則乃是 獻馬功臣 金萬鎰 后裔 中本牧自辟矣)

4. 효종, 산마장 설치(1659)

- 효종 10년(1659) 제주목사 이괴에 의해 설치(근거-[해외문견록], 송정규)->김대길(절충장군)을 초대 산마감목관으로 임명(1659)
- 김만일의 3남 김대길을 가선대부 산마감목관으로 재임명(2대, 현종 5년, 1664)
- 산마감목관(종6품) 임명 : 235년 동안 제1대 김대길 부터 마지막 김경흠까지 83명의 산마감목관 임명(1899년 폐지: [旌邑古誌(1899)]-山馬監牧官, 今則廢址)
- 숙종~영조: 침장, 상장, 녹산장
- 산마장 운영을 위해 암말 100필, 수말 15필로 하나의 패(牌: 群)로 편성-> 매 패마다 목자 10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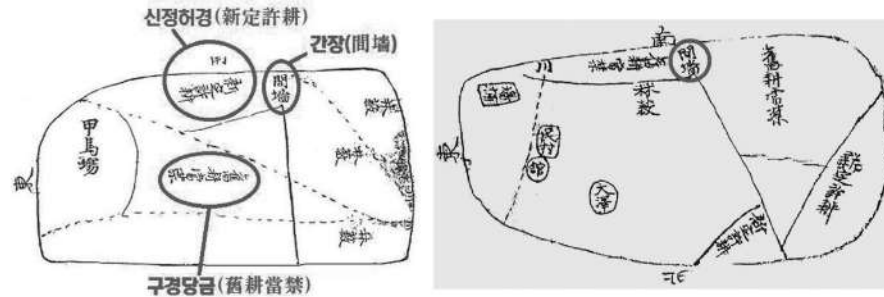


산마감목관 김대길(1608-1668)의 묘(서흥동 808-1) 묘지는 의귀리 班得田에서 大雀[하논]으로 이장, 부인(谷山康氏)과 합분(合墳)



산마감목관 김상걸(金商傑, 1766-1850) 묘: 1800년대 초 제43대 산마감목관(종6품) 역임, 함풍 원년(1851) 무덤 조성, 광서 10년(1884) 묘지 재정비(동자석 등)

녹산장과 갑마장(1794), 침장



[山馬牧場新定節目](1794, 심낙수): 횡축은 가로질러 쌓은 돌담으로, 간장(間牆)에 해당하며 이것은 구경당금(舊耕當禁: 과거에는 경작했으나 현재는 마땅히 금지된 땅)과 신정허경(新政許耕: 새로이 경작을 허락한 땅) 땅을 구분하는 역할, 民村은 교래리, 館은 객사, 場桶은 말을 모으는 장소, 林藪는 꽃자알(교래꽃자알로 추정)

5. 유한명, 우도장(牛島場) 설치(1697)



탐라순력도(1703)의 [우도점마]

- 숙종 23년(1697) 유한명 제주목사의 건의로 설치([남한박물], 1704), 말 2백필 방목, 목장둘레 50리
- 1840년대,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별방진과 정의현 수산진 조방장이 교대로 감목. 마감과 목자 14명, 둔마 275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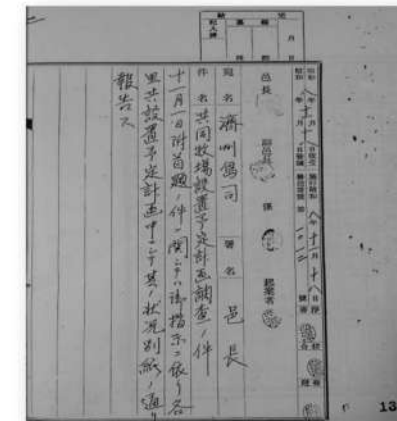
6. 정언유, 가파도 별둔장 설치(1750)



「가경 12년(1807) 하모리 호적중초」,
[제주하모리 호적중초(1)],
탐라문화연구소, 2000, 79쪽: 第四戶
加波島 牧子 姜成潑 年二十八己亥本晉州
[속담] 정이월 보름살에 가파도
검은 암새 뿔도 오그라진다.

- [남한박물](1704): 수목은 없고, 풀이 무성하여 私馬牧場으로 했다(李枝發 목장).
- 영조 26년(1750) 정언유 목사에 의해 설치된 흑우(검은새) 목장, 흑우 103수, 모슬포진 조방장이 우감(牛監)을 겸직, 색리 1명, 군두 1명, 목자 8명

7. 조선총독부, 마을공동목장 설치(1935)



- 소화 8년(1933) 제주도사가 제주읍장에게 발송: 공동목장설치 예정계획조사의 건



- 1930년대 116개 목장조합설립

안구공동목장조합 기념비



安九共同牧場用地提供者
訓長 金順必 學生 朴春振
齊長 高在興 學生 尹千年
齊長 朴彰振 學生 朴成大
訓長 康振叔 各一町步也
記念碑

組合長 宋希萬 副組合長 趙基學
(昭和*)十四年(1939)二月日
評議員 李奉春 宋聖順
發起人 高基秉 奇昌文 林明寬
金平玉 高文秀 組合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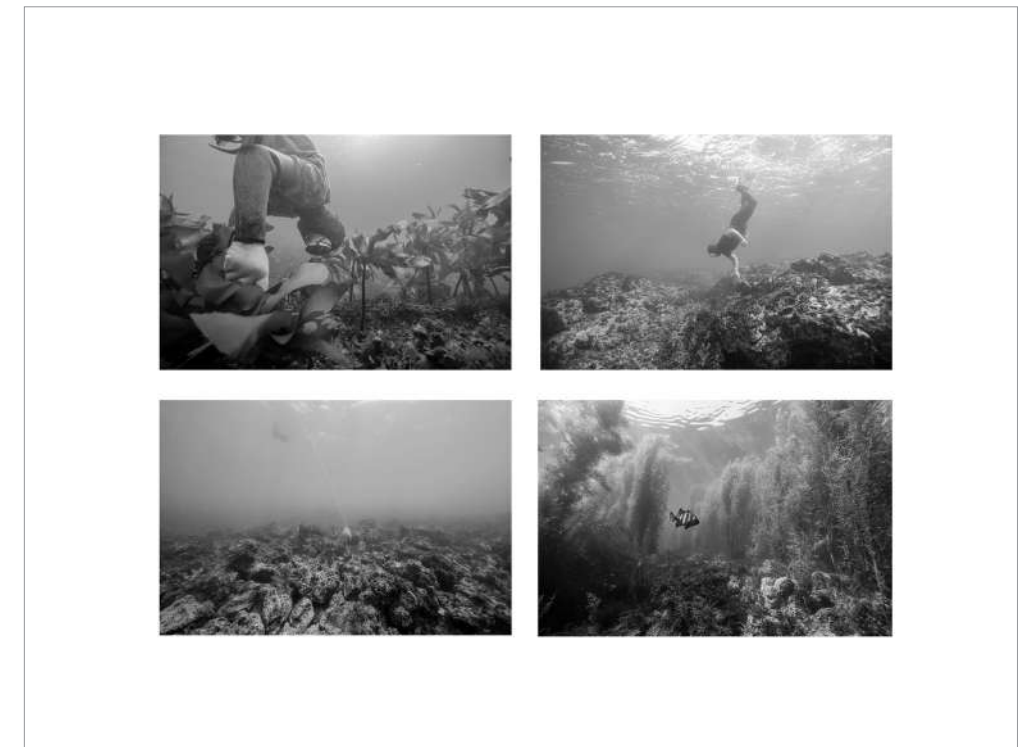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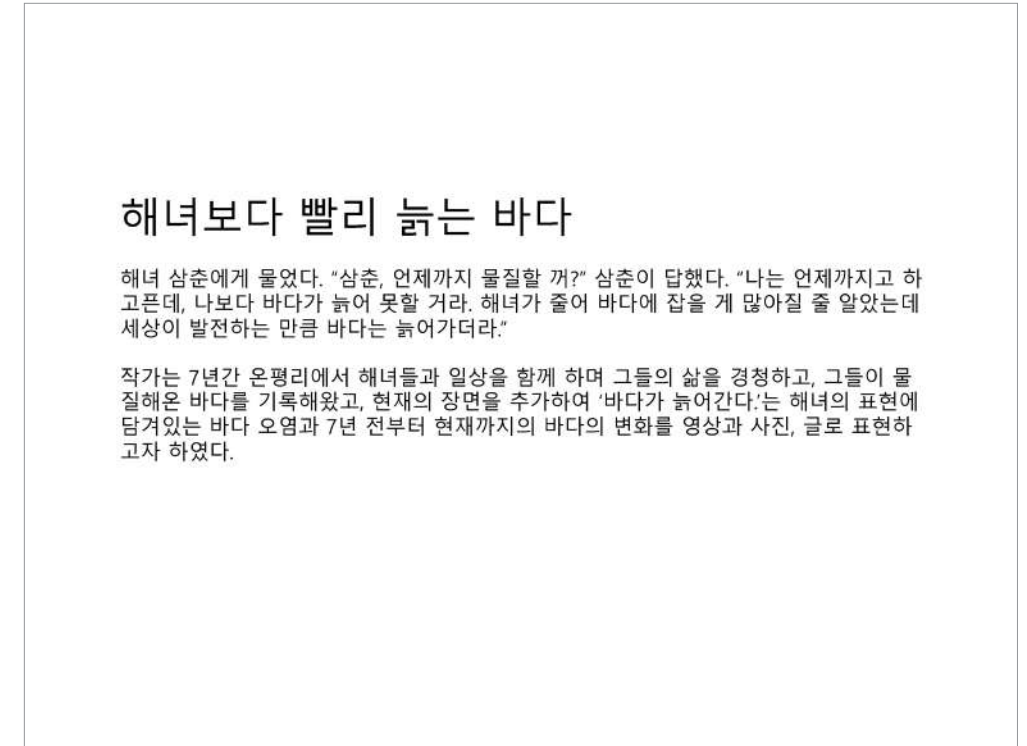
육소장. 결론



- 글로컬 시대: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 제주도 목축문화는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요소
- 목축문화는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의 산물: 초지대 보호연대

지역문화 관점에서 영상 기록과 활용

박정근
사진작가





<https://theageings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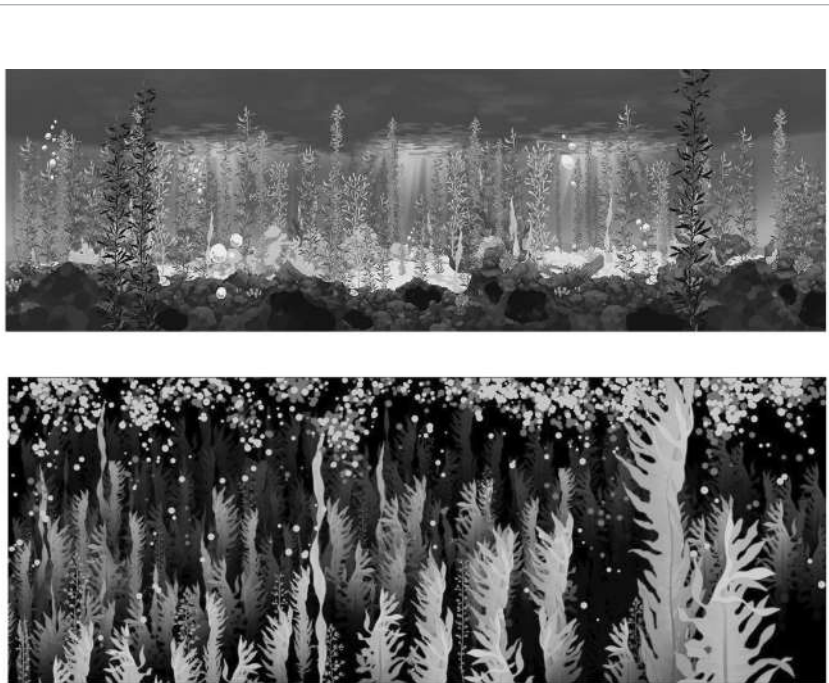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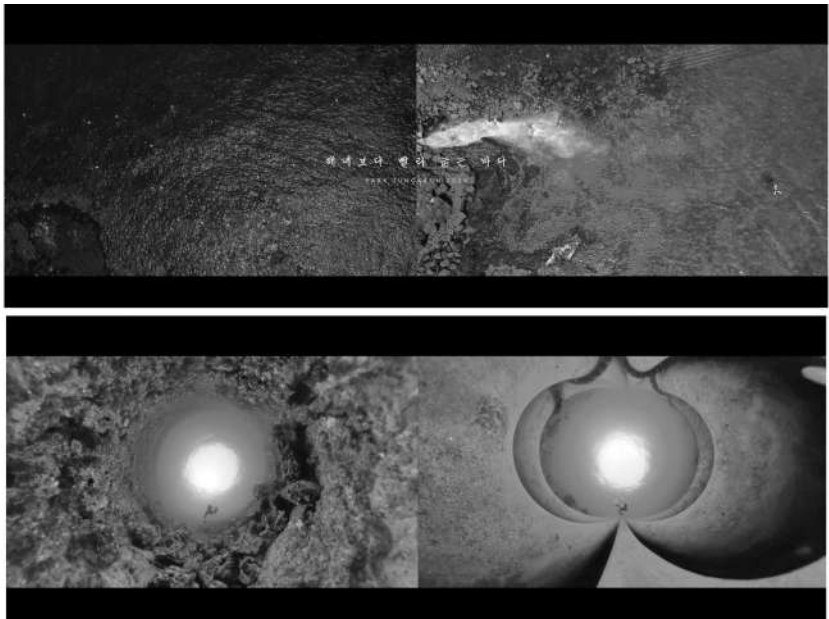


<https://theageingsea.net>



<https://theageingsea.net/>







바다, 엇갈림

제주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엇갈렸던 것 같다. 내 부모와 당신 부모의 삶의 궤적, 그 차이가 우리를 시간으로 갈랐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선상船上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갈랐다.

나는 당신을 북촌리에서 마주쳤다.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뛰기 시작하자 곧 '탕탕' 소리였다며 당신은 빈 발을 가리켰다. 그리고 바다 이야기를 꺼냈다. 난리 후 패허가 된 땅에 속한 가정의 무게가 등을 떠밀어 무턱대고 오른 배는 당신에게 가도 가도 막막하기만 한 바다만 자꾸 열려 주었다. 아는 이 하나 없이 낯도 설고 말도 선 땅을 앞에 둔 두려움이 악어의 표피와 같이 무수한 파도로 갈라 퍼지자 바다를 향한 시선의 통공은 천천히 비어갔다.

의외였다. 시공간을 가르는 오사카 행 선미船尾에 당신이 전하던 바다는 없었다. 노을은 서로 다른 질감일지언정 하늘과 바다를 거대한 용광로의 황홀한 빛으로 수직 결합하였고, 다음 날 아침 순풍에 정명한 바다는 푸르게 물든 달항아리의 가로선이 맞닿은 듯 깊고 고요했다. 눈에 비추인 바다가 마음으로 몸으로 나에게 담겨 낯선 땅을 향하면서도 이유 없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나를 나직하게 위로했다.

나는 이제 영면에 든 당신과 억겁의 세월로 엇갈렸다. 아직 바다를 곁에 두었지만 나도 곧 억겁으로 들어갈 테다. 막막함도 위로도 없는 그 곳으로.

바다, 엇갈림.

막막한 바다를 당신이 건며, 우리의 바다는 아름답다.

2018년, 북촌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조희권 할아버지, 이영애 할머니 부부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북촌에서 동년 동월 동일에 태어났던 부부의 인생사를 들었다. 북촌에서 태어났지만 삶을 꾸러가기 위해 부산, 강원도, 일본의 오사카를 오갔던 할아버지의 삶을,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고자 그 길을 따라다. 할아버지처럼 배에 올랐다. 선상 위에서 많은 날과 다양한 장소의 바다를 만났다. 그리고 2023년 겨울, 할아버지는 저 먼 곳으로 떠나셨다.







가시리 참전용사 오태경 할아버지 이야기

1931년에 가시리에서 태어난 90세 오태경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제주 43과 한국전쟁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주에는 오태경 할아버지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한 많은 분들이 계신다.

오태경 할아버지는 19살이 되던 50년 8월, 해병대에 지원하였고, 당시 제주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제주도지구 개발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도내에서 해병대 34기를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기를 놓쳐 해병대 지원은 포기하고 있던 참에 8월 28일 참전용사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그 즈음 가시리는 일본 남자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살아 남았던 15명은 모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들은 함께 삼천사국민학교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고, 바로 합격통보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육군 제 5훈련소가 있는 김녕국민학교로 4시간을 걸어갔다. 작입복과 군화를 받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에는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군인이 되었다.

8월 1일 입대식을 하고, 한 달간 훈련받은 뒤 10월 1일 할아버지는 부산으로, 전주로 훈련받으면서 미동였다. '복합사단'이라고 불리는 9사단이 창설되었고, 제주 출신들이 그 주축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4사단 30연대 소중수로 배치되었고, 봉화군 중앙면 태백산맥 쪽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 처음으로 중을 보았고 하나 굶어 떨어져 중대가 학살되다 계속 걸었다. 무서워 걸었다. 걸으면서 중을 계속 보았던 기억이 할아버지의 전투 첫 경험이었다.

그 이후 전투는 여러 번에 걸쳐 계속 되었고, 역시 밤에 중이와 오른쪽 가슴을 수지와 할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거두 넘겼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무심대는 생각조차도 할지 알지 못했다. 무서우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니깐, 눈앞에 적의 요격면 무조건 적을 죽여버린다는 생각만 했다. 포 죽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군인생활의 고된한 생활의 숙련만이 아니었다. 전투가 아닌 생활은 일상대로 행하였다. 국을 것 제대로 본 적도, 양을 것 제대로 본 적도, 어디서 노조 받은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알고 두서지는 조국병을 죽여야 했고, 미군에 없다. 내리는 한 짐바를 안아와 줘서, 양양하는 삶대로 복종해야 했다. 폭탄이 폭발하는 경우도 산간지역의 주둔한 미군에게서,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주 출신 군인들은 더욱 힘들었다. 주위에도 많은 미군이 폭음을 있었고, 음탕으로 소귀학, 발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민간인들에 관하여 보시주는 보리밥 한 공기 두은 통을 앞에서 도착했기때 아직도 녹여가며 들어박여야 했다.

인간에 대한 애도와 전투는 계속 되었다. 할아버지도 심한 산기면에서 할아버지는 원순에 수류탄을 맞았다. 1개월 동안 지료를 받고 푸대로 복귀했지만,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폭격 후에도 전투는 이어졌고, 51년 3월, 오른쪽 다리에 적군의 총알이 되었다. 다행히 손상 위상만이 알려와 치료해주었고,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결국 7월 당여제대 해고. 원으로 돌아왔다. 함께 참전한 마을 사람들 15명 중에는 열 사람이 죽고, 다섯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돌아온 할아버지는 마을을 지키고,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내와 연애해 23살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 셋과 딸 셋, 6남매를 두었다. 가난이 많았지만 생활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만큼은 케를라 먹여자는 생각으로 조, 고래, 고구마, 유채 등 농사를 열심히 지어 먹고 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결혼을 하고, 이제는 손자들도 생명이 되었다. 아내는 2013년에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땅 가시리에서 살고 계신다. 67세에 미국에 가 43 중연대 하고, 8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리 43 해설사로 활동하시며,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과 마을의 43 경험을 전하는 중이다.

자식들 모두 편안하게 길병 있어 잘 살고, 손자가 심해 일 하며, 그 자손들이 모두 모이면 고향에 행복하라는 오태경 할아버지. 행로는 사진첩과 앨범 속 손자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자랑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할아버지의 웃음 속에 담긴 굴곡진 삶을 읽는다.



예미산_2021_Pigment print_140x100cm_박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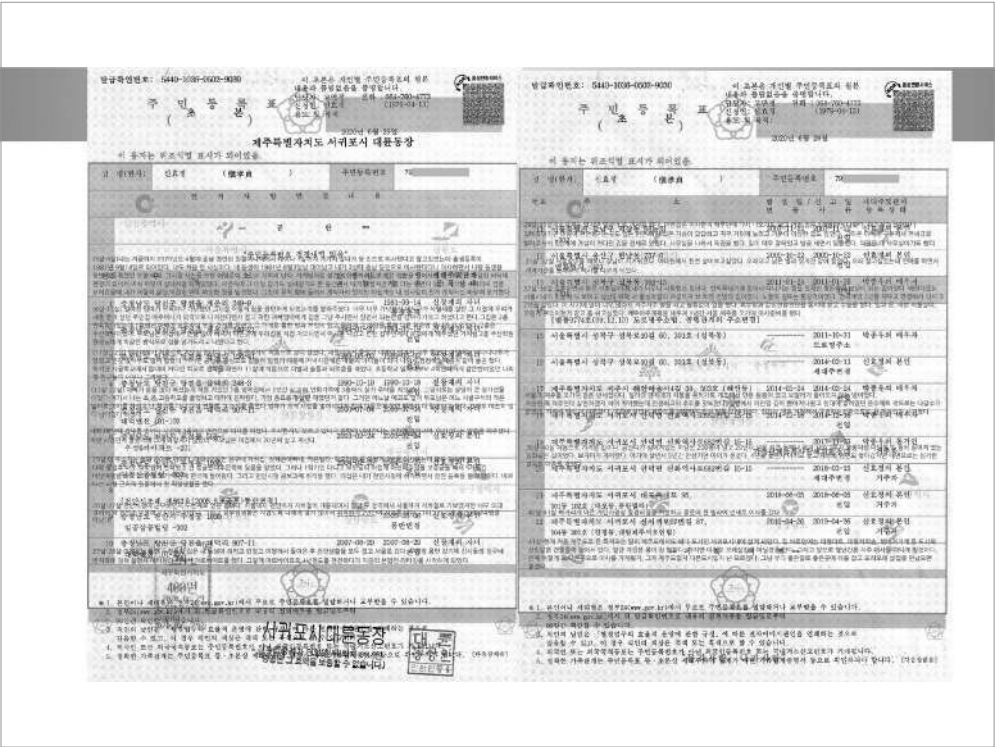
옛가락과 담배연기

가시리용사 오태경_2021_Pigment print_140x100cm_박정근











○ 스마트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들

1. 가장 기본적인 사진촬영 기능
2. 동영상 촬영 기능
3. 파노라마와 같은 편리한 기능
4. 배경 흐림, 조명효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사진 기능
5. DSLR같이 여러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적 기능
6. 어두울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래시

이와 같이 많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카메라

좋은 사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격자선 활용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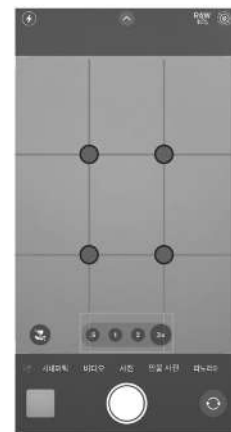
주 피사체를 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시켜 촬영하면 안정된 구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다양한 화각 활용하기 :

최근 스마트폰은 여러개의 렌즈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렌즈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줌은 화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

수직 수평 맞추기 :

격자선을 활용하여 맞추거나 수평계 설정을 켜서 촬영시 활용한다면 훨씬 퀄리티가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 스마트폰 카메라

수직, 수평의 중요성



전



후

○ 스마트폰 카메라

격자의 교차점 이용하기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등분하여 선을 그으면 교차점이 4개 나온다. 그 점 위에 대상이 위치하도록 할 경우 안정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사진적 안정감이 생기고 구조적으로도 훌륭한 사진을 건질 수 있으며, 시선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카메라

앵글을 변경하기

같은 사진을 촬영을 하여도 앵글을 바꾸는 것 만
으로 사진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가로 앵글



세로 앵글

○ 스마트폰 카메라

원근감과 소실점의 활용

인물 뒤에 소실점을 배치하여 원근감을 통한
사진의 공간감을 표현하여, 안정된 구도를 유
지하게 한다.

사진적으로 시선의 흐름을 잘 느낄 수 있다.



소실점 위에 인물을 배
치

○ 스마트폰 카메라

팬포커스로 풍경사진을 촬영하기

아웃포커스의 반대개념으로 조리개를 조여
사진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전경, 중경, 배경 모두 초점을 맞추며, 실제 눈
으로 보이는 것 같은 사실감을 얻을 수 있다.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김보향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제주대학교 김 보 향



1. 구술채록의 개념과 가치
2. 구술채록에서 언어
3. 구술채록 실행 방법
4. 제주어 구술채록의 실제

구술채록

- ✓ 구술채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지식, 이야기, 역사, 신화 등을 기록하는 작업.
- ✓ 구술채록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방법.
- ✓ 글로 기록된 문서나 자료가 아닌, 생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기록 방법.

구술채록의 가치

- ✓ 역사적 기록: 구술채록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 생각,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전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세밀한 정보들을 보존할 수 있음.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재현함.
- ✓ 문화 보존: 구술을 통해 전통적인 이야기, 민속, 언어 등 문화적 자원을 보존. **구술채록은 고유한 지역문화와 언어를 기록하는 중요한 도구.**
- ✓ 개인적 이야기의 전승: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가 역사에 남을 수 있음.
- ✓ 구술채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풀어내는 중요한 과정. 언어나 문화, 개인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



1953년 한동리 앞바다

몸에 들어 심보 해 그자다
우리 살림 사느기 일에도 배가 오르면, 그것도 다져 스물네에다, 우리 큰난 온 난 때에
그 배가 저, 기다 오란 걸어졌지 한다. 그것도 알아서면 뭐 할 거 아니가게, 그것도 알아서면 우
리 한동 돈 부제 켈 걸, 월장 사름을 알아 오랑 그 배에 탕기는 사름들 도프줄, 닷줄, 닷줄만 끈
어 갖주. 그 소꿉에 막 술쟁을 신 거 알아서? 어디 미국사 시경 가던 것산디 왜국 배난이. 세렌
현 배라. 왜국 배가 오란 탁 걸어지난 꼬막도 못 허영 사난에 혼 삼 일만이 이제 그 왜국 배가 저
먼 바당에 오랑 세완에 그 뱃마로 오랑 사름들을 시켜 가는 걸 배났어. 시켜 가고 그 배에 물건은
그냥 오고생이 내분 저라. 내 부난 일주일 댜난 셋넷름이 불영 막 부수당질 현 거 아니가. 우리
동성이 오란이 아이고, 저디 술쟁이 그냥 미삭이 올랐수엔, 비릿질과 그 반빌레 새에 막 밀려수엔
렌 간 보난 셔? 가이 집이 오랑 굴아넣 가는 새이 그 비릿질 동네 사름들은 그 성담 안터레 막
담아 났. 근배덜은 부제덜 뻬주.
(비릿질이 어디, 월정 쪽?)
아니, 비릿질이엔 현 거 우리 한동 저 탈의장 갖아진 디가 비릿질이엔 한다게. 그리 서서이 서
서이 배 안에, 배가 영 휘청 뒤집어지난 배 안에 사이다 켜. 맥주 켜, 그 높은 사름덜 먹는 그 경
중 그런 것덜 막 담아진 배. 경허난 세멘으로 짓은 배난 세멘 영 해연에 세멘으로 우일로 막 짓은



제주 사람들의 일본 밀항 농의 등록²⁸에 사진 부패서 조선적, 북송 사건

(여기 왕 등록은 언제쯤 얻었수과?)
등록은 그때 온 때 거기 아노²⁹ 권당이 거기서!
우에 구라이³⁰ 사름이 돌아가 부니까 그 사름, 농으
놈의 이름으로 살단 나중에 바뀐. 나중에 자기 이름
(아, 그럼 왕 얼마 잊었 등록은 멘들앙?)
응, 그자 사진만 부렸어. 그 등록에,
(그럼 지내기는 편해신제?)
으, 제도 말 몰르고, 뭐 말을 모르고 그자 그런 거
(그 등록에 이름이 뭐랏수과?)

1. 그던 금은다라엔 해났어
-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2. 문지 가지면 나도 가키며
- 도항과 이후 초기 생활
3. 엄 형 사건 죄어도 먹들 건 맞아
- 결혼과 출산
4. 들어왔어들서 미상일 하고
- 광복 활동
5. 조선인가 한국인가 것도 난 몰른다
- 남편의 종전 활동
6. 나도 집 풀양 북선 가젠 한다
- 남과 북의 사람들
7. 나 일름으로 등록 멘들엔
- 일본 사회에 정착
8. 지내남으로 일랑 학교 가고
- 자녀 교육
9. 제서할 중도 몰르고
- 생활 문화
10. 이제난 아내 살아난 디도 강 바치고
- 고향 방문
11. 고생에도 먹영 살아지고 현 게 이 가플 허난이지
- 현재 생활



구술 채록에서 언어

구술채록에서 언어

- ✓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 세계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언어를 통해 한 사회의 사고방식, 규범, 역사적 경험 등이 드러남.
- ✓ 구술채록은 문화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 특정 단어나 구절이 특정 문화의 중요 개념이나 관습을 반영할 수 있음.
- ✓ 구술채록을 통해 우리는 그 사회의 역사와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가 어떻게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존하는지 알 수 있음.
- ✓ 언어는 구술채록을 통해 세대 간 지식 전달의 주요 수단이 되며, 구술로 전달되는 이야기나 전통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함.

구술채록에서 언어



구술채록에서 언어의 중요성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는 도구

언어는 그 자체로 특정 문화와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함.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감정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특정 문화에서는 자연이나 가족, 신성한 존재와 관련된 특별한 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구술채록을 통해 기록되며, 그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도움.

정체성과 연결된 언어

언어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 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그 언어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역사를 공유하며, 구술을 통해 전해지는 언어적 표현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구술채록에서 언어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세대 간 지식의 전달을 돕는 매개체로 기능.

구술채록에서 언어의 중요성

언어와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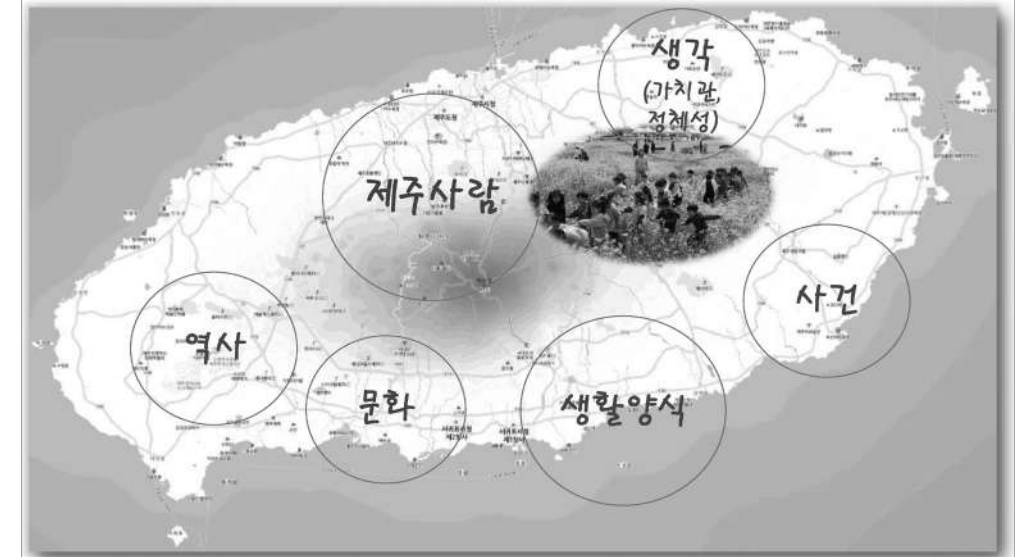
구술채록은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적 경험을 기록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언어는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역할. 언어는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 그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줌. 구술로 전달되는 이야기 속의 언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경험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함께 담고 있음.

언어에는 고유한 뉘앙스와 맥락이 존재. 한 단어가 다른 언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술채록에서 언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 구술 채록자는 언어의 정확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 담긴 감정이나 사회적 맥락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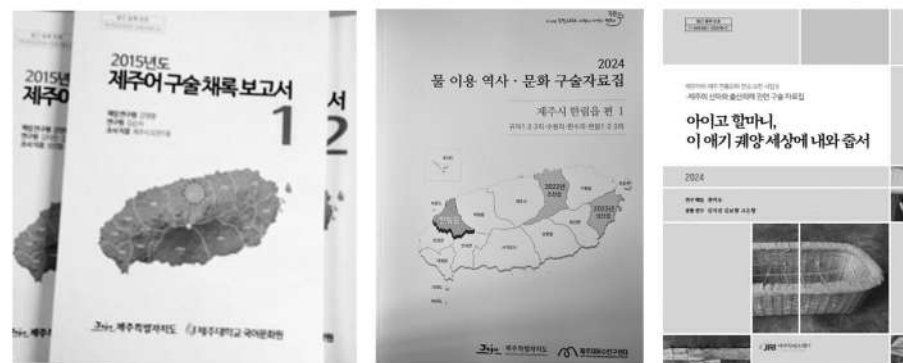
구술채록에서 언어의 중요성

사라지는 언어의 보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술채록은 언어 보존의 중요한 수단. 방언 등 소수 언어의 경우, 구술 채록을 통해 그 언어의 단어나 표현들이 기록되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음. 이런 언어들은 특정 문화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로 작용하며, 그 언어가 사라지면 해당 문화의 일부도 사라질 위험이 커짐.



제주어 구술채록



제주어 구술채록의 의의

언어의 보존

제주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언어가 위기에 처한 상황. 제주어 구술채록은 이러한 언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주어의 문헌적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제주어 구술채록을 통해 제주어의 단어, 표현, 문법 등을 보존하고, 제주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음.

언어의 전승을 위한 작업

제주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술 채록을 통해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언어 전승을 위한 중요한 작업.

제주어의 언어학적 연구 자료

제주어는 한국어의 방언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언어학적인 연구에서도 중요한 대상이 됨. 구술채록을 통해 제주어의 음운,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기록함으로써, 제주어의 구조적 분석이 가능. 이러한 자료는 방언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주어 구술채록의 의의

문화적 유산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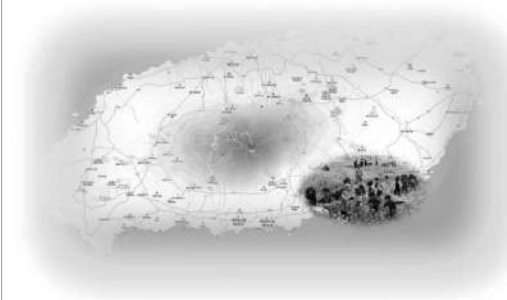
제주어는 단순히 언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 구술 채록을 통해 제주어로 전해지는 이야기, 민속, 전통, 신화 등은 제주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주어에 담긴 전통적인 가치관, 신화,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 제주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

제주어 구술채록은 단순한 언어 기록을 넘어, 제주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 이를 통해 제주어의 보존, 문화 유산의 계승, 사회적 관계의 이해, 언어학적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제주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은 제주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구술채록 실행 방법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4.3사건

해녀의 삶

전문 직업인(탕건장, 침바치, 바농와치,
심방, 돌챙이, 불미쟁이.....)

마을제, 마을계

전통 생활 도구

물 이용 생활사

통과의례, 세시풍속

생애사

구술채록 준비

- ✓ 주제 선정: 역사적 사건, 문화적 전통 등 구술채록의 주제를 명확히 해야 함.
예) 제주 사람들의 전통 생활 도구, 제주 사람들의 물 생활사
- ✓ 질문지 등 준비: 주제에 맞는 질문지 구성. 구술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 대상 선정: 구술채록을 진행할 사람을 선정. 보통 경험이 풍부하고 기억력이 좋은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 됨.
- ✓ 장비 준비: 음성이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어야 함. 녹음기나 동영상 촬영 장비 등.

구술채록 진행

- ✓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질문을 잘 구성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 ✓ **인터뷰 기법**
구술자는 자신의 기억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 구술자가 생각을 잘 풀어낼 수 있게 해야. 주로 열린 질문을 사용하여 대화형식으로 진행.
- ✓ **구술자의 편안함 고려**
구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 구술자의 말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
- ✓ **비언어적 요소도 기록**
말뿐만 아니라, 구술자가 사용하는 손짓, 표정, 음성의 높낮이 등도 중요한 기록의 요소임. 이러한 비언어적 정보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음.

구술채록 자료 정리

- ✓ **녹음된 자료 정리**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여 텍스트로 옮김. 구술자가 한 말을 정확히 기록하여, 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듦.
- ✓ **편집과 분석**
수집된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어 편집하거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성을 기함.
- ✓ **자료 보관**
구술채록 자료는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보관, 관리가 필요.
디지털화된 자료는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구술채록 자료의 활용

- ✓ **학술 연구**: 구술채록 자료는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됨.
- ✓ **교육과 문화 보급**: 구술채록 자료는 문화유산으로 활용되어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교육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 **다큐멘터리 및 콘텐츠 제작**: 구술 자료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구술자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음.
- ✓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술채록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음.

구술채록 시 유의 사항

- ✓ **윤리적 고려**: 구술채록을 진행할 때는 구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 구술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함.
- ✓ **문화적 민감성**: 특정 문화나 민속적 요소를 기록할 때, 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
- ✓ **객관적 접근**: 구술자의 말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사실에 충실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다루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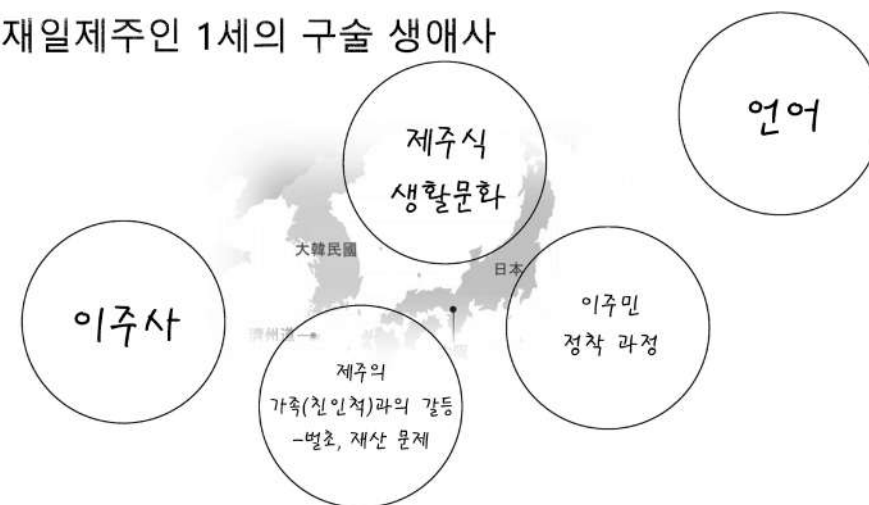


제주어 구술채록의 실제

구술 생애사

- 생애사, 살아온 이야기, 생활 문화 이야기
- 한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구술하는 것
- 개인의 인생을 있는 대로 나열해서 소개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개인의 일상적 생활 모습을 기록함

재일제주인 1세의 구술 생애사



김순기

- 1928년생
- 애월읍 하귀리 출신
- 1939년(12살) 일본으로 건너 감
- 1945년 결혼

떼어정 살은 정이 엇는 거라라

- 우린 제주 관전밭디엔 헌 디, 그리서 살아났주게
- 어느 (돌) (호)나 일본더레 오켄 허건 (돌)앙 읍서
- 나도 '가이다사' 땡겨났저
- 뱀편은 (요둑) 오누이 중이 질 우이
- 일 설렁 나오믄 눈물이 찰찰 나완
- 글은 읽어져도 원 의미 몰른덴
- 누게 싯저 허영 밀서 가면 오주기만은 알아도 오지 안헌다
- 떼어정 살은 정이 엇는 거라라
- 나랑 죽거덜랑 한국 강 물어줘이
- 옛날 할망덜 (조)손덜 무시거 뱀기젠 궤기 (훈) 점 먹지 안허연

똥 하나 둘앙 읍서

난 어땡허난 일본 와싯곤 허난 열 설쑤에, 아버지 그때 나 어린 때난 몰른디 일본 완 셔 낫주게. 일본 완 오래오래 지난 이디서 죽은, 작은어머니 만난. 어머니엔 헌 사름, 아기 엇인 어른 만난 갱헨 사느디 우리 오빠가 한국에서 장쥬 가게 뤼연. 겨난 아버지가 아들 풀게 뤼난 제쥬 들어간. 경헨 때 우리 작은어머니가 아기 엇이 난.

“가건더라 어느 똥 하나 일본더레 오켄 허건 둘앙 읍서.”

그쥬록 헨 나가 왓주게. 열두 설에.

(일본 나이로 열두 설이과, 한국 나이로 열두 설이과?)

한국 나이로. 게난 오기 전엔 한국에서, 한국에서 글을 영 영. 나 어릴 때 그땡이 학교에 땡겨주게게. ^{아노50)} 그땡이 흐쑤 어머니네가 녀넹헤난 생이라. 경허난 나가 이제 서당에, 옛날은 서당이엔 허른 귀리⁵¹⁾꺼장 막 땡주게게. 귀리꺼장 멀리. 그꺼장 삼학년꺼정 갓주게.

고맙수다

고맙수다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1

김원순

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1

- ▶ 일자 : 2025. 4. 26(토)
- ▶ 시간 : 09:00~12:00
- ▶ 장소 : 원도심 일원
- ▶ 강사 : 김원순(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 ▶ 집결 : 08:40 / 삼성혈 정문
- ▶ 주차 : 주변 무료주차장(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 가능)
- ▶ 강사 : 김원순(문화관광해설사, 시민아키비스트 3기)
- ▶ 집결 : 08:40 / 삼성혈 정문
- ▶ 주차 : 주변 무료주차장(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 가능)

■ 제 1구간

- ▶ 삼성혈 입구: 건시문, 돌하르방, 모흥골.
- ▶ 제주칼호텔 주변: 제주향교 4번째 위치, 제주여중과 여고, 제주방송국, 제주교육청, 남문파출소, 소방파출소, 마조단, 병무청, 광양당, 산지천 등

건시문: 건시문 해설과 편액 글을 쓴 주인공과 관련한 이야기

돌하르방의 기원: 1954년 김몽규 목사 때 어떤 형태로 배치했을까?

모흥골(毛興邑): 탐라국의 열리면서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

제주여중, 여고 및 제주칼호텔과 대한항공 관련한 이야기

제주향교 4번째 터-제주교육청 터, 제주방송국 터(안테나 이야기), 남문파출소, 제주소방파출소 등

마조단: 1796(정조 20)~1908년(순종 2) 산천단 산신제와 동시에 단절

선농단, 선잠단, 마조단은 3대 국제였고, 국가에서 제례비가 지원되었으며, 마조제는 제주에만 있었고 중춘(仲春) 길일을 택하여 봉행하였다.

산지천: 발원지와 중간지점 마다의 교량 명칭 등

■ 제 2구간

- ▶ 오현단 주변: 제이각, 제주성, 굴림서원, 굴림추색, 남수각, 오현단 경내, 향현사, 장수당, 구 오현중고등학교, 유배인 정병주, 한라사우나, 한주사우나, 새한병원 자리(이성종 원장), 최초 의신학교 터, 가락콧물, 럭키사진관, 럭키예식장, 사마재 터, 책판고, 최초 제주향교, 교동, 서주보 유배지.

1. 제이각: 왜군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망대) 1599년 성윤문 목사 때 장대 기능도 같

이 했다. 남쪽은 적루, 북쪽은 장대로 건축하였다.

2. **제주성:** 1411년(태종 11). 길이 4394척. 높이 11척 산지천과 병문천을 중점으로 성을 쌓았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411년 제주성 정비하였다. 최초의 연대는 알 수 없다. 1555년(명종 10) 6월 을묘왜변 때 제주성이 포위되자 1565년 12월에 곽홀 목사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 확장하였다. 성이 확장되기 전에는 음용수가 문제 되기도 하였고, 이 성은 1925~1928년까지 산지향 확장하면서 전부 허물었다.
3. **남수각:** 북수문(산지천변)과 1599년 성윤문 목사가 홍문을 설치했고 성을 확장하고 나서 제이각으로 바뀌었다. 남수각 바로 아래까지 포구였다.
4. **굴림서원:** 서원은 과거 사립학교 격이며 향교는 국립이나 지방 공립학교 볼 수 있겠다.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제향 공간이기도 하다. 오현을 모셨다.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 정온,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
5. **장수당:** 명도암 김진용이 1660년(현종 1) 이과 목사께 건의하여 건축하였다. 고득종의 집터, 고득종과 김진용 선생 이야기도 전한다.
6. **굴림추색:** 매계 이한우(1818~1888)는 도련에서 수학하였고 고향은 신촌이다. 청풍대에서 가을에 제주 성내를 보면 노랗게 익어 가는 굴이 절경이다. 성안에 동서남북과 중앙까지 5곳에 과원이 있었다.
7. **향현사:** 제향 공간으로 영곡 고득종 공과 명도암 김진용 공을 모신 사당이다. 매년 양력 10월 15일 제주 고씨와 광산 김씨 집에서 제를 모시고 있다.
8. **오현중고등학교:** 황순하 초대 이사장. 오현단에 지어서 오현고로 개교하고 1972

년 9월 화북으로 이전하였다.

9. **정병주:** 규원은 1891년(건양 1) 을미사변으로 제주로 유배 왔으며, 윤양 김윤식 등 유림들과 ‘굴원시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10. **최초 의신학교:** 1907년 최초 중등교육기관인 사립 의신학교와 관립학교인 초등교육기관(북초등교-군수 윤구동)이 개교하였다. 1910년에는 제주공립농업학교가 5년제로 개편되었고 전농로로 이전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사라지고 현대학문을 학습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1. **가락כות물:** 용출수로 한짓골 사람들과 주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였다. 가락은 중국 시경 가락에서 인용한 용어로 아름답고 늘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12. **사마재:** 1876년(고종 16)에 제주목사 백낙연이 사마재를 창건,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사마재에 모여 대과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였던 곳이다.
13. **책판고:** 향교 유생들이 공부하는 책 보관소(지금의 도서관)이다. 옷생깃골이라는 마을이다. 탐라지에 사서삼경 등 40여 종이 보관되었다고 한다.
16. **제주향교:** 1392년 최초 제주향교 터 이 일대를 교동이라고 하였다.
18. **서주보:** 양천 서주보의 적거지로 을미사변으로 제주에 유배되었고, 김윤식, 정병주와 더불어 굴원시회를 조직하였다.
19. **기타:** 한라사우나, 한주사우나, 새한병원 자리(이성종 원장), 럭키사진관, 럭키에식장 등

■ 제 3구간(중앙로 주변)

해병대사령부, 칠성대(4), 중앙로 개통, 만수당 약방, 한짓골, 정원루(김석철 목사), 금원공작소, 남문성 굽, 한평공원, 칠성대(1), 인천문화당, 광해적거지, 박씨초가, 이아, 구 도립병원(자혜의원), 녹나무, 총물당 터, 남초등학교 터, 천주교 발상지(신성학원), 소라다방, 박종실 집, 남양방승, 양관사댁, 우생당, 운향 김윤식 적거지, 외환은행, 함흥면옥, 영락교회 예배처, 한일은행, 최초 오일장 터, 최초 통신시설, 탐라성주 터, 심지다방, 대성학원, 신세계당구장

1. 해병대사령부: 한국해병대는 1949년 4월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출범하여 그해 12월 28일 제주시 원정로 조일약국 자리로 옮겨왔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 9. 15.~9. 20.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괴군 최후의 8, 9월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한 작전으로서, 맥아더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적을 몰아내고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을 세워 1950. 9. 15. 유엔 제7 합동상륙기동부대가 261척 대함대를 동원하여 미 해병대 제1사단과 한국해병대를 선두로 세계근대사에 찬연히 빛날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해병대는 북한군이 계속된 남하로 나라가 절체절명에 처하자 1950년 8월 제주도 청년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병 3, 4기(여학생 126명) 3천여 명을 제주농업학교와 모슬포에서 단기 훈련을 시킨 후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였다. 해병대 3기생은 회사원, 교사, 일반청년이 주를 이뤘고, 4기생은 학도호국단 출신들이 많았는데, 제농, 오현중, 한림중, 대정중, 제주여중 등에서 자원입대하였다.

2. 칠성도: 북두칠성 별자리 위치에서 칠성도(칠성대)가 유래가 되었다고 전한다. 칠성대(七星臺)는 옛 제주인들은 고대 탐라국시대부터 탐라 사회의 결속과 번영을 위해 북두칠성을 섬기며 제주 성안 일곱 곳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를 올렸다. 이 칠성대는 1530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칠성도는 주성 안에 있고 돌과 흙으

로 쌓은 옛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확인된 위치는 향교전(앞생깃골), 향후동(뒷생깃골), 외전동(향사당 주변), 두목동(관덕정 주변)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칠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제1도 天樞星: 남문성 정원루(취)

제2도 天璇星: 향사당 서쪽(소, 돼지)

제3도 天璣星: 관덕정 로베로호텔 앞(개와 호랑이)

제4도 天權星: 중앙로터리 → 남문로 방향 50m지점 왼쪽(토끼와 닭)

제5도 玉衡星: 중앙로터리 → 탐동로 방향 50m지점 왼쪽(용, 원숭이)

제6도 開陽星: 칠성동로26번 골목 안쪽(뱀과 양)

제7도 搖光星: 탐동광장 지하공영주차장 입구(말)

3. 중앙로 개통: 1971년 쯤 개통되었고 그 이전에는 대도호가 남문통과 오현단으로 나뉘 있었다. 하귀로 가는 버스는 남문통으로, 조천으로 가는 버스는 오현단으로 운행하다 중앙로가 개통되면서 오현단과 남문로는 좁은 옛길이 되었다.

4. 만수당 약방(후일 약국): 1990년경까지 만수당약국(고 장용모 사장)이 있었으며, 고약전문 약방으로 유명하였다.

5. 한짓골: ‘漢’은 ‘크다’이고 짓은 ‘道’를 뜻한다. 한짓골은 큰길에 있는 마을이다. 관덕정에서 남문로터리로 이어지는 길로 조선시대 길인데, 2024년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덮었다. 제주에 조선시대 길이 확인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강창화 고고학 박사 탐에서 발굴조사)

5. 정원루: 남문로터리에서 구 남문통 길 관덕정 방향으로 50m 경에 있다. 남문이 있던 장소이며 초루에 북을 걸어 위험할 시 북을 쳐 알렸고,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1512년(중종 7) 김석철 목사가 제주 성을 개축하고 초루를 세워 정원루라 하였

다. 1910년 일제 때 훼손되었다.

6. 금원공작소와 나문성 곁: 옛 금원공작소 골목으로 진입하면 왼편에 성 곁이 남아 있고 안내판도 세워져 있다. 남문성은 1925년 산지향 매립 시 철거되어 골재로 썼다.

7. 광해군 적거지: 광해군(1575~1641)은 조선 제15대 임금으로(재위 기간 1608. 2.~1623. 3.) 1623년 인조반정 사건으로 그해 3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637년 제주도로 이배되었으며 1641년에 제주에서 돌아가셨다.

8. 이아: 목사 집무처는 상아(上衙)이며 관관 집무처는 이아(貳衙)로서 두 번째 관청이라는 의미다. 일제 때 자혜의원이 있었고 해방 후 독립병원이었으며 지금은 제주대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9. 윤양 김윤식: 구한말(1898년) 갑오개혁을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정병주, 서주보 등과 굴원시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10. 기타 관아명칭

- 좌우위랑: 무기, 곡식 등을 보관했던 창고이자 목관아 울타리 역할
- 찰미헌: 관관 집무실 동헌
- 총물당: 비상식량 보관창고(진상품, 전쟁과 가뭄에 대비한 창고)
- 사창터:구 시청 곡식 창고(관원들 먹는 식량)
- 찬주헌: 위급 시 관관 지휘소
- 창신타: 갓바치들(가족신 제작) 살던 동네
- 옥터: 감옥이 있던 터(천민들이 살았던 고을)
- 객사터: 영주관 터(망궐례 및 관료들 출장 시 숙소)

■ 제 4구간(칠성통)

칠성골 마을 이야기. 강평국, 동백다방(계용묵, 박목월), 중앙극장, 적산가옥(서북청년단 사무실), 최익현 적거지, 감옥 터(창신골), 칠성대(5, 6), 아리랑백화점, 시공사, 우암 송시열 적거지.

1. 칠성통: 탐라성주 관리 하에 칠성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9개 자연마을이 있었다.

2. 강평국: 본명 강연국(1900~1933), 신성학원(신성여고) 1회 졸업 후 1915년 경성여고고 입학. 서대문형무소 옥에서 만세를 부른 독립애국지사. 제주 최초 여교사 자격증 취득. 고수선(운주당 할망), 최초 여성 교육감 최정숙 이야기 등

3. 동백다방: 제주 최초 다방(1948년). 1951년 1월 4일 피난민으로 제주에 온 계용묵, 박목월 아지트로 활용(우생당 고 고순하 사장 이야기)

4. 최익현 적거지: 한말 대유학자이자 항일투쟁에 앞장선 인물로, 흥선대원군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1868년(고종 5) 사헌부장령으로서 스승 이항로(李恒老, 1792~1868)와 더불어 흥선대원군의 1868년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재정 파탄 등의 실정을 상소하여 관직이 삭탈되어 제주로 유배(1873~1875) 되었으며 불의를 참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주에서 해배 되었을 때 한라산 등정을 하여 <유한라산기>를 남기고 표선면 가시리에 들러서 청주 한씨 사당 앞에서 비석 글을 쓰기도 하였다. 오라 연미마을 경주이씨 집안 분들을 제자로 두기도 하였다. 1874년(고종 11) 3월 27일 이기온과 함께 한라산에 등산하여 두루 명승을 구경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본과의 통상 조약과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항일 의병 운동을 촉구하며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

켰으나, 전라북도 순창에서 패하여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 주는 음식은 모두 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끝내 거부하고 제자에게 유소(遺疏)를 구술해 남기고 아사순국(餓死殉國) 하였다.

5. 우암 송시열 적거지: 우암을 송자(松子)라고 칭하기도 한다.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은 1689년(숙종 15)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의 유배기간은 불과 3개월에 불과하지만, 굴림서원과 산지천에 있는 경천암에 제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나이 83세에 제주도로 유배된 송시열은 약 100여 일 동안 산짓골 윤계득의 집을 적소로 정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남인들이 그를 다시 국문하도록 요청하여 서울로 압송하던 중 6월 7일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그 후 1694년(숙종 20)에 서인이 집권하자 관직이 복구되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제주 유생 김성우 등은 1695년(숙종 21) 2월에 상소하여 송시열을 굴림서원에 배향하였다. 지금 오현단 서쪽 암벽에 새겨져 있는 ‘증주벽립’의 필적은 송시열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배 일번지’ 제주에는 각종 사화와 당쟁에 연루돼 유배 온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제주의 문화와 사상, 교육 정신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제주도에 유배되었거나 관리로 파견된 사람 가운데 다섯을 가려 뽑아 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단이 오현단(五賢壇)이다. 이곳에는 충암 김정(沖菴 金淨, 1486~1520),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 규암 송인수(圭庵 宋麟壽, 1487~1547),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등 5현으로 꼽히는 다섯 사람의 위패를 상징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 제 5구간(산지천 일원)

산지천변 교량, 이기풍 선교사 예배 터, 제주 최초 숙박업소 송천여관, 혜은이 노래비(김성택 부친 이야기). 제주 최초 영화관 창심관, 제일은행, 해병탑

- 1. 산지천의 교량:** 산지천은 관음사 뒷산 아미봉에서 발원하였다. 남광초등학교 인근 교량. 남광교-동광양교-삼성교-남수각-동문교-북성교-광제교-산지교-용진교-이름이 없는 다리가 가장 끝에 있는데 2024년 개통하였다.
- 2. 이기풍 선교사 기도처:** 이기풍 선교사는 1908년 제주에 도착하여 산지천 변에 기도처를 잡고 선교 활동을 하다 서문통 성내교회를 짓고(완공 1915년), 1923년경까지 제주도에 계셨다.
- 3. 송천여관:** 제주 최초여관으로 일본인이 경영하고 1925년부터 산지항이 확장되고 일본인과 내국인들이 관문이 되어 해방 전까지 경영하였다.
- 4. 혜은이 노래비:** 혜은이의 본명은 김승주(1954년 8월생). 부친은 김성택. 동문다리 옆에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아버지는 평양숭실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제주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계셨다. 당시 선생 월급이 너무 적다보니 무성영화 시절이라 극장에 변사로 활동하다가 유성영화(1959년경)가 시작되면서 유랑극단을 운영하게 되고 1961년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

● 제주시내 극장의 변천사

- 1) 창심관:** 제주의 최초 극장은 동문로터리 구 제일은행 자리인 ‘창심관(暢心館)’이다. 창심관은 1927~1929년(3년 정도 1926~1928년이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가와노 마사카즈[河野正一]라는 일본인이 경영했던 제주 지역 최초의 극장이다.

1926~1928년 경 개관한 창심관은 영화 상설관이 아니라 악단이나 유랑 극단도 무대에 올랐다고 하여 창심관(暢心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창심관에서는 무성영화와 유랑극단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까닭은 기상 악화로 육지에서 배편이 막히면 활동사진이라 불렀던 무성영화 필름을 구할 길이 없어 창심관은 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는 유랑극단이 공연했기 때문이다. 유랑극단의 공연은 매우 인기가 좋았다. 이러한 창심관이 1929년도 영사기사(유명 작곡가 이봉룡)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됨에 따라 제주 지역은 1944년 제주 극장이 설립될 때까지 노천극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대한민국 시대까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1916~1965)이 처음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른 곳도 이 창심관이다. 제주 출신 영화평론가 김종원 씨에 따르면 제주는 이난영의 재능을 발견하고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장소라고 한다. 이난영은 11살 때 아버지의 술주정을 견디지 못해 오빠 이봉룡의 도움으로 제주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왔고, 당시 어머니는 제주읍에서 극장을 경영하고 있는 일본인 집의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이난영은 주인집에 있던 유성기를 듣고 따라 부르곤 했는데, 일본인 사장 가와노씨가 이난영의 재능을 알아보곤 무대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는 막간 가수로 무대에 서게 한 것이다. 이 시기는 1926년(192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난영을 뒤따라 오빠 이봉룡도 제주에 들어와 면허증은 없었지만, 창심관에서 제주 최초 영사기사로 활동했는데 영사기를 잘못 만져 목조건물인 창심관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이봉룡은 물으로 도망쳤지만 향후 ‘목포는 항구다’ 등을 작곡하는 유명 작곡가로 변신하였다.

2) 구 제주극장: 1943년 일본식 영어 발음 조일구락부(조일클럽)로 출범하여 각종 집회를 하던 장소였으나 1948년 제주극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화극장으로 운영하다 1970년 현대극장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제주극장 당시 무성영화를 상영하였고 번사는 가수 혜은이 아버지 김성택 씨였다. 1959년경(추정) 유성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들 입장도 단체로 다니곤 하였다.

3) 중앙극장(명칭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외래어로 변경됨): 1956년 개관한 구 중앙극장(1969년 아세아극장)이 1979년 막을 내렸다. 칠성로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도 건물은 남았고 옷가게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며 3층 정도 되는 큰 건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극장 있던 곳이 감옥소가 있었고 주변은 ‘창신골’이라는 마을인데, 창신은 가축신을 말하고 동물들 가축을 갖고 말안장, 신발 등 가죽제품을 만들었다. 이 일대를 ‘검정목골’이라고도 한다. 검정은 가죽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불을 피워 철판 위에서 작업을 하여 검정색으로 변하였다고 해서 검정목골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감옥소(監獄所)가 있어 ‘옥’길로도 부르고 있다. 주로 천민들이 살았으며 후일 철거할 때 일제 때에는 일본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칠성통은 그야말로 일본인 상가로 번성하였다.

4) 제일극장: 1961년 개관한 구 제일극장은 1992년 막을 내렸고 제1회 ‘탐라미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문화예술제를 개최한 장소이다. 현대식 극장으로 제주시민이라면 제일극장 영화 보는 것이 로망이기도 하였다. 제1회 탐라미인 선발대회에서는 고려진(1948년생) 씨가 진에 뽑혔다. 고려진 씨는 1962년 KBS제주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1964년 TBS개국과 함께 스카우트 되어 회사를 옮긴 후 이곳에서 1987년까지 일했다. 아나운서 시절 ‘가로수를 누비며’, ‘운전사 노래자랑’, ‘6대 가수쇼’ 등 프로그램에서 피꼬리처럼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1960~1970년대 브라운관을 주름잡았다. 2020년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5) 제주시민회관: 1963년 개관. 제일극장에서 하던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고 행사 없는 주중에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영화는 1980년 초에 철수하고 각종 예술제나 실내체육관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완전히 철수하고 주상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려고 공사 중이다.

6) 대한극장: 1964년 개관한 구 대한극장은 1969년 코리아극장으로 개칭하고 2009년 막을 내리고 무료영화 상영을 종종 실행하다 지금은 다중이용 시설로 활용중인데 영화 상영도 가능하다. 최초의 사장은 광양에 살았는데 시내버스 ‘한일

여객' 회사를 운영한 한재옥 사장인데 후일 제주시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동양극장을 먼저 운영하다가 팔고 대한극장만 운영하였다.

7) **동양극장:** 1965년 동문시장 2층에서 개관한 구 동양극장은 2000년 시네하우스로 개칭하고 2005년 막을 내렸다.

5. **제일은행 터:** 제일은행이 언제 제주에 들어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은행들이 통합하면서 제일은행이라는 은행명이 없어졌다.

6. **해병혼탑:** 동문로터리에 삼각형 형태의 하얀 기둥으로 세워진 해병혼탑이 있다. 최초에 탑은 1960년 4월에 건립하였고 현재 것은 2010년 9월 1일에 설치된 것이다. 해병혼탑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수복작전, 도솔산전투 등에서 활약하고 전사한 제주 출신 해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중앙 글씨는 건축사 김석윤 사장 부친 김광추 선생의 필적이다. '魂'은 '넋 혼'자로, 발전 자 위 비김 '점'이 없는 이유는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을 달래기 위하여 뺐다고 한다. 장시영 의사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이서근, 고철수, 문상률, 김형근 위원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도 원도심 2

문동철

제주향토역사 연구위원, 시민아키비스트 2기

현장 강의 및 답사

- 제주시 원도심 2

(세월을 거슬러 제주읍성을 글로 그리다)

288년 전 구사당 김락행의 제주읍성 기행과 183년 전 이원조 목사가 제주 부임시 동행한 형 이원호가 쓴 탐라일기를 비롯해서 옛 기록에 표현된 제주읍성의 모습과 그림으로 보는 근현대 성안 모습 등 역사와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다.

〈탐방경로〉

관덕정 → 제주목관아 → 사창 터 → 창뒗 골 → 영뒗골 → 영주관 터 → 탐라총관부 터 → 성급길 → 진서루 터 → 서문웅성 터 → 최초 성안교회 터 → 성내교회 → 현대극장 터 → 향사당 → 이아·찰·미현 터 → 총물당 터 → 박관사 초가 → 남문 정원루 터 → 제주읍성 → 굴림서원 → 장수당 → 조두석(오현단) → 향현사 → 제이각·청풍대 → 을묘왜변격전지 → 비석거리 → 운주당지구 → 연무정 → 연상루 터 → 복수구(죽서루) 터 등

◇ 구사당(九思堂) 김락행(金樂行)은 누구?

구사당의 자는 간부(艮夫), 초명(初名)은 진행(晉行), 초자(初字)는 퇴보(退甫)이다. 자는 초자인 퇴보로 행세(行世)하였다. 호는 구사당(九思堂)이다. 구사당은 겸손하여 평소에 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졸후(卒後) 그의 장서에 ‘구사당’이란 도장(圖章)이 찍혔으므로 사림(士林)에서 구사당이라 불렀다.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의 장자이다. 아버지의 명으로 밀암(密庵) 이재(李裁)의 문하에 들어가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 등 성리서(性理書)를 강문(講問)하였는데 사문(師門)의 추허(推許)를 받았다. 영조 13년(1737) 홍문관 교리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사도세자의 추촌(推薦) 문제로 그의 스승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신변(伸辨)하다가 무고를 받고 이해로(李海老), 신헌(申憲) 등의 탄핵으로 의금부 옥에 잡혀 들어가서 누차(屢次)의 형신(刑訊)을 받았다. 이에 구사당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의금부 옥문 밖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손으로 땅을 후벼 파서 열손가락이 모두 피가 흘렀다. 구사당의 효심에 감동한 종로 시정의 사람들이 와서 구해주곤 하였다. 옥졸들도 ‘우리들도 사람인데 어찌 차마 법을 범한 것 때문에 효자에게 인정을 쓰지 않겠는가’ 하니 원수(怨讐)로 여기던 사람들도 감동하여 효자라고 칭하였다.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은 1735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이 되었고, 이어서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김성탁은 1737년 이현일의 신원소(伸冤疏)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구금 5개월 만에 극형을 면하고 정의현(旌義縣)에 유배되었다가 전라남도 광양으로 이배되어 배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구사당 김낙행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 유배지에 당도해서 손수 음식을 드리며 아버지의 거처에 불편이 없게 하고 독서 강질하며 간간이 시를 읊는 등 모든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제주의 성 모습을 기록해 돌아와서 아버지께 올리다[記濟州城形 歸呈大人(기제주성형 귀정대인)]’글이 구사당 제1집에 실려 있으며, 복화한라산가(伏和漢拏山歌)를 읊었는데 제산(霽山)이 이에 화답하여 화진아탐라오가(和晉我耽羅鳥歌)를 지었는데 霽山集 1卷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김낙행은 제주로 유배 온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까지 따라가 1년 남짓 같이 지낸다. 이때 제주성 정경을 장편 시로 남겼는데, 18세기 중엽 제주읍성 내

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칠언절구 한시이다.



記濟州城形 歸呈大人(기제주성형 귀정대인)

別島堡西莽蒼地(별도보서망창지) 외딴섬 보루 서쪽의 아득히 바라보이는 땅
漢挈北臂垂海流(한라북배수해류) 한라산 북쪽 팔뚝이 바다로 드리워진 곳에
平岡環合中開局(평강환합중개국) 평평한 언덕 둘러싸고 중간에 국면이 열리니
乃有千年古雄州(내유천년고웅주) 이곳에 바로 천 년 된 웅장한 고을이 있다네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城下枳林何茂密(성하지림하무밀) 성벽 아래의 가시나무숲은 너무도 무성하고
城上飛薨列譙樓(성상비맹례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板橋駕塹通人馬(판교가참통인마) 판교를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하니

兩邊木偶鐵索鉤(랑변목우철색구) 양쪽의 나무인형에 쇠사슬 갈고리 감겨있네
登城引索橋拆開(등성인색교탁개) 성에 올라 쇠사슬 당기면 판교가 설치되니
蓋云緩急備外憂(개운완급비외우) 급변이 있을 때에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네
曲堞回複鐵關壯(곡첩회복철관장) 굽은 성첩 겹겹이 둘렀고 쇠 빗장 웅장하니
陸地州郡鮮此儔(육지주군선차주) 육지의 고을이라도 이와 짝할 곳 드무리라
完城隔海相表裏(완성격해상표리) 바다 너머 완벽한 성곽과 서로 안팎이 되니
國家政不憂南陬(국가정불우남추) 국가가 정히 남쪽 변방을 걱정하지 않겠네
北岸石門虹霓臥(북안석문홍예와) 북쪽 언덕의 석문이 무지개처럼 누웠으니
海水走入一城溝(해수주입일성구) 바닷물이 달려와서 성의 도랑에 들어오네
城南地勢依山高(성남지세의산고) 성 남쪽의 땅 형세는 산에 기대어 높으니
歷歷城形坐可收(역역성형좌가수) 또렷한 성의 형세는 앉아서도 알 수 있네
門外數里演武堂(문외수리연무당) 성문 밖의 몇 리쯤에 연무당이 있으니
莫是是處閱操不(막시시처열조불) 이곳이 바로 훈련하던 장소가 아니던가
城外未暇周覽遍(성외미가주람편) 성 밖의 풍경은 두루 돌아볼 겨를 없으니
且就城裏一二求(차취성이일이구) 우선 성 안에 나아가서 하나 둘 찾아보리라
觀德亭在衢路上(관덕정재구로상) 관덕정이 큰 길거리 가에 있고
亭前百步懸鵠嶠(정전백보현곡후) 관덕정 앞 백 보 밖에 과녁이 내걸렸네
武庫西畔布政司(무고서반포정사) 무기고 서쪽은 정사를 펼치는 관아이니
其中營舍深而幽(기중영사심이유) 그 가운데 병영 건물은 깊고도 그윽하도다
重門繚垣迷所向(중문료원미소향) 겹겹 문과 에워싼 담장은 길을 헤매게 하고
朱碧玲瓏盪人眸(주벽영롱탕인모) 영롱한 단청 빛은 사람 눈을 어지럽게 하네
延曦卧仙兩閣裏(연희와선양각이) 연희각과 와선각이라는 두 누각 안에는
涼燠隨宜坐州侯(양옥수의좌주후)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 고을 원이 앉아있네
閣下庭甃曠且闊(각하정벽광차활) 누각 아래의 벽돌 정원은 넓고도 시원하고
堂簷夜垂青布幃(당첨야수청포주) 당의 처마는 밤에 푸른 휘장이 드리워지네
南牆碧色是果園(남장벽색시과원) 남쪽 담장의 푸른색은 과수원의 빛이니

橘柚千樹相綢繆(귤유천수상주무) 천 그루 감귤나무 유자나무 뒤섞여있네
 閣東近有望京樓(각동근유망경루) 누각 동쪽 가까운 곳에 망경루가 있으니
 朱楹畫棟雲外浮 주영화동운외부) 붉은 기둥 단청한 들보가 구름 밖에 떠있네
 登臨俯視萬里海(등임부시만리해) 누각에 올라 만 리 바다를 굽어보노라니
 遠客羈人可暢愁(원객기인가창수) 먼 곳의 손과 나그네가 시름을 풀 수 있네
 廣宇正臨鐘閣北(광우정임종각북) 넓은 처마가 정히 종각 북쪽에 서 있으니
 軒名愛梅侯所游(헌명애매후소유) 애매헌이라 이름 한 곳은 고을 원의 휴식처네
 未及梅軒東前步(미급애헌동전보) 매헌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걸음 옮기면
 長廊布列六碧油(장낭포열육벽유) 긴 행랑에는 여섯 개의 벽유가 늘어 서있네
 藥房東邊工肆連(약방동변공사연) 약방의 동쪽 가에는 공장이 연이어져 있으니
 壁上無數掛疆鍬(벽상무수괘구후) 벽 위에는 활고자와 화살이 무수히 걸려있네
 又聞中有弘化閣(우문중유홍화각) 또 들으니 그 중간에 홍화각이 있다 하고
 營廳更在梅軒頭(영청갱재매헌두) 매헌 머리에 또 감영 청사가 있다고 하네
 其餘堂廡俱鉅麗(기여당해구거려) 그 밖의 관아 건물들 모두 크고 화려하지만
 錯落重疊難悉搜(착낙중첩난실수) 뒤섞여 있고 중첩되어 모두 구경하기 어렵네
 北有客館西貳衙(북유객관서이아) 북쪽에 객관이 있고 서쪽에 이아가 있으며
 覺堂書院直南丘(횡당서원직남구) 향교와 서원은 남쪽 언덕에 놓여 있다네
 院祠躋享問誰某(원사제향문수모) 서원 사당에 제향되는 분은 누구이던가
 冲庵淸陰與宋尤(충암청음여송우) 충암공과 청음공과 송우암 공이라네
 覺堂之後屹兩堂(횡당지후홀양당) 향교 건물 뒤에 두 개 당이 우뚝하니
 名以運籌及贊籌(명이운주급찬주) 그 이름은 운주당과 찬주헌이라네
 閭閻櫛比可千戶(여엄즐비가천호) 여엄집이 즐비하여 천 호는 될 만하고
 人物頗與中土侔(인물파여중토모) 인구는 자못 내륙에 비길 만큼 많다네
 夾道荒碑石兼銅(협도황비석겸동) 길 양쪽 비석은 돌과 구리로 만들었는데
 古昔賢侯功德留(고석현후공덕유) 그 옛날 어진 원님의 공덕이 남아 있네
 石面紅字臺名鏤(석면홍자대명루) 바위 표면에 붉은 글자로 누대 이름 새겼네

樂育齋中養州士 (낙육제중량주사) 낙육재 가운데서 고을 선비를 길러 내니
 建置云自舊侯由 (건치운자구후유) 건물의 건립은 옛 원님에서 비롯 되었네
 舊侯金公多異績 (구후김공다이적) 옛 원님 김공에게는 남다른 공적 많으니
 在在修葺勤度謀 (재재수증근도모) 곳곳을 중수하느라 부지런히 힘을 다했지
 城東小樹臨官道 (성동소사임관도) 성 동쪽 작은 정자가 관도에 임했으니
 拜箋延赦於焉庥 (배전연사어언상) 배전과 연사가 여기에서 거행 되었네
 昔時露設多褻慢 (석시로설다설만) 예전엔 노천에서 거행되어 몹시 설만하더니
 金公勗¹⁾之事尤休 (김공창지사우휴) 김공이 창건하여 그 일이 더욱 아름답다네
 此島本是彈丸地 (차도본시탄환지) 이 섬은 본래 탄환처럼 좁은 땅이지만
 興廢由來幾千秋 (흥폐유래기천추) 흥망의 유래는 수천 년을 이어져 왔네
 往事茫茫憑誰問 (왕사망망빙수문) 지난 일은 아득하여 누구에게 물을까
 山雲海色同悠悠 (산운해색동유유) 산의 구름과 바다 빛이 모두 유유히네

1. 관덕정(觀德亭) 보물 제322호(제주시 삼도이동 938-10)

觀德亭在衢路上 (관덕정재구로상) 관덕정이 큰 길거리 가에 있고
 亭前百步懸鵲嶮 (정전백보현곡후) 관덕정 앞 백 보 밖에 과녁이 내걸렸네

1) 관덕정 연혁

관덕정은 안무사 신숙청이 정사에 임한 다음 해인 세종 30년(1448) 가을에 창건한 것이 시초다. 편액을 쓴 것은 안평대군이나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 걸려있는 것은 아

1) 김정(金政, 1670~1737) 목사는 영조11년(1735) 1월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제수되어 그 해 4월에 도임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주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김정은 제주목사로 재임 중 글보다는 치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계(鵝溪) 이산해의 글씨이다. 관덕이라는 이름은 ‘사자소이 관성덕야(射者所以 觀盛德也)’라 하여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는다.’는 뜻이며,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관덕이라 편액을 한 이유는 곧 활쏘기를 하는 것은 그 뜻이 과녁에 있지 않고 무덕을 고강하고 예악으로써 꾸미는 것에 있으니 곧 하·은·주의 활 쏘는 뜻을 터득하기 위함이라 한다.

창건이후 성종 11년(1480)부터 고종 20년(1883)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 중·개건한 기록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15척 이상의 처마를 2척 이상 잘라버리고 제주도 처마 곡선의 맛을 일본식 지붕으로 바꾸고 말았으며 흰 페인트를 칠한 문을 다는 등 관덕정의 원래 면모를 변질시키고 말았다. 해방 후 다시 1969년에 대대적인 해체수리를 하고 단청을 하여 육지의 동시대의 어느 건물과 유사한 건물로 변모하였다.

2) 관덕정의 역사

관덕정은 제주도 역사의 산증인이며, 관덕정만큼 제주도 역사의 영욕을 말없이 지켜본 목격자는 없다. 인조반정 이후 실각한 광해군이 제주에서 사망하자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시방은 광해군이 시신을 염습하여 관덕정에서 안치하였다. 근대로 들어오면 일부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봉세관의 조세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신축년 항쟁(이재수난)’의 무대도 관덕정 광장이었다. 여기에서 장두인 이재수 등이 수백 명의 천주교도들을 처형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한 때 오일장터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4·3의 기폭제가 된 3·1 시위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또 1949년 6월, 4·3 기간 동안 무장대를 지휘했던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주검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도민들에게 전시됨으로써 4·3의 종언을 알린 곳도 관덕정 광장이었다. 87년 이후에는 재야 및 시민단체의 각종 집회가 단골로 열리는 지역으로 여전히 제주인의 마음속에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3) 동문선에 수록된 관덕정 칠언절구

학자 서거정(徐居正)은 1478년 왕명으로 편찬한 시문『동문선』에 관덕정을 노래한 칠언절구 한시가 실려 있다.

觀德亭前山似畫(관덕정전산사화) 관덕정 앞에는 청산이 흡사 그림 같고
朝天館下水浮空(조천관하수부공) 조천관 밑에는 물이 하늘에 떠 있으며
奇遊萬里男兒事(기유만리남아사) 만리 밖 신기한 유람은 남아의 일이라
應向扶桑早掛弓(응향부상조괘궁) 응당 부상의 가지에 일찍 활을 걸겠지

2. 선덕대(宣德臺) 월대(月臺) 터

월대(月臺)란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이다. 궁중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용된다. 대개 방형의 넓은 단(壇)으로, 그 위에 지붕이나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다. 월견대(月見臺) 즉 달을 바라보는 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월대는 궁궐에서의 하례(賀禮), 가례(嘉禮)와 같은 큰 행사 때 사람들이 올라서서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이용되며 제례(祭禮) 때에도 이용된다. 월대는 공통적으로 건물의 전면에 놓이며 대개 장방형으로 그 높이는 약 1m 전후이다. 때로는 2단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1) 김정목사가 기록한 수축월대칠성도

제주에서도 월대의 흔적을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35년(영조 11) 4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김정(金)의 「수축월대칠성도」 글이다. 이 글은 김정 목사가 관덕정 뒤에 있던 월대와 제주 성안 일곱 곳에 남아 있던 칠성도 옛터를 보수하여 새로 쌓고는 감회를 드러낸 칠언절구 한시 1수이다. 『노봉문집(蘆峯文集)』에 실린 이 한시의 해설에 김정은 “월대는 관덕정(觀德亭) 뒤에 있다. 칠성도(七星圖)가 성내에 산재해 있어 돌과

흙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나 모두 허물어져 버렸다. 이제 겨우 그 터만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수축토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월대와 칠성도가 옛 탐라의 유적임을 밝히고 아래와 같이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故都遺跡日荒涼(고도유적일황량) 옛 도읍의 유적은 날로 황량해지고
著處人爲擡毀傷(저처인위총훼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훼손시켜 버렸네
往復平阪照一理(왕복평판조일리) 널찍한 언덕을 오가며 큰 이치를 알아내고
滿城星月復生光(만성성월복생광) 별과 달이 성에 가득 차게 다시 빛을 살렸네

2) 선덕대(宣德臺)의 복원

김정은 탐라의 옛 유적인 칠성도 외에 ‘월대’까지 복원하였는데 월대를 복원한 장소는 바로 관덕정 뒤편이다. 현재 관덕정 바로 뒤에 2단의 석축을 전면에만 가지런히 쌓고, 그 중앙에 제주현무암 돌에 선덕대(宣德臺)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김정 목사가 월대를 복원한 뒤 선덕대라 이름 짓고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월대는 1448년(세종 30) 신숙청(辛淑晴) 목사가 관덕정을 창건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유적으로 보인다. 월대 위에는 옛 탐라의 핵심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3.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 국가사적 제380호, 삼도 2 동 43-3번지)

조선시대(朝鮮時代)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濟州牧) 관아는 지금의 관덕정(觀德亭)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이미 탐라국(耽羅國)시대부터 성주청(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官衙施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아시설은 1434년(世宗 16) 관부(官府)의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 타 없어진 뒤 바로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그 다음해인 1435년에 골격(骨格)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내내 중·개축(重·改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때 집중적으로 훼손

(毀撤)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는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1) 제주목관아 변천 과정

1907년에 瀛洲館(영주관 현재 제주북초등학교)자리에 학교를 설립하고, 1909년에는 세병헌 자리에 경찰서를 설치하였으며, 1912년에는 이아터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1913년에는 성문, 1914년에는 망경루, 동성문, 서성문, 간성문 등 여러 문루, 1915년에는 소민문과 북성을 헐었다. 1916년에는 포정사를 훼손하고, 이듬해인 1917년에는 경찰서를 공제당 옛 터에 옮겨 세웠다. 1918년에는 남성문루를 훼손하고, 1929년에는 동성 위에 측후소를 설치하였으며, 1924년에는 연희각을 헐어버렸다. 이어 부임한 島司 前田善次(도사 마에다 겐지)는 1924년 관덕정을 중수하면서 본래 관덕정의 모습에 많이 바뀌져 버렸다. 1926년에는 제주읍성을 헐어 산지향 축항을 쌓고 이아가 헐리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홍화각이 훼손되었다. 제주시에서 탐라국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를 원래의 양식(樣式)으로 복구(復舊)하고자,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를 거쳐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복원(復元)을 완료하였다.

2) 하마비(下馬碑)

제주목관아 외대문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비문이 ‘守令以下皆下馬(수령이하개하마)’라고 쓰여 있다. 수령인 제주목사를 제외한 모든 관리나 백성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출입하라는 뜻이다. 예전부터 하마비가 세워져 있었으며 현재의 비석은 1834년(순조 34) 한응호(韓應浩) 목사 때 새로 세운 것이다.

3) 좌위랑(左위랑)·외대문(外大門)·진해루(鎭海樓)

廣宇正臨鐘閣北 (광우정임종각북) 넓은 처마가 정히 종각 북쪽에 서 있으니
未及梅軒東前步 (미급매헌동전보)매헌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걸음 옮기면
長廊布列六碧油 (장낭포열육벽유) 긴 행랑에는 여섯 개의 벽유가 늘어 서있네

제주목관아의 외대문인 진해루(耽羅布政使)와 동쪽으로 이어진 건물이었다. 좌위랑인 외대문은 문헌에 탐라포정사(耽羅布政司), 진해루(鎭海樓)로 표기되어 있다. 관아의 관문으로 1435년 홍화각 창건시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1766년 남지훈 목사가 개건했다고 한다. 진해루(鎭海樓)라는 현관은 언제 누가 써 걸었는지 미상이며 진해(鎭海)는 ‘바다를 아우른다는 뜻이다. 2층 누각 건물로 종루로도 활용되는데 새벽과 저녁에 종을 치면서 성문을 여닫는다고 하며, 그 종은 제주시 광령리 묘련사(妙蓮寺) 옛 절터에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이 종은 「탐라지」에 따르면 이의식 목사가 병장기를 만들 목적으로 녹여 버렸고, 이후 1850년 장인식목사가 1690년 경남 고성 의운흥사(雲興寺)에 만든 종을 해남의 미황사(美黃寺)에서 무게 500근의 종을 900냥에 구입하여 종루에 설치한다. 1703년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1760년대 탐라방영총람에 목관아 정문으로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남환박물 기록에 의하면 총 18칸으로 나오며, 관아가 존속했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제주목관아의 대문이었다. 1914년 김석익이 쓴 『탐라기년』에 1916년 외대문이 헐리고 일본인이 종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54년 발간된 『증보탐라지』(담수회)에는 ‘종은 일출과 일몰을 알리고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사창(司倉)·진휼창(賑恤倉) 제주면사무소·구 제주시청 터(삼도이동 1024)

사창(司倉)은 관덕정 뒤편으로 주민들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출납을 관리하는 곳이다. 특히 국가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빌려주거나 배급하였다. 1704년 『남환박물』에 의하면 60칸의 기와건물이 있었다. 1761년 사창이 진휼창(賑恤倉)으로 표기되고, 주변에 보민창, 훈련청, 균역청 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면(中面)사무소로 이용된다. 그리고 1914년 제주면(濟州面)으로 바뀐다. 1931년 제주읍(濟州邑) 승격되고 나서고 제주읍사무소로 이용되다가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제주시청 청사로 사용되었었다.

현재는 모든 건물이 헐리어 공용주차장이 들어 있다.

5. 제주읍성의 서문 진서루(鎭西樓)·백호루(白虎樓) 표석

제주읍성의 서문은 현재 병문천 동편으로 서문로터리와 인접한 곳이다. 서문루(西門樓) 앞으로 웅성이 있었고, 웅성 외부 출입구에 돌하르방 4기가 세워져 있었다. 원래 문루의 이름은 백호루(白虎樓)였으나 1773년 조동점 목사가 진서루(鎭西樓)로 바꾸었다. 1914년에 훼손되었다. 여기에 있던 돌하르방은 현재 관덕정 앞에 세워져 있다. 서문 웅성은 어디였을까?

6. 찬주헌(贊籌軒) 터 표석(삼도이동 959-5)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1601년 이전에 세워졌다. 조선 숙종15년(1689) 목사 이우항(李宇恒)이 중건하여 소장대(小將臺)로 삼고 찬주헌(贊籌軒)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뒤 판관(判官) 사후처(伺候處)로 유사시에 판관의 지휘소가 되기도 하였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찬주당(贊籌堂), 이원진의 『탐라지』 등이 모든 지지에는 찬주헌은 관덕정 남쪽에 있고 판관이 민정을 살피고 묻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 영주관(瀛洲館)과 이아(二衙)·찰미헌(察眉軒) 터

北有客館西貳衙(북유객관서이아) 북쪽에 객관이 있고 서쪽에 이아가 있으며

1) 영주관(瀛洲館) 터(삼도이동 16-1)

영주관은 제주목의 객사(客舍)로 조선 시대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이다. 중앙의 정당에는 왕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망배를 하였다. 좌우의 익실은 어사나 여행 관료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신이 머무는 숙소로 사용하였다. 1601년(선조 34)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영주관이라는 건물명이 아닌 객사는 「성안 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53년(효종 4) 이원진 목사 때 편찬된 『탐라지』에 처음 영주관을 ‘객사대청’이라 소개되어 있다. 1907년(순종 즉위) 제주군수 윤원구(尹元求)가 영주관에 제주북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2013년부터 영주관 건물지에 대해 제주북초등학교 동쪽 지경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관의 ‘영주(瀛洲)’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의 삼신산(三神山) 중 한 곳을 뜻하며, 제주의 옛 이름이자 한라산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2) 이아(二衙)·찰미헌(察眉軒) 터(삼도2동 154)

제주목에는 조선 시대 관아가 두 곳에 있었다. 제주영청은 제주목사가 근무했던 곳으로 현재의 제주목관아이며, 이아(貳衙)는 제주판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그래서 제주목사가 근무하던 제주영은 상아(上衙)로, 제주판관이 근무하던 관아 이아는 찰미헌(察眉軒)으로 불렸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제주목이 제주부(濟州府)로 개편되고 목사와 판관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관아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행정의 중심은 관덕정 부근으로 집중하였고, 이아 자리는 전남 제주자혜위원이 일제강점기 통치사업의 하나로 설립되어 1910년부터 진료가 개시되었다. 1927년에는 전남도립제주의원, 1946년에는 제주도로 승격

하자 제주의립병원으로 개칭된다. 1976년에는 제주의립제주병원으로 개정되어 운영하다가 2001년 제주대학교에 이 부지를 매각하고, 2002년 7월 제주의립제주병원은 아라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예술공간 이아’로 2017년 5월 13일 개관하여 활용되고 있다.

8. 향사당(鄉社堂)

제주시 삼도이동 973-2번지에 위치하고 제주시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사당(鄉射堂)의 ‘사(射)’는 공자가 “확상(豐相)의 들판에서 활을 쏘아 현인을 얻는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향사당 주변을 ‘상청골’이라고 하며, 원래가 좌수청(座首廳)이라 하여 좌수 관사였다.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에는 “향사당은 찰미헌(察眉軒) 서북쪽, ‘가락천’ 서쪽에 있다. 좌수 1명, 별감 3인이다. 봄가을에 전 고을 사람들이 모여 향사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래가락천 서쪽에 있던 것을 숙종 17년(辛未年·1691) 김동(金凍) 판관이 현 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다. 1797년(정조 21)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건물의 명칭을 향사당이라 칭하였다. ‘향사당’은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좌수와 별감으로 천거 추대하고, 고을의 한량들이 춘추 2회의 모임을 갖고, 활쏘기와 주연을 베풀며 그동안에 닳은 기량을 겨루기도 했고, 민심의 동향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자치적으로 의논하던 곳이다. 향사당은 조선 후기 좌수의 처소로 사용되었고, 1909년 신성학원의 교지(校地)로도 이용되다가, 1916년 폐쇄되어 일본인의 절(寺)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1년에 다시 고쳐 지을 때 길가와 인접하여 동남향이던 건물을 동북향으로 바꾸었다. 건물은 팔작지붕이며, 가칠단청의 소박한 양식이다. 기둥은 각주 밑 흘림 형태이며, 기단석은 현무암을 이용했다.

9. 박판사(判事) 초가(삼도이동 169-1)

박판사 초가는 삼도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 초가집으로 제주읍성 남문에서 한짓골을 따라가다 서쪽에 몰항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이곳은 박씨 일가가 4대째 살고 있는 집이며, 적어도 300년 이상 되는 집으로 알려져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집 입구에 밖거리가 있는데, 부엌이 없이 큰구들과 작은구들, 상방, 쇠막, 이문거리가 있다. 안거리는 마당을 지나 밖거리 서편에 위치하며, 큰구들, 작은구들, 상방, 정지(부엌), 채방, 고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 북편에 통시가 있고 남쪽에 동산이 있어 주변을 관망하는 정원처럼 여겨지는 공간이다.

10. 남문 정원루(定遠樓, 삼도이동 176)

城上飛薨列譙樓(성상비맹레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남문루(南門樓)는 이름 그대로 제주읍성의 남쪽에 위치하며, 『탐라지(耽羅志)』에 “정덕 중종 7년(1512) 목사 김석철(金錫哲)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정원루(定遠樓), 즉 남문의 누각이다. 정덕(正德: 明나라 武宗의 연호 1506~1521) 연간 임신년(중종 7년·1512)에 김석철 목사가 세웠다. 숙종 을유년(1705)에 송정규 목사가 중창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한억중 목사가 고쳐 지었다. 3문의 남문루 중 가장 마지막에 헐렸다”고 기록하였다. ‘남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남문골’, 남문 밖에 형성된 마을을 ‘남문밖’, 남문 안에 있는 마을을 ‘남문안’이라고 했다. 남문으로 난 한길가에 있는 마을을 ‘남문한짓골’이라 불렀다.

11. 제주읍성(濟州邑城)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제주성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08년(태종 8)이다. “큰 비가 내려 제주성에 물이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됐다”고 기록됐다. 1411년 김정준 제주목사는 제주성을 다시 수축했다. 제주성의 둘레는 계속 바뀌었지만 1755년(영조 31) 이후부터 5489척(1.7km), 높이 11척(3.4m)으로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다. 전체 성곽 길이는 3km에 이르렀다. 성안에 우물이 없었고 성 밖의 산지천변 가락천(嘉樂泉·가락꺇물)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겹성을 쌓았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읍성(濟州邑城)은 둘로 쌓았는데 둘레가 4천 3백 94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성 안에는 물이 없고 성 남쪽 큰 돌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름이 가락귀(嘉樂貴, 가락꺇물)이다. 깊이가 10척 가량 된다. 흐름을 가로막아서 겹성을 쌓았는데 성 안 사람들이 길어다 마신다”고 적고 있다.

石城鞏緻可阻守(석성공치가조수)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數丈其高五里周(수장기고오리주)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城下枳林何茂密(성하지림하무밀) 성벽 아래의 가시나무숲은 너무도 무성하고
城上飛薨列譙樓(성상비맹레초루)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板橋駕塹通人馬(판교가참통인마) 판교를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하니
兩邊木偶鐵索鉤(랑변목우철색구) 양쪽의 나무인형에 쇠사슬 갈고리 감겨있네
登城引索橋拆開(등성인색교탁개) 성에 올라 쇠사슬 당기면 판교가 설치되니
蓋云緩急備外憂(개운완급비외우) 급변이 있을 때에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네

조선시대 개폐식 다리의 제주성 판교(板橋)는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했다. 또한 弔橋(조교: 양쪽 언덕에 줄이나 쇠사슬 등을 건너질러 거기에 의지해 매달아 놓은 다리), 현교(懸橋), 현수교(懸垂橋) 개념의 다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1년 이재수의 난 때에도 성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진을 치고 5일 동안 대척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성은 철옹성이라는 기록이 있다.

曲堞回復鐵關壯(곡첩회복철관장) 굽은 성첩 겹겹이 둘렀고 쇠 빗장 웅장하니

1512년(중종 7) 김석철 목사는 해자(壕字)를 파고 판교를 설치했다. 김 목사는 “제주성의 주위에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모두 널판(板橋)으로 다리를 놓았다. 밤에는 들어올리고 낮에는 내려서 백성들이 걱정이 없게 방비를 했다”고 사료에 기록하였다. 제주성의 자세한 시설은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나온다. 동문·남문·서문의 3문과 남·북 수구의 수문 2문,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 등 부대시설을 기록했다. 격대는 돌출된 성벽으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격퇴할 수 있도록 한 방어시설이다. 타첩은 성벽 위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凸’ 모양으로 쌓은 방어벽이다. 제주성이 오늘날의 성곽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을묘왜변 이후 1565년 곽휼 목사 때였다. 곽 목사는 산지천을 성안으로 들이기 위해 동성(東城)을 뒤로 밀려서 지금의 제주지방기상청 일대까지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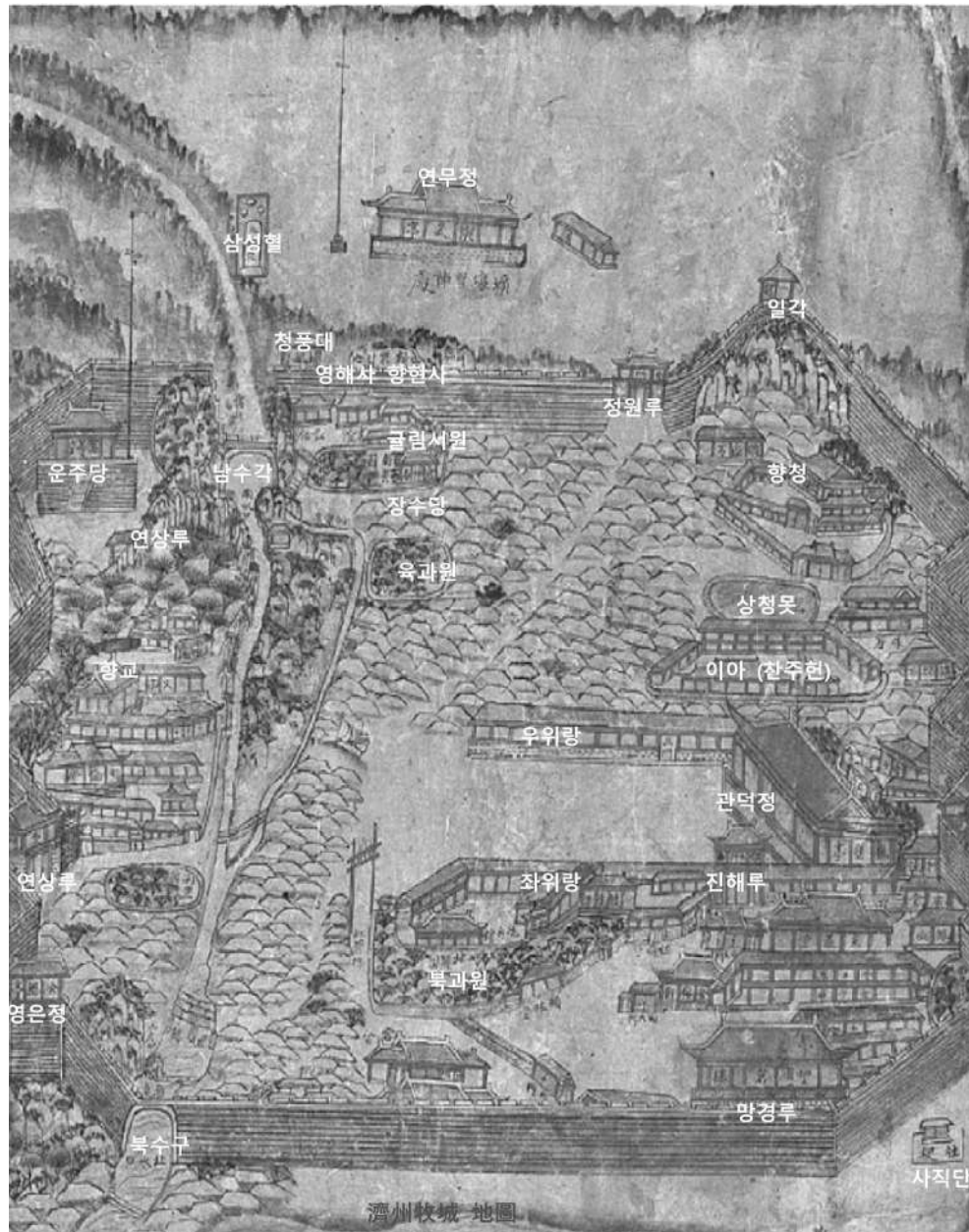
12. 굴림서원(橋林書院)과 오현단(五賢壇) - 이도1동 1421

院祠躋享問誰某(원사제향문수모) 서원 사당에 제향되는 분은 누구이던가
冲庵淸陰與宋尤(충암청음여송우) 충암공과 청음공과 송우암 공이라네

1) 굴림서원(橋林書院, 이도일동 1438)

굴림서원(橋林書院)은 오현단 안에 있는 조선시대 초기 및 중기에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언사로 부임했던 오현(五賢)인 충암 김정·규암 송인수·동계 정온·청음 김상헌·우암 송시열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유교 교육기관이었다. 초기의 학생 수는 20여 명 정도였으나 이후 35명까지 늘어났으며, 1871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 전까지 오현사와 영혜사, 향현사 등 하나의 본사와 2개의 별사,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굴림서원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된 뒤 사사된 김정(金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578년(선조 11) 관관 조인후가 가락천 동쪽에 ‘충암묘’를 지은 것이 그 시초이다. 1659년(효종 10) 제주목사 이회개 장수당을 건립하고, 1665년(현종 6) 관관 최진남이 김정의 사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면서 사(祠: 충암사)와 재(齋: 장수당)를 갖춘 명실 상부한 서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1682년(숙종 8) 예조정랑 안건지가 제주도에 파견되어 ‘굴림서원’이라는 현관을 하사하며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의 위패를 모시도록 하였다. 뒤이어 1695년(숙종 21) 송시열도 함께 모시면서 오현을 배향하게 되었다. 1737년 구사당 김낙행의 기행문에 충암 김정과 규암 송인수, 동계 정온을 모신다고 기록되었는데 봉당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1871년(고종 8) 서원 철폐령에 의해 폐원되었는데, 1892년(고종 29) 제주 사람 김의정이 중심이 되어 굴림서원 자리에 오현의 뜻을 후세에 기리고자 조두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13. 제이각(制夷閣, 제주도 지정기념물 제3호, 이도일동 1499)



제주목도성지도 일부

- ① 동치성(제이각) 위는 ‘청풍대’로 표시
- ② ‘일각’이라 표시
- ③ 제주성내에 있던 6과원 중 종과원

제이각은 왜적을 제압하기 위한 누각으로 1599년(선조 32)에 목사 성윤문이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읍성 남문 동측 치성 위에 건립하였다. 지형적으로 매우 가파르고 험한 낭떠러지의 높은 언덕이어서 제주읍성을 내려다보면 성안은 물론 주변의 언덕과 하천, 그리고 해안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 목적의 동태를 관찰하며 유사시에 왜적을 무찌르기 위한 장대(將臺)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제이각은 남쪽으로凸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쪽은 적루(敵樓)이고 북쪽은 장대(將臺)의 구조로 되어있다.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아 이층구조로 축조된 누대이다. 1555년(명종 10) 6월 을묘왜변으로 제주읍성이 포위당하는 등이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자 1565년(명종 20) 12월 제주목사 곽홀(郭屹)은 제주읍성의 동성(東城)을 동쪽으로 옮겨 축성하였다. 임진왜란 직후 1599년(선조 32) 제주목사 성윤문은 성곽을 높이고 격대(擊臺)와 포루(砲壘)를 설치하였으며 남성(南城)의 제일 높은 곳에 제이각을 세워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地圖)에는 청풍대(淸風臺)로 기록되어 있어, 1850년 전후로 관리들과 선비들이 경승을 감상하기 위해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복원한 제이각의 규모는 43.54㎡ 크기로, 정면 3칸·측면 1칸의 건물과 정면 1칸·측면 2칸의 건물이凸모양으로 연결된 모습이며, 우진각 지붕이다. 현판은 서예가 현병찬의 글씨이다.

14. 남수각(南水閣) 터

산치천의 위에 만든 다리로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이 북수구와 함께 이곳에 수구를 만들고 하상에는 홍예다리를 놓아 그 위에 초루를 세웠다. 남수각은 1652년(효종 3) 8월 태풍에 홍수로 무너져 버렸고 1720년 목사 이원진이 북구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봄에 준공을 보았다. 홍수 때마다 파괴 유실 축조가 반복되다가 누정 건립은 하지 않게 되었다. 제이각(制夷閣)을 남쪽에 있다고 하여 흔히 남수각이라고 불렀다. 남수각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 을묘왜변(乙卯倭變) 격전지

을묘왜변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는데, 1555년(명종 10) 왜구 선박 70여 척이 1차로 전라도 영암·강진·진도 일대를 약탈하고, 2차로 제주도를 휩쓸며 약탈한 사건이다. 왜구는 1555년 6월 27일 1,000여 명이 선박 60여 척에 분승하여 화북포에 상륙하였다. 이후 3일간 제주성을 둘러싸고 제주민과 왜구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문 제주목사는 효용군(驍勇軍: 용맹스런 군인) 70명을 비롯한 김성조·김직손·이희준·문시봉 등의 이른바 치마돌격대(馳馬突擊隊)의 공이 컸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에 명종은 김수문에게 일자(一資)를 올려주고,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김성조에게는 건공장군(建功將軍) 벼슬이 제수되었다.

16. 운주당(運籌堂) 향토유형유산 제26호

名以運籌及贊籌(명이운주급찬주) 그 이름은 운주당과 찬주헌이라네

閭閻櫛比可千戶(여염즐비가천호) 여염집이 즐비하여 천 호는 될 만하고

人物頗與中土侔(인물과여중토모) 인구는 자못 내륙에 비길 만큼 많다네

1) 제주읍성의 작전참모부 ‘운주당(運籌堂) 터’

관아의 부속건물 이었던 운주당 일대에는 조선시대 무기를 보관하던 청상고(淸箱庫) 등 제주성의 작전참모부가 있었던 곳이다. 운주당은 후일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동 본향당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568(선조 1년)년 곽홀 목사가 동성을 뒤로 물려 지우면서 적의 침입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운주당을 창건했다.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가 편액을 지었으며, 1683년(숙종 9년) 신경윤 목사가 중창, 1694년(숙종 20년) 이익태 목사가 중수, 1743년(영조 19년) 안경운 목사가 중수, 1753년(영조 29년) 김몽규 목사가 중수했다. 1892년 화재로 소실돼 찰리사 이규원이 개건했으나, 해방 이후 화재가

다시 발생해 소실됐다 전해진다. 운주당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무기를 보관하던 청상고(淸箱庫) 등 제주성의 작전참모부가 있던 자리로 제주의 장대(將臺)였다. 장대는 전쟁 시 군사 지휘에 용이한 곳에 두는 장군의 지휘소이다. 규모가 큰 성곽에 두었으며, 평상시에는 성의 관리와 행정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는 일찍부터 자주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이른바 운주지책(運籌之策)을 쓰도록 하여 운주당으로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운주당은 관아의 건물이었으나 후에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동 본향당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운주당으로 올라오는 길 주변 마을을 운주당골, 주위의 들판을 ‘운주당드르’라고 불렀다. 1950년대부터 김태민과 고수선 부부가 거쳐하던 집터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태민은 제주인으로 제1호 정규 외과 의사로 장춘병원을 개업했으며, 민중 해방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인물이다. 고수선은 대정읍 가파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교육자이자 항일운동가였으며, 광복 후 한국인 제1호 여의사이자 사회복지사업가로 이곳에 제주모자원과 홍익보육원을 개설운영 하기도 했으며, 제1회 만덕봉사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한 때 이일선 스님이 이곳에 절을 창건하기도 했으며 축대 일부가 최근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최근 장초석 등 주춧돌이 유적들이 발굴되었고 현재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 탐라일기 중 운주당에서 장군전과 신기전 발사훈련

183년 전 탐라일기는 탐라록을 발간한 이원조 목사(50세)가 도입해 올 때 친형 이원호(55세)가 기행문식으로 쓴 일기 중 운주당에서 장군전과 신기전을 쏘았다는 기록이다. 1842년 4월 8일 정기휴가라서 문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수교가 오랜 전 통행사를 폐할 수 없다고 동헌에 아뢰어 동헌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나와서 운주당에 도착했다. 나는 뒤를 따라갔는데 운주당은 제주성 동남쪽 모퉁이의 제일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 전체를 굽어보니 장대에 달아놓은 등불이 듬성듬성 하기도 하고 뻥뻥하게 들어차 있기는 하였으나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넓

고 넓은 바다에 돛대가 떠 있는 듯하였다. 병교가 큰소리로 외치니 대포를 쏘려고 했
불을 들었는데 먼저 장군전을 발사하였다. 화살의 두께는 3약 정도이고 길이는 1파
썸이며, 무게는 수 십근이다. 화포의 경우는 그 모양이 지뢰 채의 형상인데 그것에
사용되는 화약은 30냥이다. 산골짜기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겁이 났다. 이어서 신기전 을 발사하니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고 화전도 쏘았다. 그때
한 줄기 한 줄기 유성이 반짝 빛나며 지나가서 순간 멋진 광경을 이뤘다. 그제야 성
안 가득히 등불을 일제히 걸어 놓은 모습이 보였는데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밝은
대낮과 같았다. 흐르듯 움직이는 불빛이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 은은하게 비치니 그
또한 기이한 경치였다. 혹은 기생이 풍악소리를 들었다가 혹은 광대들의 놀이를 구
경하였다. 난로 화를 만들어 밤새도록 즐기기를 기약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모임을 파하고 관아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일행이 모
두 나갔는데 연죽 혼자만 병에 걸려 따라오지 못하였으니 매우 안타까웠다.

17. 제주읍성 병사들의 훈련소 연무정(演武亭) 터(전입동 1105)

門外數里演武堂(문외수리연무당) 성문 밖의 몇 리쯤에 연무당이 있으니
莫是是處閱操不(막시시처열조불) 이곳이 바로 훈련하던 장소가 아니던가!

조선시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연무정 터는 1636년(인조14) 신경호 목사가 처음 제
주 남문 밖 광양에 창설했다. 1741년(영조17) 태풍으로 무너져 1746년(영조22) 한억중 목
사가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했으나 1921년 한때 감옥이 설립됐
다가 철거됐으며 광복 후 제주동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연무정이 있었던 동초
등학교 교정에도 여러 역사적 부침이 숨어있다. 1943년 일본인 교장에 의해 제주서
국민학교가 개교됐으나 학교부지가 비좁아 동년 예전의 제주목 군사훈련장으로 사
용하던 연무정 터전으로 이설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주공립 아사히국민학교라

고 교명을 바꾸며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방 후 제주동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입학식과 개교식을 거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의 내용이다.

18. 제주읍성 동문 연상루 터(延祥樓址)

동문의 성문인 연상루 입구에는 돌하루방 8기와 목사들의 선정비 10여 기가 서 있
었고, 예전의 동문파출소 남쪽 일대에는 1960년대에 동성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 뒤
돌하루방들은 다른 장소로 분산, 이전되었으며, 선정비 등은 신산동 일대로 옮겨졌다
가 신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 등지로 분산됐다. 동문루
인 연상루가 자리했던 곳은, 동문파출소에서 동문로 건너편 동쪽 사거리에서 기상청
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다.

19. 북수구(죽서루) 터 홍예교(虹霓橋)

北岸石門虹霓臥 (북안석문홍예와) 북쪽 언덕의 석문이 무지개처럼 누웠으니
海水走入一城溝 (해수주입일성구) 바닷물이 달려와서 성의 도랑에 들어오네

북수구(죽서루) 터는 조선시대부터 1927년까지 내를 건너는 홍예교가 있던 자리이
다. 선조32년(1559) 목사 성윤문이 남수구와 함께 이곳에 수구를 만들고 하상에는 홍
예교(무지개다리)를 놓아 그 위에 초루를 세웠다. 북수구 위에 세운 초루는 죽서루라고
하였다. 남·북 수구를 건너기 위해 아치형 무지개다리인 홍예교(虹霓橋)가 설치된다.
그러나 효종3년(1652) 8월 태풍에 홍수로 남수구와 북수구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고,
당시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鑑)이 그 해 겨울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3월 11일 북수
구를 다시 만들고 누각(공진루)을 세웠다. 1780년(정조 4) 김영수 목사는 홍수 피해를 막

기 위해 산지천변을 따라 제방용 성곽을 다시 쌓았는데 이른바 간성(間城)이다. 간성은 높이 9척(2.7m), 길이 551보(689m)로 축성됐다. 간성을 출입하기 위해 중인문과 소인문 2개의 성문이 설치됐다. 한말의 문장가이자 외무대신을 지낸 윤양 김윤식이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남긴 ‘속음청사’를 보면 홍예교에 관련된 기록이 들어있다. “공신루에서 석성(石城)과 마주치는 데를 굽어보니 수구에 홍예문이 지어져 그 위를 사람들이 왕래한다. 수문의 바깥은 백규(跬距: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35m)의 독으로 둘러싸인 연못에 봄물이 넘실거리는데 오리 떼가 열을 짓고 있다. 제방 위에는 버드나무가 빙 둘러있고, 언덕 위에 집들이 있어 복숭아꽃이 곳곳마다 활짝 피어있다.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 공신정 밑에는 세 곳에서 샘이 솟는데 천품(泉品)이 뛰어나다.”라는 기록이 있다.

20. 공신정(拱辰亭) 터(일도일동 1186)

효종 4년(1653) 3월 이원진은 이 날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 낙성 잔치를 벌였는데, 당나라 시인 두보의 ‘한밤중에’라는 시의 구절 중에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는 뜻을 따서 공진루(拱辰樓)라 이름 하였다. ‘북극성을 둘러싼다’는 뜻은 사방의 백성이 임금을 존경한다는 뜻을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후 공진루는 관리들이 세운(世運)을 기원하는 장소로, 혹은 여름철 피서지나 외지에서 온 손님의 접대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순조8년(1808) 목사 한정운(韓鼎運)이 중수한 다음 ‘공진정(拱辰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공진정이 폭우로 다시 무너지자, 순조31년(1831) 목사 이에연(李禮延)이 “물길이 가까워서 노는 사람들이 늘 북적거린다”고 하여 삼천서당(三泉書堂) 북쪽으로 공진정을 이전하였으며, 북수구 위에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았다. 북수구는 그 후로도 홍수 때마다 파괴·유실·축조가 반복되었다. 1927년 8월 7~8일 이틀간에 걸친 대홍수로 산지천의 물길조차 바뀌 버렸다. 곡선으로 약 200m를 동쪽으로 회류하던 물줄기를 거의 직선인 정북 방향으로 뚫어버렸다. 당시 남·북수구와 무지개다리인 홍

예문도 허물어져 버렸다. 현재 그 자리에 무지개 모양으로 복성교를 만들었다.

자료 인용 및 출처 : 「九思堂 金樂行의 遺文研究」 학술지 논문

이원조 『탐라일기』(제주문화원 발행)

제주목관아 <https://www.jeju.go.kr/mokkwana/index.htm>

2025년 발행예정 『삼도이동 향토지』 등

제4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발행일 2025년 3월 20일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